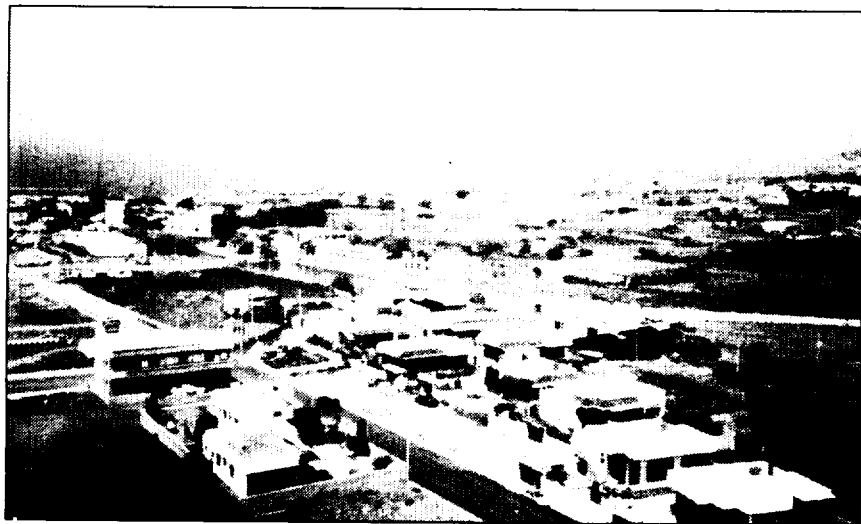


濟州市 外都洞 現地學術調查報告

(2000. 7. 28 ~ 7. 31)

1. 調查經緯
2. 마을개황
3. 方言
4. 民謠
5. 說話
6. 信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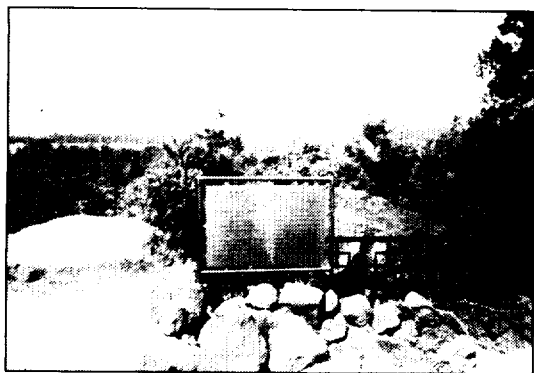
(외도 전경)





외도 부근지도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사진 1> 지석묘



<사진 2> 월대



<사진 3> 수정사

調查經緯

우리 국어교육과에서는 1976년부터 매해 여름 방학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벌써 22번째가 된다. 그 동안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방언이나 민요, 설화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확대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2000년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3박 4일 동안 濟州市 外都洞에서 이루어졌다. 답사 경위와 조사 경위는 아래와 같다.

5월 중순 경에 濟州市 外都洞으로 학술 조사 장소가 확정되자, 본격적인 사전 답사에 앞서 外都洞 마을 회장님을 만나 뵙고, 협조를 부탁드렸다. 그 후 外都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도평 분교를 숙박 장소로 빌릴 수 있었다.

1차 사전 답사는 6월 23일에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사용하게 될 도평 분교의 시설을 둘러 보고, 마을 지리를 익혔다. 그 후 각 마을의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을 만나 협조를 부탁드렸다.

2차 사전 답사는 6월 27일에 각 반 반장과 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 때 부터는 각 반별로 마을 지리를 익히고, 제보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동사무소를 이용해 마을 현황 전반에 걸친 예비자료를 수집하였다.

3차 사전 답사는 7월 1일에 각 반 반장과 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는 도평동의 마을 회장님과 노인 회장님 등을 만나, 도평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사전 조사 결과로 얻어진 제보자들을 연락을 통해 만날 수 있었다.

4차 사전 답사는 7월 6일에 각 반 반장과 반원을 중심으로 다녀 왔다. 이 때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마을을 둘러 보면서, 교회나 당의 위치를 확인하고, 마을 주요 장소를 확인하는데 주력하였다.

본조사에는 재직 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이 참가하였다. 현승환(마을개황), 김태곤(방언), 윤석산(민요), 안성수·문성숙(설화), 손오규(신앙) 교수가 각 분야별로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강정식·강영기·문덕찬·장훈·좌해경·변성구·변태우·장희철·임용진·변숙자 등 많은 동문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참가 재학생은 아래와 같다. [() 안은 학년]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마을개황 : 현미주, 고정녀, 이면정(3), 김윤희, 김현주, 양정환, 이후경(2)
박상원, 이수연(1)

방 언 : 김지연, 강보경, 이정민(3), 고은영, 양혜영(2), 강성봉, 고경란
홍기환(1)

민 요 : 범설아, 김순실, 송경은, 한유숙(3), 강경희, 강지혜, 고동석(2)
김미경, 문희진, 현승엽, 현준영(1)

설 화 : 송지혜, 조소민, 문승현, 현지현(3), 임미라, 강연주, 김진주(2)
고형주, 박소미, 오정아(1)

신 앙 : 김나영, 강현영, 백일화, 양현숙, 오훈(3), 조선덕, 고정혜
장은주(2), 김수홍, 김진철, 부고은, 양승희(1)

조사 일정은 아래와 같다.

제1일(7월 28일) : 오전 9시 30분에 학교에 집결하여 인원과 물품을 점검하였다.
10시에 학교 버스를 이용해 출발, 10시 30분 경에 도평 분교에 도착하였다. 오후 1시까지
숙소를 정리하고 점심 식사를 마쳤다. 그 후 각 반별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제2일(7월 29일) : 9시까지 아침 식사를 마치고, 한 시간 동안 조사 발표 시간을
가져 각 반별로 의견 교류를 하였다. 그 뒤 2차례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조사에 나가기보다는 각 반별로 모여 자료를 정리하거나,
전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일(7월 30일) : 조사 발표 시간을 통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이 날 3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도평동
윤치현 회장님께서 도평동 마을지를 편집하셨던 김창현 선생님과 함께 도평 분교를
직접 찾아 주셨다. 그리고 <국교인의 밤> 행사를 통해 교수와 재학생, 동문이 어우
러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제4일(7월 31일) : 마을 개황반은 조사를 나갔지만 나머지 반들은 자료를 정리하
고, 전사를 하였다. 그리고 1시 경에 학교로 돌아왔다.

조사에 도움을 주신 도평동 윤치현 회장님 이하 마을 주민들과 도평 분교 사용
허락을 내 주신 외도 초등학교 교수언 교장 선생님께 깊은 감사 드린다. 바쁘신 중
에도 자리를 함께 해서 지도해 주신 학과 교수님과 여러 동문 선배들에게도 감사
를 드린다. 또한 현지에서 땀흘리며 조사를 맡아 준 각 반의 반장과 반원들에게도 고
마움의 뜻을 전한다.

마을개황

목 차

- I. 자연환경
- II. 역사적 배경
- III. 인문환경
- IV. 산업환경
- V. 세시풍속
- VI. 기타

I. 자연환경

외도동은 제주시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시로부터 약 7km~9km 사이에 접하고 있다. 이 마을은 북위 32° 31', 동경 126° 32' 에 위치하면서 동쪽으로 이호동, 서쪽으로 하귀리, 남쪽으로 광령, 북쪽으로는 해안과 접해 있다. 이 곳의 연평균기온은 최고 18.7, 최저 12.3° 로 평균 15.5° 이고, 평균습도 85%, 강수량은 평균 1336.1mm이다.

도·농 복합마을로 도근천과 외도천이 마을사이를 흐르고 있으며 제주시 가장 서쪽에 있는 외곽마을이지만 서부지역의 주거 및 교통 요충지이며, 토지구획사업 시행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도심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상가가 형성되는 등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외도동은 크게 외도1동, 외도2동, 내도, 도평 4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여러개의 자연마을(외도1동 - 우령동, 계명동, 수정동, 외도2동 - 월대·연대, 내도, 도평-상동·하동·창오동·사라동·신산동) 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종교현황을 살펴보면 절 3개, 교회 2개, 국제도덕협회 1개가 있다. 각 마을마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마을제를 지내며 내도와 도평에는 당신앙이 아직 남아 있다.

용수상황은 외도동 내 '고망물'을 비롯 도평동 등지의 많은 용천(고봉기, 흙바드리, 괴남절, 고래소, 괴동산, 구두리수, 큰세미, 작은세미 등)이 있어 풍족한 편이다. 충분한 용수와 비옥한 토지로 농사는 비교적 잘 되는 편이며, 해안인근지역이나 어업은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월대·외도8경 등의 관광명승지와 해안인근이라는 장점, 편리한 교통 등 관광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을 갖고 있다.

II. 역사적 배경

1. 설촌유래

외도동의 설촌유래에 대한 정확한 문헌기록은 없다. 따라서 口傳에 의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그리고 외도동이 여러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설촌유래를 마을별로 각각 소개한다.

ㄱ. 외도1동

우령동, 계명동, 절물, 수정동을 합하여 외도1동이라 하는데, 설촌 당시 중심지는 우령동으로서 이를 중심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우령(牛嶺)이란 명칭은 그 형태가 '소가 누운 형상'이라 하여 '우왓동산'이라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설촌시기는 약 350~400년 전으로 추정하며 동쪽은 평산 신씨, 서쪽은 김해 김씨가 처음으로 입촌하였고, 신씨는 어디에서 도래하였는지 전하는 바 없으며, 김씨는 한림 관지에서 들어 왔다고 한다. 계명동은 설촌당시 정착민들이 아침 새벽 동이 틀 무렵 닭이 요란스럽게 울었다는데서 처음에는 닭 우는 동네라고 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서 '鷄鳴洞'이라 호칭했고, 절물동은 수정사가 있던 옛터에 수정사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샘처가 있는 데서 유래했다. 수도시설이 되기 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주로 빨래를 하는 데 사용하였다. 수정동은 절물이 취락구조로 형성된 뒤에 水精寺 근처 마을이라는 의미로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ㄴ. 외도2동

연대동(燃臺洞)과 월대동(月臺洞)을 합하여 외도2동이라고 칭한다.

연대동은 1680년대에 밀양 박씨, 김해 김씨, 청주 한씨, 동해 정씨가 처음 들어와 마을을 이뤄 나갔다. '연대'라는 이름은 마을 중앙에 망루대가 있고 연기를 피워 올렸던 봉화대가 있어서 도두→외도(연대)→수산→고성 등으로 신호가 연결되고 서로 급한 일을 알리며 외적 방비에 대비하는 한편 등대 역할을 하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지금은 석축을 사각으로 높게 쌓고 신식으로 진입 계단과 망루대를 만들어 놓았으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초라한 모습이다.

월대는 약 350~400여년 전에 경주 김씨, 경주 이씨, 소씨가 처음으로 입촌하였고 어디에서 들어 왔는지 알 수 없다. 위쪽으로 우령, 아랫쪽으로 내도를 경계로 하는 도근천 지형이 반달모양이기 때문에 '월대'라 하였다. 월대와 연대의 경계는 '중드루'라 불리는 곳으로 원래 고갯길이었다. 이는 수정사와 관련하여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한다.

ㄷ. 내도

350~60여년 전에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입주, 그 후에 평산 신씨, 김해 김씨, 파평 윤씨, 전주 이씨, 풍양 조씨, 남양 홍씨, 한양 조씨, 인동 장씨, 제주 고씨 순으로 입촌하였고, 대부분 신씨와 김씨이다. 옛날 고을이 성안에 있었고, 외도천의 안에 있었다고 하여 내도라 지칭하였다.

ㄹ. 도평

上洞은 지금부터 약 300여년전 해풍 김씨와 전주 이씨가 제일 먼저 들어와 살았으며 그 후 풍천 임씨 등이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상동이 형성되고 인구증가에 따라 下洞은 인구이동 등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신산동은 진주 장씨가 120여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으며, 그 후 김해 김씨가 들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창오동은 파평 윤씨가 150여년 전, 사라동은 제주 고씨가 350여년 전에 들어와 마을을 형성하였다.

2. 행정구역변천

외도동의 행정구역 변천을 살펴보면, 18세기 경, 평대(또는 대평대), 내도그네, 외도그네, 19세기 경에는 내도리, 외도리, 도평리로 나뉘어 불리었고, 이들은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그 후 1914년 제주면(濟州面), 1931년 제주읍(濟州邑), 1955년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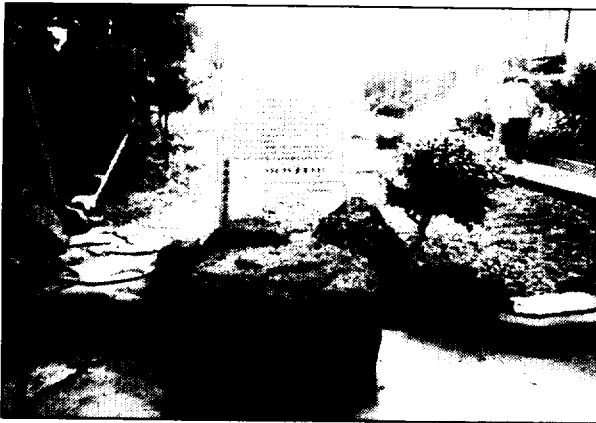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시(濟州市: 법정 3개동 관할-외도1동, 외도2동, 내도동)에 합쳐졌다. 197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법정 4개동(외도1동, 외도2동, 내도동, 도평동)을 관할하게 되어 오늘에 이른다.

3. 유적 및 유물

외도동에는 선사유적으로 제주주호시대(濟州州胡時代)의 고인돌 유적이 발견·발굴되었고, 외도천 주변에서 제주주호시대의 생활터 유적과 유물 산포지가 발견되었다. 역사유적으로 '월대'와 '외도연대'가 있고, 불교유적으로 '수정사' 절터가 남아 있다.

ㄱ. 수정사지(水精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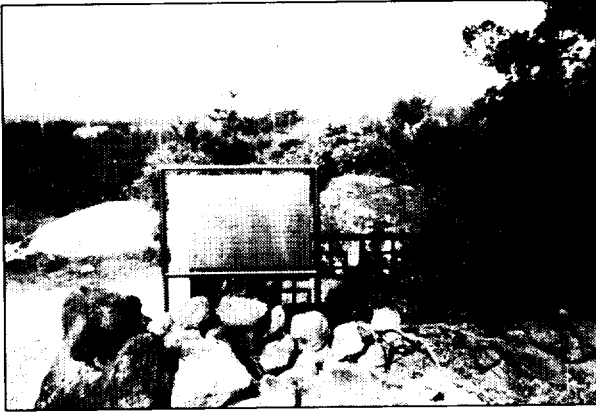


고려시대 대찰이었던 수정사 터로 창건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원제국지배시대인 1300년(충렬왕26)설이 유력하다. 수정사지의 유물발견은 1973년 직경 170cm 크기의 주춧돌이 처음 발견되었다. 이 한 개의 주춧돌의 규모로 보아 상당한 대사찰이었을 것

으로 짐작된다. 그 뒤 1975년에 6개의 주춧돌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1376년경에 중수했던 기와 명문을 비롯하여 그 동안 초석 기와 청동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17세기 중엽까지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태종실록에는 1408년 사노비가 130명이나 있어 법화사와 함께 제주 최대의 비보사찰(痺補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정사 유적지는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ㄴ. 지석묘

외도동 일대에는 외도 수원지 남쪽의 지석묘를 비롯해서 형태와 크기가 다른 6기의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다. 이 곳 지석묘의 내부에서는 돌도끼, 민무늬토기 조각



편들이 수습되었다. 외부의 모양은 시신을 안치하도록 판자모양의 돌을 사용하여 석실을 만들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 완성했다. 재료는 모두 현무암으로 육지에 있는 지석묘와는 차이를 보인다.

ㄷ. 월대 유적지



외도초등학교 동북쪽 외도천 변에 위치해 있다. 도근천과 외도천이 합류하는 곳 가까이 있으며, 주위에는 5백여 년된 팽나무와 소나무의 가지가 도근천 위로 늘어져 있어, 경관이 좋은 곳이다. 지형이 반달과 같으며, 옛날부터 밝은 달이 뜰 때 주위와

어우러져서 물 위에 비치는 달빛이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곳은 과거 여러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아 시를 읊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 곳의 수령 350년 정도 된 소나무 세 그루는 보호수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ㄹ. 소금빌레

연대마을에 넓은 빌레가 있어서 이 마을을 속칭 ‘넓은 여→너른 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바닷물을 올려서 햇볕에 건조시켜 소금을 만들었다. 생산된 소금은 주



로 광령에 가서 팔거나
자급자족하였다. 1950
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
었으나 지금은 볼 수
없고 그 자리만 남아있
을 뿐이다.

□. 마이못(馬耳池)



연대마을 입구에 있
는 못을 일컫는다. 못
의 형상이 말의 귀와
같다고 하여 '마이못'이
라 전해지고 있다. 마
르지 않는 가막샘의 민
물과 이 못의 북쪽에서
밀물 때에 들어오는 바
닷물이 섞여 송어가 알
을 부화시키고 성장하
는 데 좋은 조건을 갖

추고 있다. 그 밖에 장어와 약간의 자라도 있다. '마이못'에서 노는 고기는 외도 8경의
하나로 꼽힌다. 이런 못은 제주도내에 3~4곳 밖에 없다고 한다.

Ⅲ. 인문 환경

외도동은 외도1동, 외도2동, 내도, 도평 4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0년
7월 21일 현재 총 2,622세대, 7,777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중 남자는 3,915명,
여자는 3,862명이다. 연령별 인구현황을 보면 25~34세가 전체 24%를 차지, 노년

층보다 젊은층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업구조에 의한 인구유입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야유동인구의 비율도 큰 편이라 하겠다.

외도동 인구현황

(단위 :세, 명)

동별	인구수			세대수
	남	여	계	
외도1동	2,292	2,241	4,533	1,530
외도2동	527	502	1,029	349
내도동	591	599	1,190	368
도평동	505	520	1,025	375

<2000. 7. 21 현재, 외도동사무소 제공>

마을단체로는 개발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노인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연합청년회 8개가 있다. 노인회와 부녀회 청년회를 제외하면 자생단체라 할 수는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생긴 일종의 인위단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이와 비슷한 단체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부녀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의 점심제공, 백혈병 어린이 위문, 독거노인가구 봉사활동, 농약병 및 비닐수거활동, 이웃돕기 떡 판매 등이다. 떡 판매 등의 활동으로 생긴 수익금은 소년소녀 가장돕기 및 독거노인 돕기에 쓰이고 있다. 사업세부사항과 부녀회 회칙은 다음과 같다.

부녀회 사업

1. 조직관리

회의개최 : 매월 1회 월례회의 개최

2. 건전생활 실천운동

- 상설 알뜰매장 참석 : 통부녀회 일정에 따라 매월 1회
- 검소한 명절보내기 캠페인 : 연합부녀회에서 주축이 되어 계도활동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3. 환경되살리기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 수집 : 통부녀회별로 매월 1회 실시
- 새마을 대청소 실시 : 통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마을별 실시
-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계도활동 전개 :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추진

4. 이웃사랑 나누기

- 불우시설 방문 봉사(제주시 새마을부녀회 일정에 따라 봉사) : 제주양로원 급식봉사, 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 어려운 집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 밑반찬 제공, 청소, 말벗 해 드리기
- 노인생활 체육대회시 점심 및 간식제공
-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음료 전달
- 가정의 달 문화행사 : 불우노인 방문 선물전달 및 말벗 해 드리기

5. 기타 특색사업

- 혼자 사는 노인가구 이불 꼬매주기 및 도배 등 봉사활동
- 지체장애인 목욕시키기
- 대단지 아파트 입주 주민들에 대한 음료봉사대 운영 : 동사무소와 연계

새마을 부녀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회는 00읍·면·동 새마을부녀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00읍·면·동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부녀회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교육 및 홍보활동
3. 부녀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
4. 각급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업무조정, 지도육성 및 지원
5. 회원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회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

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관내 리·통 새마을부녀회장, 광역지도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관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회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광역지도자 중 임기 제한 규정에 의해 퇴임한 전직회장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1.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본회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3.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9조 (상벌)

- ① 부녀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임원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할 수 없을 때
 3.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6. 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7. 본회 회원으로서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③ 중앙회 새마을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④ 징계는 경고, 해임, 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 ⑤ 본회 총회 또는 새마을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그 의결일로부터 각급 새마을부녀회관련 직위(일선지도자 포함)가 해제된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운영위원
4. 감사 2인
5. 총무 1인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임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전·현직 새마을부녀지도자이거나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 ④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총무로 재임하는 동안 리·통지도자, 광역지도자의 직을 면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직은 자동 상실된다.
- ⑤ 회장은 그 하위단위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사임 및 수리)

- ① 본회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시·군·구새마을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 회장을 제외한 선임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임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리·통 새마을부녀회를 지도·감독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白鹿語文 第17輯(2001. 2)

⑤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각종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후원회)

- ① 본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후원회는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덕망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4장 기관

제15조 (구성) 본회에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본회회장으로 한다.
- ② 회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본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임원선출시 임시의장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본회와 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의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명칭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2. 회의 개최 일시, 장소
3. 출석 및 결석회원 수
4. 보고사항
5. 의결사항
6. 회의에서 실시한 선거의 전말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및 회무로 구성하며, 매월 1회이상 개최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임원제명의 발의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7. 기금조성 및 기금과 관련되는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운영위원회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본회와 회원간의 관련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 (경미한 안건의 처리)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7조 (업무부서)
- ①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부, 생활개선부, 가정경제부, 가족계획부 및 교양지도부를 둔다.
 - ② 총무부는 본회의 일반서무, 조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생활개선부는 의식주, 육아, 자녀교육, 의레간소화,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가정경제부는 소비생활의 합리화, 소득증대, 저축 등에 관한 사정경제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⑤ 가족계획부는 인구증가억제 계몽, 모자보건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⑥ 교양지도부는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사회봉사활동,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국제교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⑦ 각부에 부장 1인과 부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⑧ 부장과 부원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윤리위원회

제28조 (윤리위원회)

- ①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된다.

제29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4. 리·통부녀회에서 재심을 요구한 상벌에 관한 사항

제30조 (회의 및 의결)

- ① 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및 리·통부녀회에서 재심을 요구하였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윤리위원 중 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④ 징계를 받은 자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산하조직

제31조 (산하조직) 본회는 산하에 행정구역 단위로 새마을부녀회(이하“부녀회”라 한다)를 둔다.

1. 000·통새마을부녀회

제32조 (지도감독)

- ① 본회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시달받아 시행한다.
- ② 본회는 각 부녀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회장의 인준)

- ① 본회 회장은 시·군·구새마을부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리·통부녀회장과 광역지도자는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본회 회칙 제11조 제3항 규정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중앙회 임원선거 규정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3. 본회 회칙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제7장 제정

제34조 (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3. 기타 수익금

제35조 (기금관리운용위원회)

- ① 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3. 특별기금의 과실금
4. 기타 수익금

제38조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

- ① 본회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본회 회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사의 경우 감사는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회칙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노인회는 1999년까지 회원자격이 만 60세 이상이었으나 2000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보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며 마을회관에 모여 다같이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는데 특히 외도 1동은 매일 점심을 함께 하며 친목을 도모한다. 회원수는 2000년 1월 현재 남자 35명, 여자 80명으로 총 115명이다. 노인회는 각 마을마다 독립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연합 노인회가 그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위에 존재하나 활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마을 노인회별로 활동을 하며, 연합회의 사업으로 일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연다. 회장선출은 각 경로당 회장들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며 임기는 2년이다. 회칙은 1989년 4월 7일 개정된 대한노인회정관과 거의 일치하며 간부인원 등의 약간의 자체수정이 있을 뿐이다.

외도에는 자생단체 이외에 어촌계가 있다. 어촌계는 해안과 접해 있는 외도와 내도에 존재한다. 외도동 지역이 해안 인근 지역이기는 하나 한림항, 도두항 등 큰 항구의 인접과 교통발달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어업인구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어촌계의 활동 및 규모도 사실상 미약하다 하겠다.

먼저 월대와 연대를 통합한 외도 어촌계는 회원자격을 6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남자 19명, 여자 34명으로 총 53명이다. 배보유수는 월대 3척, 연대 7척 총 10척이다. 한달 28일 정도 어업활동을 하며 소라,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하여 수리조합에 판매하고 있다. 1년에 약 1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이 수익은 대부분 양식장에 전복 종패사업을 벌이고 있다.

내도 어촌계는 1968년에 생겼으며 여자는 물질을 할 수 있는 자, 남자는 6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를 회원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원수는 남자 8명, 여자 21명으로 총 29명이고 총 7척의 배를 보유하고 있으며, 1년의 총 수익금이 1000만원 정도 되나 극히 적은 금액이라 사업을 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복지시설로 제주양로원·요양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외도동 관내 시설이 아니라 제주시 관내 시설로 그 운영은 정부보조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과거 제주시 삼도동에서 영평동으로, 영평동에서 지금의 도평동으로 1991년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주양로원·요양원의 개요와 연혁은 다음과 같다.

설립목적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무의무탁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사업

무료 노인복지 시설로써 제주시내지역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무의무탁, 거택보호 대상자를 본 시설에 입소시켜 의료, 재활 및 생활편의 서

비스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업 등을 한다.

- (1) 시설입소 생활자 의료, 재활 및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 (2) 자원봉사자모집 및 관리
 - 주간, 월간 자원봉사자활동계획표 작성, 실시 등 자원봉사자의 관리
 -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 (3) 후원자모집 및 관리
- (4) 재가복지사업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주간보호사업
- (5) 시설사회화 사업(지역 연계)
 - 지역주민과의 한마당
 - 물리치료실, 운동실, 목욕실 개방
 - 야외 나들이
- (6) 기타사업

현황

1) 연혁

- 1957. 4. 13 재단법인 허가
- 1957. 5. 24 제주양로원 설립(제주시 삼도동)
- 1978. 7. 3 제주양로원 신축이전(제주시 영평동)
- 1991. 2. 28 제주양로원 신축이전(제주시 도평동)
- 1991. 7. 1 사회복지법인 자연동산으로 명칭변경
- 1992. 3. 2 제주요양원 시설 허가(정원 30명)
- 1994. 7. 22 자연동산에서 불교자비원으로 법인명칭변경

2) 시설개요

대지 2, 278평

건평 482평

양로원(281평) : 식당,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 상담실, 기타

요양원(201평) : 의무실, 자원봉사자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3)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 입소대상 :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 입소절차 : 대상자 → 시설상담 → 읍·면·동사무소 의뢰 → 시청접수 → 시설의뢰 → 입소

제주양로원 · 요양원 조직

시설장	총무	간호사	생활 지도원	물리 치료사	생활 보조원	재가복지 담당	취사
1(겸직)	양로원1 요양원1	양로원1 요양원1	- 요양원1	양로원1 -	양로원1 요양원2	양로원1 -	양로원1 요양원1

그리고 문화시설로 도평수련실이 있다. 이 곳은 청소년과 일반인의 여가선용 및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개관되었다. 공부방, 체육관, 컴퓨터실, 휴게실, 노래방 등의 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취미, 교양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공동체의식을 기본으로 사회적응능력향상,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선도에 힘쓰고 있다. 도평 수련실은 문화관광부와 제주도, 제주 시와 단체나 개인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외도동에는 교육기관이 외도초등학교, 도평분교가 있다. 외도초등학교는 1939년 6월 3일에 개교하였고, 1983년 3월 1일에 도평국민학교가 외도교 도평분교장으로 개편됐다. 반농·반어업에 종사하는 촌락으로 형성된 전통 보수의 유학촌이었으나 최근 아파트 단지 조성 등 도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열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좋은 교육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고 아파트 형성 등으로 학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도평동을 제외한 외도동 관내 거의 전 아동이 외도초등학교로, 도평동 아동들은 도평초등학교로 학군을 형성하며, 상급학교 진학은 거의 제주서중학교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직원현황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유치원 교사	행정 주사보	식품 위생	사무원	기능직 조무원	계
남	1	1	3(1)	1(1)					1(1)	7(3)
여			1	12(2)	1	1	1	1		17(2)
계	1	1	4(1)	13(3)	1	1	1	1	1(1)	24(5)

()은 분교

아동현황 및 학급편성

구분	학년	1	2	3	4	5	6	계
본교	학급	4(1)	3	3	2	2	2	16(1)
	남	61	51	44	50	45	40	289
	여	50	45	56	30	35	37	251
	계	111	96	100	80	80	77	540
분교	학급	1	0.5	0.5	1	0.5	0.5	4
	남	8	7	5	6	5	3	34
	여	7	2	1	6	1	3	20
	계	15	9	6	12	6	6	54

()은 분교

도평동 향약

1. 사대강령

- 가.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 권장한다 : 덕업상권(德業相勸)
- 나. 잘못은 서로 바로 잡는다 : 과실상규(過失相規)
- 다. 예의와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 예속상교(禮俗相交)
- 라.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준다 : 환난상휼(患難相恤)

2. 세부실천요목

가. 덕을 세우는 일은 서로 권장하는 일 : 덕업상권

(1)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할 것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데 힘쓰며, 사람의 착한 것을 보면 반드시 본받으며 자기의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벼를 사귀되 어진 사람을 친하며 가난하여도 청렴한 절개를 지키며 부유하여도 예를 지키고 겸손하여야 한다.

언어는 반드시 진실하여 거짓이 없어야 하며 행동은 반드시 착실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남을 위하여 일을 피하되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며, 매사에 부지런하고 성심성의를 다한다.

(2) 부모에게 효도할 것

아버이를 항상 성심으로 공경하고 봉양하며 가정사를 반드시 부모님과 의논하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몸가짐을 주의하여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며 병환이 있으면 간병을 게을리 하지 말고 지성을 다하여 치료할 것이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며 상사에 당하여는 슬픔을 다하여 예를 지킬 것이며 제사에는 정성을 다하여 생존시를 추모한다.

(3) 애향활동을 전개할 것

고향을 가꾸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다.

고향의 인재를 육성하는 육영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4) 교통도덕을 지킬 것

운전하거나 보행할 때 교통질서를 지킬 것이며, 차중에서 좌석을 서로 양보하여 오르고 내릴 때에는 차례를 지킨다.

길에 휴지, 기타 불결한 물건을 버리지 아니하며 이를 보았을 때에는 솔선하여 치운다.

나. 잘못을 서로 바로 잡는 일 : 과실상규

(1) 의리에 반하는 허물이 다음 일곱 가지가 있으니 이에 범하지 않도록 힘쓸 것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

국가에 불충하는 일

형제간에 불목하는 일

부부간에 불화하는 일

윗사람에게 불경하는 일

친척과 이웃간에 소원하는 일

권선하는 모든 사항을 어기는 일

(2) 과음하거나 주정하는 일 : 음탕한 일, 도박하는 일, 윤리를 벗어나는 행위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다. 예의와 미풍양속으로 서로 교제한다 : 예속상교

(1) 어른을 공경할 것

20년 이상으로 부모의 연배가 되는 분은 친부모와 같이 공경한다. 다만, 20년 이하라도 부형과 친교가 있거나 어릴 때부터 공경하던 분, 또는 덕위가 높은 분은 어른으로 섬긴다.

10년 이상으로 형의 연배가 되는 분은 친형과 같이 대우한다.

윗사람을 보면 공손히 인사를 올린다.

(2) 청소년을 사랑으로 선도할 것

10년 아래사람은 친아우와 같이, 20년 아래사람은 친자식같이 사랑으로

선도한다.

(3) 남녀간에 서로 예의를 지킬 것

남녀간에는 예절과 풍기를 바르게 하며 서로 존경하고 겸양하며, 혼란·무분별한 폐습이 없도록 한다.

(4) 이웃과 친목할 것

이웃 회원간에는 유무를 서로 융통하여 환난을 서로 도울 것이며 적은 허물은 서로 용서하여 화목에 힘쓴다.

이웃간의 시비를 해결하고 다툼을 화해시킨다.

라.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주는 일 : 환난상휼

(1) 천재지변 등 재난을 구조할 것

천재지변 또는 화재 도난 등 재난의 예방에 힘쓸 것이며 재난 정도에 따라 회원 각자가 응분의 구조를 한다.

(2) 외롭고 약한 자를 도울 것

회원 중 사망한 뒤에 그 자손이 외롭고 약하여 의탁할 곳이 없는 자는 그 친족 중에서 신실한 사람을 택하여 재산을 관리케 하고 그 집안이 가난하면 회원들이 힘껏 도우며 방탕하거나 불량하면 살펴 감독하고 인도하여 옳은 길로 인도한다.

도평동애향회 운영규약

제1조 (회의명칭) 본 회의 명칭은 도평동 애향회[이하“회(會)”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옛 향회의 마을 운영을 현대에 알맞게 재현 발전시켜 전통적인 제주정신을 바탕으로 주민간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고 풍속과 예절을 중히 여겨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청소년 선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으뜸 제주 건설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도평동 새마을회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 1명, 부회장은 상동 1명, 하동 1명과 위원으로는 10인 이내의 임원을 둔다.

(2) 본회의 사무보조를 위하여 서기는 1명과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둘 수 있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제5조 (임원 및 감사 등의 임무)

- (1) 본 회의 회장은 대내외에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는 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 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행한다.
- (4) 서기는 회장의 지시에 의한 업무 전반을 처리 및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사 수행에 응해야 한다.
- (5) 위원은 본회에 상정된 의안을 심의한다.

제6조 (임원의 선출)

- (1) 회장은 도평도에서 덕망과 인격이 풍부하고 도평동민의 신망이 있는 인사(연장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은 도평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덕망과 인격을 겸비한 연장자 중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위원은 10명 이내 선출하되 덕망과 인격을 겸비한 자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
- (4) 서기는 회장이 임원 이외의 자로서 지역내에서 학식이 풍부한 자로 지명한다.
- (5) 감사는 학식과 인격을 겸비한 지역 주민 중 회장단에서 지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 (1) 회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재연임이 가능하다.
- (2) 그 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
- (3) 감사와 서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의안의 작성) 본 회에 상정될 의안은 회장단에서 결정하거나 위원 정수의 3분의 1 및 지역 주민 10% 이상의 발의 동의에 의하여 상정한다.

제9조 (의안의 결정)

- (1) 의안의 결정은 위원 3분의 2이상 참석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주민의 신상 및 재정에 미치는 사항의 결정은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 회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 (회의의 개최)

- (1) 회의는 총회, 본회의, 임시회로 구분한다.
- (2) 총회는 년 1회로 하되 매년 1월에 개최한다.
- (3) 본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한다.
- (4) 임시회는 수시 개최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본 회의 운영사항) 본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향리주민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2.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청소년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3. 비윤리적 행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상호간의 분쟁에 관한 중재 해결 등
5. 기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사업 추진 등

제12 (재정) 본 회의의 운영을 위한 경비는 다음 각호에 의한 자금으로 한다.

1. 지역 주민의 출자금 및 회사금
2. 행정기관의 보조금
3. 자체사업 이익금

부칙

제1조(효력) 본 규약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1991. 2.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IV. 산업환경

외도동 지역은 과거 농업종사인구의 비중이 큰 지역이나 해안가 인접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어업인구가 약간 있었던 정도이다. 과거에는 보리와 콩이 주재배작물이었으며, 근래에는 그와 함께 시설재배와 굴 등의 타작물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어업인구는 현재에도 역시 그 수가 많지 않다. 해안가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종사인구가 많지 않은 것은 인근에 한림항, 도두항 등 큰 항이 위치해 있어 외도동 어업의 입지가 약한 탓이라 하겠다.

현재 외도동의 마을성격은 도·농 복합촌이라 하겠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립으로 인해 유입인구는 많아졌으나, 그 대부분이 주거입지를 쫓아온 인구라서 외도동 내에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전무한 형편이며 이들 대부분은 시내 중심권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도동 거주인구 중 노년층은 농업 등 1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차산업에 주로 종사를 하며, 청·장년층은 도시유입인구라 하겠다.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m²)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도로
8,402,149	4,005,223	509,214	1,582,568	-	713,334	439,209	3,498	23,065	446,344

<2000. 8. 7 현재 제주시청 제공>

농지별 재배작물 통계

노지재배

단위:m²(필지수)

구분	벼	보리	두류	잡곡	서류	채소	특용	감귤	상전	휴경	합계
외도 1동	2,192 (1)	1,035,478 (592)	31,821 (14)	110,567 (45)	28,963 (10)	278,960 (148)	26,354 (14)	700,187 (260)	0(0)	371,575 (242)	2,587,087 (1,326)
외도 2동	0(0)	62,553 (81)	1,924 (3)	0	0	8,499 (9)	0	3,833 (1)	0(0)	41,436 (59)	118,305 (153)
도평동	0(0)	403,804 (282)	14,448 (8)	19,236 (9)	9,425 (3)	63,093 (24)	11,466 (4)	1,409,50 2 (689)	0(0)	126,117 (108)	2,057,150 (1,127)
내도동	0(0)	598,490 (448)	13,933 (8)	33,351 (17)	3,901 (3)	143,396 (61)	7,470 (4)	161,911 (61)	0(0)	39,829 (57)	1,002,261 (689)

시설재배

단위:m²(필지수)

구분	벼	보리	두류	잡곡	서류	채소	특용	감귤	상전	휴경	합계
외도1동	-	-	-	-	-	3,006 (1)	-	7,711 (2)	-	-	10,716 (3)
외도2동	-	-	-	-	-	-	-	-	-	-	-
도평동	-	-	-	-	-	-	-	-	-	-	-
내도동	-	-	-	-	-	10,134 (3)	2,354 (1)	14,437 (3)	-	-	26,925 (7)

<2000. 8. 7 현재 외도동사무소 제공>

농가인구

단위:명(세대)

외도1동	외도2동	내도동	도평동
920(238)	355(87)	534(134)	483(109)

<20000. 8. 7 현재 외도동사무소 제공>

V. 세시풍속

대체적으로 외도동은 넉넉지 못한 생활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세시풍속이 많이 전해지지 못한 편이다. 특히 4·3의 피해로 명절 등이 많이 생략되었다.

1월

정월명절 : 음력 정월 초하룻날 아침 외도동 사람들은 곤쌀로 만든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차례와 세배가 끝나면 친척들끼리 모여 윷놀이 등의 놀이를 즐겼다.

대보름 : 대보름에는 부락에 자리잡은 당(본양)에서 고기, 모뭉가루로 만든 돌레떡, 과일, 실 등을 올려 놓고 당제를 지내는데 이것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실은 자손들의 명을 길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당제를 지낸 후 남은 실로 연을 만들어 연날리기를 했는데, 이 때 연줄에 밥풀과 잘게 부순 유리가루를 입혀 연싸움을 하고 마지막에는 실에 불을 붙여 연을 태웠다. (액막이의 일종) 그러나 정월 대보름 이후에는 이유는 모르지만 연을 날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전해지고 있다. 대보름에는 가정마다 시루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을 보름떡이라 부른다. 떡 위에는 가족들의 이름을 써 놓고 한해의 운을 점치기도 했는데 떡이 잘 익으면 운이 좋은 것, 떡이 잘 익지 않거나 버려지면 운이 나쁜 것이라 보았다.

신구간 : 외도동 사람들은 대부분 신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기는 신구간 1주일 동안에 이사를 한다. 그러나, “음력 6월에는 아즌(앗은) 방석도 물러나지 말라”하여 이사를 하지 않는다. 이사 할 때는 전에 살던 집주인이 집 청소를 하지 않고 집을 비우면, 새로 들어오는 이들이 집 청소를 하여 옛 주인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새로운 주인임을 확인시킨다. 또 이사 올 때는 집에 소금을 뿌리고, 술단지 안에 쌀과 시로 채워진 요강을 제일 먼저 가져왔다. 또한 ‘부엌동티’라 하여 부엌에서 쓰던 돌로 집을 지으면 동티가 난다고 믿었다.

2월

영등제 : 외도동에는 각 마을마다 포구가 있으나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장마철에만 물이 흐르는 포구로 특별한 제를 지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영등할망이 들어오는 시기에 사람들은 날씨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재거티(해변)주변의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날씨가 화창하면 그 해의 일이 모두 순조롭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불행이 생기며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은 빨래를 하면 안 되고, 머리도 감아서 안 되며, 옷에 풀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집안에 벌레가 일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보름동안 하지 못하게 했으나 지금은 일주일 내지 사흘 동안만 금기시하고 있다.

입춘 : 새철 드는 날이라 하는 입춘에 여자는 집 밖의 출입을 금했다. (새철 드는 날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재수가 없으며 여자가 남의 집에 들어갈 경우 발에 검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날에는 문에 글씨나 팻 등을 붙여 귀신을 쫓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3월

묘제 : 삼월 삼진날 평소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에 별초를 하고, 제를 지낸다. 그러나 이는 집안마다 다르며 10월에 하는 집도 있다.

5월

단오 :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에는 저녁에 차례를 지냈다. 이 날은 보리쌀과 곤쌀을 섞어서 밥해 먹었으며, 주로 보리묵을 많이 먹었다.

6월

갈증이 만들기 : 미녕(무명)에 감물을 들여 갈증을 만들어 입었는데 갈증이는 땀을 잘 흡수하여 주로 여름에 즐겨 입었다.

닭 잡아먹기 : '음력 스무날'에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닭을 잡아 먹으나 제주도에서는 몸 보신을 위해 닭을 즐겨 먹었다고 한다.

7월

칠월칠석 : 칠월칠석에는 절에 가서 가족들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이 날에는 주로 개역(미숫가루)을 만들어 먹었다.

백중 : 물 맞는 날, 외도에는 물이 많으나 특별히 물을 맞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내리는 물이 없어 외도에서 물맞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간혹 한라산까지

白鹿語文 第17輯(2001. 2)

가서 물을 맞기도 한다. 이 때에 사람들은 호박이 안 열리면 '니 구실 하는 게 무어냐'라 외치며 호박을 막대기로 때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큰 호박이 많이 열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유두 : 마을 부인들은 물가에 모여서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의 방향은 항상 동쪽이었는데 그 이유는 동쪽이 길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8월

소분 : 음력 8월 초하루로 흠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상의 무덤에 벌초를 하였다.

말뚝줍기 : 외도 사람들은 한라산 아래 목장까지 말뚝을 주으러 갔는데 이 때의 교통수단은 특별한 것이 없어 걸어서 갔다. 주워온 말뚝은 잘 보관하였다가 주로 땀감으로 썼다.

추석 : 추석에는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여서 송편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저녁에는 보름달을 보며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춤과 노래, 놀이 등을 즐기기도 했다.

11월

동짓날 : 동짓날에는 팔죽(동짓죽)을 쑤어 먹어 집 앞에 뿌리며 귀신을 쫓았다.

지붕잇기 : 지붕잇기는 주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농한기인 겨울 중(11월~1월)에 날씨가 온화한 날을 골라서 한다. 지붕을 이을 재료는 10월부터 미리 준비하며 호롱쟁이로 줄을 올리는데 마을의 지붕은 동네 사람들이 모두 협동하여 올렸다고 한다.

12월

장담그기 : 외도에서는 콩 수확을 끝낸 후 신일을 피하여 장을 담근다.

※ 그 밖에 외도에서는 이묘를 할 때는 생계란, 버드나무, 오곡씨, 무리를 함께 넣었다. 이것은 마귀귀신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VI. 기타

1. 외도토지구획정리사업

외도동 지역의 도시화와 인구유입의 주원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립이므로 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덧붙인다.

ㄱ. 외도토지구획정리

사업개요

위치 : 제주시 외도동 일원

면적 : 751,413㎡(227,302평)

사업기간 : 1997. 4. 23~2001. 4. 22

사업비 : 36,165백만원

→ 제주시에서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의 균형발전과 저렴한 택지공급뿐 아니라 공공시설의 확충정비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도심인구의 유입과 상가형성이 예상된다.

ㄴ. 부영 아파트

1차 : 1012세대(97~8%입주)-대부분 30대 젊은층. 외도에서 입주한 자는 20% 정도, 그 외 타지역

2차 : 891세대(5월 완공예정, 신구간 480여세대 입주 예정, 나머지는 5월)



2. 외도 8경

- ㉠ 월대피서(月臺避暑) - 월대의 피서
- ㉡ 야소상춘(野沼賞春) - 들소(못)에서의 봄구경
- ㉢ 마지악어(馬池躍魚) - 말못의 뛰는 물고기
- ㉣ 우령특송(牛嶺特松) - 첫동상의 뛰어난 소나무
- ㉤ 대포귀범(大浦歸帆) - 큰 포구로 돌아오는 돛단배
- ㉥ 광탄채조(廣灘採藻) - 넓은 여에서의 해조 캐기
- ㉦ 사수도화(寺水稻花) - 절물의 벼꽃
- ㉧ 병암어화(屏岩漁火) - 병풍 바위의 고기잡이 불

방언

目次

- I. 농업
- II. 어업
- III. 식생활
- IV. 의생활
- V. 주생활
- VI. 가축
- VII 기타

이번 방언 조사는 실생활에 사용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였다. 특히 어업과 농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 이와 관련된 어휘를 중심으로 조사했다. 방언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표준어를 뒤에 제시하였다. 동일 제보자의 경우, 혼동해서 쓰이는 어휘일 때에는 제보자가 주로 쓰고 있는 어휘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인용한 제보자의 말 가운데 괄호로 처리된 부분은 질문자의 말이며, / 로 표시된 부분은 제보자가 다른 경우 구분 표시이다.

I. 농 업

1. 농작물

1) 곡류

(1) 콩

- ① 줄자리콩 : 옛날은 줄자리, 거 줄자리콩이라고, 지금 이제 콩나물콩
- ② 청대콩 : 또 청대콩은 된장, 옛날 그 뭔가 그 옛날 된장, ... 굵고 퍼렁해여.
- ③ 주름콩
- ④ 머드레콩

머드레콩은 조팏디 그냥 이렇게 행 놔두민은, 행 일단 조에 행 나두민은
그 옆에 저 머드레라고 해서 드문드문 나는 거를 말허는 건디, 머드레콩.

(2) 보리

① 맥주맥

② 솔보리/썰보리

③ 두줄베기

두줄베기라고 아주 옛날, 옛날 것도 맥주맥은 맥주맥인디, 지금 현재
가는 거하고 좀 틀려. (건 어떻 생긴거 마썸?) 근디 이렇게 이 이렇게
허른 거기 똑 양쪽으로 혼 줄씩만 나와서 쪽허게 올라가는 것이 있어.
걸 두줄베기라고 허고 이제 이거는 좀 틀리지.

(3) 대죽부레기/대죽 - 옥수수

(4) 녹디/녹디 - 녹두

(5) 꿔 - 깨

(6) 서숙 - 조

① 흐린조/히린조

② 모은조 : 당돌라리, 이맹시리

③ 개발시리

또 개발시리라고 저 세 가달. 저 조코부리(?) 세 개 돋은 거. 개발자
국 모양으로 한 / 다리가 꺾꼭지모양으로 세 갈래 이렇게 난 게 있어.
것보곤 개발시리. 개발자국이 이렇게(손모양) 됐잖아. 그 개발자국 닮아
서 개발시리.

④ 덩드렁조

(7) 모믈/모믈/모믈-메밀

(8) 감저-고구마

(9) 풋-팍

① 대풋

② 오동풋/실풋

오동풋 두글두글해서 둥근 것이 잇고. 오동풋. 소위 실풋 말이야.

③ 순풋

(10) 돔비 - 동부34)

34) 콩과에 속하는 일년생 만초(蔓草)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영 줄 놔서 저 밭 올타리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막 올라가서 열매들 질게 된 거 잇잖아. 돔비. (열매가 어떻 작아마심?) 풋. 풋 닳아. 열매는 풋 닳은데 풋 하고 그 종류가 뜰리지/ 풀보단 좀 굵고. (돔비는 뭐 해 먹어마심?) 것도 밥에나 먹고. 덜 익을 때는 삶아서 까 먹고.(그 줄기가 어떻 뻗어 마심?) 줄기? 그냥 막 즐겨부러. (영 영 연결되기넨 뻗어가 마심?) 어. 막 쪽 연결돼. 쭈욱. (밭에 일부러 심는 거 마심?) 그거는 밭에 아니고 그냥 담에, 담에 저 밭에 가른 판 곡식 다 해 가지고 거는 담 이런 데만 해 가지고 이 담에 올리거든.

(11) 지슬-감자

(12) 나룩-쌀(벼)

(13) 산디/산뒤-밭벼

(산디 이런건 안 갈안 마썸?) 산디도 그렇지, 그때는 산디도 다 헛지. 산딘 나룩 대행이라. 나룩은 물 나는 데, 물 주는 데 나룩이 되는 거고, 산뒤는 물 안나는 데도 나룩이 되는 거라. 모른 밭디서 허는 것이 산디. 산디가 나룩이나 썸썸이 종륜데, 형제같은 종륜데, 이 산뒤는 물 없는 디서 캡캡 모른밭디서 생산되는 것이 산뒤고, 나룩은 물을 이제 받아주지 안으른, 물엇이른 안되는 것이 나룩이주게.

(14) 피

※ 논쟁이

응, 콩도 논쟁이콩, 풋도 논쟁이, 이런 것은 그 알맹이를 막 이제 대거름체, 이렇게 헌거, 여네 영 옛날 할망들이 이렇게 치거든. 막 치든 좋은거 우로 뺏아 올리고 아래 떨어진 거 가온 것을 논쟁이라고 하거든. 걸 논쟁이라고. 거 여네 걸 장만행 먹거든. 또 모물은쟁이, 풋는쟁이, 콩는쟁이 다 잇어 거. (거는 알맹이만 가정 논쟁이렌 햅수과?) 아니, 알맹이가 줄바로 안된거지게 안되여. 제라허게 이제 풋 종류가 이렇게 그 오동풋이면 오동풋 그췌 뚜들뚜들 생기고, 질맹이터든 요렇게 쭈락쭈락허게 제라게 그걸로 쳐서 안내려가는 것이 거 저 제라헌 거고 내려간 건 논쟁이라 다. 논쟁이엔 헌 건, 논쟁이엔 헌 것은 그 열매 중에서 그 저 못난거 그걸 그르쳐서 논쟁이라고 허여.

2) 채소류

(1) 녹물/녹물 - 나물(菜), 배추

(2) 갯녹물 - 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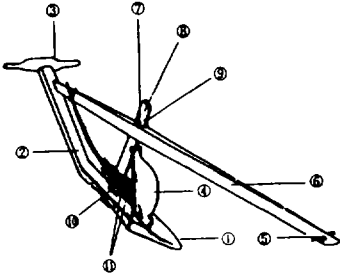
- (3) 부루 - 상추
 - (4) 유/유쌈 - 깻잎
 - (5) 늪뻤/춧마귀 - 무
 - (6) 마농 - 마늘
 - ① 패마농
 - ② 곱대사니
 - (7) 세우리 - 부추
 - (8) 오이
 - (9) 웨
 - ① 줌웨/줌메
 - ② 물웨
 - (10) 호박
 - (11) 고사리
 - (12) 콩너물/콩늑물 - 콩나물
 - (13) 고치/풀고치 - 고추
 - (14) 양예/양엿간 - 양하(襄荷)
 - (15) 미네기 - 미나리
- 3) 기타

(1) 하늘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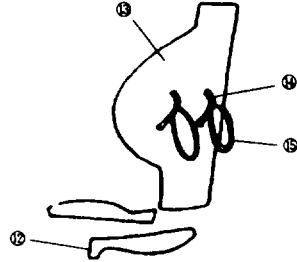
하늘레기 빨리 아저당으네 막 굴앙, 청 앓정, 이렇게도 먹고 하는데 (하늘레기마쌈?) 하늘레기, 짓도 하늘레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하늘레기 열매도 이제 열른 이제 여기 저 하늘레기 저 감기약에 쓴다고 해서 다 쓰는데, 저 한약재로 한약재로 그 열매를 써. 하늘레기라고 그 저 빨리는 파다가 이제 그 옛날은 궁헌때는 이걸 이제 또 ㄴ는 거라. 다 굴아서 거 청 앓져서 이 저 감저, 전분공장 감제 청 앓지듯이 청 앓정 그걸 행으네 이제 또 이제 이 저 물 께아서 말이야, 이 걸 즈배기, 즈배기 알지? (예) 즈배기, 즈배기 따다냥으네, 이제 걸 딸려서 익혀서 먹는 거. 그런 빛이 있어서. 헌디 짓도 오랜 시일이 잇주게. 하, 이젠 그런거는 뭐 좀 지금 헐라고 해도 없어. 지금 허기야 뭐 하늘레기야 잇지. 가른 잇지마는. (하늘레기렌 허는 거 아직도 허멘 마쌈?) 하늘레기, 아니 허른 그걸 행으네 먹영 살아져게? 못 살아. (아니 그니까 나긴 나 마쌈?) 그렇지. 하늘레기야 잇지게. 하늘레기논이 하늘레기는 밧데 경작허는 것이 아니고 이 잣백 우жат 농경지 그저 사이에 이 잣백들이 있어. 거기에서 수년 큰거라 이거. 일부러 키우는 것이 아니지. 그걸 파는 거지 그걸 파와.

2. 농기구

(1) 잠대 - 쟁기(그림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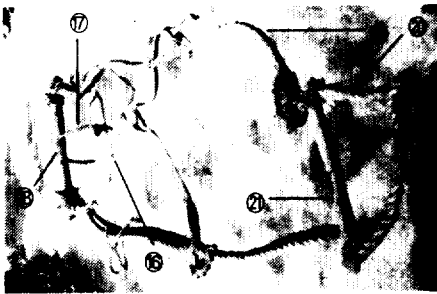


(그림 1)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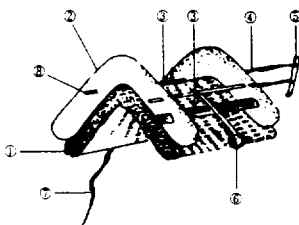
- ① 보섭 ② 무릎 ③ 양지머리 ④ 벧 ⑤ 돌뱅이뿔/돌베뿔 ⑥ 상에
⑦ 새악 : 설치 구멍에 새악 막는 걸 보고 새악이런 허주게. ⑧ 설치
⑨ 뚝 ⑩ 벧톨레 ⑪ 벧바드래기 / 벧풍쟁이 ⑫ 벧칼 ⑬ 벧
⑭ 벧고리/벧친 ⑮ 벧코



(그림 3)

- ⑬ 줍게친/젓개끈/젓개친
⑭ 줍게/젓개/젓개
⑮ 멍에
⑯ 숨비줄 : 소 멍에 연결시키는 거.
⑰ 벌레 ⑱ 오리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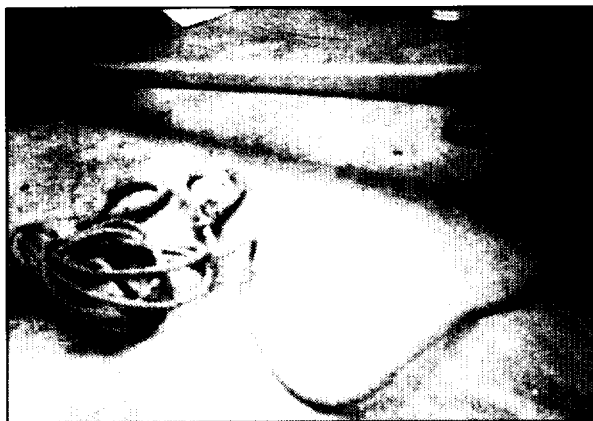
(2) 질매(그림 4)



<그림 4>

- ① 도금 : 보리때로 해가지고 도금을 만들어 놓고.
② 질매가지
③ 드물레 : 드물랑 들어간덴 행 드물레 ④ 고들개
⑤ 고들개
⑥ 오랑/오랑코 : 질매 영 털어지지 안으개끔 묶어주는 거.
⑦ 오랑친 ⑧ 도금땀뿔

(3) 가르석(그림 5)



<그림 5>

이건 가르석. 췌 앞에
빨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할거
아냐. 췌 심어 가지고 저
췌 머리에다 이렇게 허
고, 이렇게 허는 거. (직
접 기구를 들어 올려서
뭍는 시늉을 하면서) 이
렇게 양쪽 빨에다가 췌
를 담아가지고 췌 안장
으로 착 부쳐부는 거.

(4) 맥

맥 알아지느냐? 옛날에 곡식 장만해 오면은 걷어오면은 보관할 데가 없었거든. 그
러니 거 보관하는거야. 맥이라고 거 밭에서 거 장만하면은 맥에 담아서 지어도 오고
집에 오면은 것에 보관도 허고. (밭에서도 걸 지영 와 마썸? 모양은 어떻 생전마심?)
벧집으로 해 가지고 똥그렁 행 잘지게. 가방보단 큰 맥도 있고 작은 맥도 있지. 작은
맥은 밭에 강 지영 오고(이걸 영 짚어정 오는 거봐?) 질메정 오는 건 작게 맨들고,
저 집이 놔두는 건 크게 만들고.

① 창맥 : 집에 보관하는 큰 맥

(5) 좀팍/대왓새기

(6) 도께 - 도께

① 도께까달 : 도께까달은 나무 두 가달 영.

② 도께어시 : 도께어시는 사람 뒤에서 영 때리는 것이 도께어시고.

(7) 얼맹이

(8) 대체

(9) ㄴ는 체

(10) 멍텅이

II. 어 업

1. 어류

(1) 돔 - 도미

- ① 자돔/자리돔
- ② 돌돔
- ③ 가문돔/감은돔
- ④ 뿔이/흑돔 : 이 대가리 이렇게 튀어난 뿔이.
- ⑤ 갯돔
- ⑥ 생선/솔나리 - 옥돔

(2) 조기

- ① 백조기

(3) 복쟁이 - 복어

복쟁이 크기는 약 한 이십센찌 가량 되는데, 통통한 게, 예 몸체가 통통하고 이 이가 소라도 잡아먹을 수 잇겟ㄱ름 이 이빨이 아주 그냥 강해. 요게 어 오동통통해. 한 이십센찌 정도 되는데 오동통통허게 영해. 그 밑에는 밑에 배는 하얗고 우에는 검어.

(4) 갈치

(5) 각제기 - 전갱이

- ① 조각제기

각제기는 큰 거고, 조각제기는 자잘한거 이렇게(왼쪽 손바닥을 오른 쪽 손으로 반쯤 잡아 보이면서).

(6) 고당어 - 고등어

- ① 고도리

고등어는 하여간 두고라. 뭐 두가지라. 뭐. 잔거는 뭐 작은거는 고도리라고 그리고 큰 거는 고등어라고 그리고 웅.

(7) 멸/ 메르치 - 멸치

(8) 우럭

(9) 불락

- ① 불불락

白鹿語文 第17輯(2001. 2)

그 볼볼락이엔 현 것이 눈이 크고 이렇게(손으로 모양을 길게 그리며) 생긴 놈이 있어. 크게.

② 느르시볼락 : 노란 건 느르시볼락. 까만 건 그냥 볼락이고.

(10) 솔치

솔친 고기가추룩 생겨 막 뿔 가시가 파작하이, 옛날에는 막 있어나신디 지금은 어서. 옛날에는 막 헤질하다가 발 쏘아그냥 고생도 했지. 죽는 사람도 있었고.

(11) 미역치

미역치는 요자 진 거 있어. 막 날개 두 개에 침 있고, 요직에 침 있고. 침 세 개로 놔줘사. (등에 침이 세개 이서마심?) 웁. 등에 하나 있고 날개에 양쪽에 하나씩 거 쏘면 죽어 죽어.

(12) 따치 : 웁. 따치도 거 까시 등쌀 상당히 무섭지.

(13) 어랭이

(14) 맥진다리

(15) 고생이

(16) 모살치

모살친 어 저 막 어림아이들 영 게 그 낚시대에 영 나끄는 거이. 너 개맞디 개맞디 거 개맞디 물쌍 모래 팟 나오민 물 조금 신디 강 던지른 그게 영 혼 십센짜 가랑 현거, 혼뽀 혼 조리 만이 현거. 거 하얀한 색깔 띠고 무는거 잊주기. 그것ㄴ라 모살치엔 ㄴ라.

(17) 망치

아 망치? 건 망치도 손바닥만이 해. 크지도 안해. 그거는 망치 것이 것도 좀 하얀색을 띠지. 그게 그 그게 다이아몬드형을 생겼어. 망치가 조금 요렇게 어.(손으로 오각형 모양을 보이며)

(18) 놀치 - 날치

(19) 덩불치 : 주락허니 큰 거 잊쎄. 출썩헌거이.

(20) 꿩치

(21) 보들래기

진진현거. 요만이 진거 있어. 새카만거이. 손가락만이 넓이현건디이 이 가상에 돌, 돌 속에 살아.

(22) 한치-오징어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23) 홍어

(24) 가오리

(25) 서대-가재미

(26) 물구렁/뭉게-문어

(27) 북바리

(28) 다금바리

(29) 브람퐁이

거 브람퐁이엔 현 고긴이 우리 주낫허레 가민 혼 사십센 사십센찌 정도 만이 큰건디, 이 몸체도 넙적헝 큰디 주둥아리가 한번 벌리면은 혼 십센치 혼 이십센치 이상 커.

(30) 청퐁체

어 청퐁체 빨간색을 띠고 잇고 머리는 크고 으 몸집은 좀 소롱헌건데, 철집선 ㄱ튼 거야. 그게 어 돌로 므사도 머리가 땡땡헌건디, 혼 것도 사십센찌 정도 커.

(31) 좇부쟁이

(32) 올투미

(33) 곰숙이

무사게 막 파닥탁파닥탁 하멍 줄지어 다니는거 없어게? 바다에.

(34) 껍주리

(35) 물이슬 - 해파리

(36) 물췌기

2. 패류 · 갑각류

(1) 전복

① 설패기/생파 - 전복새끼

(2) 구살 - 소라

(3) 오분지기/오분재기 - 떡조개

(4) 밥주리

그건 발이 존존해여.(존존해마썸, 길어마썸?) 길진 안허고 벌랭이 가추룩

존존헨 발 막 박짝이 난 거. 그것ㄴ라 밥주리.

(5) 강이 - 게

(6) 굶붓

① 할메이굶붓

② 췌굶붓

(췌굶붓은 어떤거파?) 그건 딱딱하고 할메이굶붓은 호끔 물랑물랑하고. (색깔부터가 틀립니까?) 색깔 자체로도 틀려. (어떻틀려 마썸?) 그 저 무신거 췌굶붓은 까망하고 할메이굶붓은 조금 회뜨룩하고 회뜨룩은 아니지만 호끔 췌굶붓보단 까망하지 안했지.

(7) 불가사리

(8) 고냉이 방석

고냉이 방석은 똥글락 하면 발이 길쭉길쭉한 것이 이서.

(9) 보말/베말 - 아기삿갓조개

① 수두리 보말 : 수두리 보말은 쪼작헤영 영 위애가 쪼작하고.

② 먹보말 : 먹보말은 민질민질하고 까망허영 민질민질하고.

③ 코테데기 보말

④ 문다두리 보말

또 그 문다두리 보말은 호끔 영게 똥글락하게 생겨그네 저 껍질잇지 저 소라 이쭈룩 헌것에서 이디영 뚜껑 덮어진거 잇지.

(10) 멍게/멍지

(11) 베치기/베채기 - 거북손

베치기는 바위 끝에 영 솔 팍작하게 영 파작하게 나는 거. (건 뭐 파?) 그건 당뇨병에도 딸리멍 먹곡이 영 부채같이 빠작올라가 거네 저 머 헌거이서. 그건 보면 말허든 더 말 잘해 질건디 너네 알아질건가.

3. 해조류

(1) 몯

① 고제기 몯

② 고정몯 : 발에 거름하는 용

③ 감실몯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④ 노랑뭉

⑤ 춤뭉

(2) 뎀북

(3) 감태

(4) 우미 - 우뭇가사리

(5) 정각

정각은 저 손바닥만이 허영으네, 이 손가락식으로 파랑한데 혼 혼 열대가 손가락만이 허영으네, 막 이렇게 이 다리가 나와. 그게 몸둥이 쪼마나게 헤뭇서 그거 돌에 부딪 가지고 어 거 삼영빳디엔 헛 건데, 그게 파랑한 색깔 띠어가지고 돌에 부딪면서 이렇게 손가락 ㄱ치 막 나와 이렇게 줄거리가 어 것이 정각.

(6) 메역 - 미역

(7) 구드리

그건 도박이엔 헛거이 그건 저 풀허는거, 풀쑤는 거 그거 메어당 말려왕 물에 담귀가지고, 행귀가지고 또 널른 하얗게 바래져.

① 개구드리

② 청구드리

③ 미역구드리

(8) 녀패

(9) 가시리

가시린 이런 돌 봉우지에 까릿까릿하게 쪼끔씩 요만큼씩 길게 나와. 메어당 그것도 헤영 풀써거네 도배하고 창도 벌르고.

4. 해녀 관련 어휘

(1) 반뎀/반둥이

반둥이 줌수질 헛 뎀 물에 들젠 허든 메역 조물든 물나주게. 이제는 빙이로도 바타 정 오고, 하간거 잇주만은 우린 반뎀에 저 구덕에 놔그넝 태왁놓구 허구 영 저오젠 허든 물나난 반뎀. 등어리에 지는 거고랑 새 여까그넝 저 맨드랑 헛 것고랑 반뎀.

(2) 비창

(3) 스살

- (4) 호맹이
- (5) 밀 - 귀마개
- (6) 테왁
- (7) 속곳
- (8) 눈(죽은 눈) - 물안경
- (9) 흙비소리 - 숨비소리

5. 물찌 - 물때

1	2	3	4	5	6	7	8	9	10
일곱물	요덥물	아홉물	열물	열흔물	열두물	열서물	조금	한재기 /계머슴	흔물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요덥물	아홉물	열물	열흔물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열두물	열서물	조금	한재기 /계머슴	흔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

6. 바람

- (1) 샛바람 : 동풍
- (2) 높새바람 : 북동풍
- (3) 하늬바람 : 북풍
- (4) 섯하늬 : 북서풍
- (5) 갈바람 : 서풍
- (6) 마파람 : 서남풍
- (7) 굴레기 : 한라산에서 직행으로 불어오는 남풍
- (8) 삼부세 : 남동풍

Ⅲ. 식생활

1. 일상음식

1) 국, 밥, 반찬

(1) 밥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 ① 보리쌀밥
- ② 좁쌀밥/조팝
- ③ 툇밥
- ④ 곤밥/곤쌀밥

(2) 국

- ① 콩국
- ② 물웨국
- ③ 녹물국

(3) 죽

- ① 콩죽
- ② 깨죽
- ③ 녹두죽
- ④ 전복죽

(4) 깍데기

(5) 생기리

(6) 뽏대귀

(7) 지/지시

- ① 마농지

(8) 게역 - 미숫가루

(9) 즈배기

(10) 지름 - 기름

- ① 유채지름
- ② 동박지름
- ③ 갯녹물지름
- ④ 피만지름

(11) 짐치

(12) 감저주시/데웅세기

그 주시를 가정 주시 감저 전분은 빼앗고 감저 주시 말이야. 주시를 물해서 걸른걸 거 썩은거 영 문대기 썩은 거. 이거 영으네 이제 전부 그냥 바가쓰 뭐 찰리, 무슨 것에 이렇게 담아다가 물구르마 같은 것에 시경와서 말이야. 이런 야외에 출락, 출밭데 그르에 갓다 전부 담우에 꺾든 데 전부 주먹으로 팽 넣어. 전부 물리워. 걸 건조시켜서 말이야.

걸 또 그래에 굴아. 굴아서 이제 그를 멩글아. 그를 멩글아서 걸 이제 이제 찌어 먹는거라. 걸 이제 밥대신 이제 먹는거.

(13) 장

※ 장 담그는 법

(장 장 담그는 거 흥끔 고라줍써 어떻 담갔는지) 장 게 메주 콩 삶아서 (무슨 콩으로?) 그냥 아무 콩으로게 (아무 콩도 되어?) 흰 콩만 검은 콩만 말앙 흰 콩만 삶앙 이제 그 놈을 막 점 무시것에 잇날엔 방에 방에 싹때에 방에강 굴아당 햇주만은 이젠 저 (할머니 집에 뭐 굴으는 거 엇우광? 뻗앙) 경 뻗앙도 엇지는 못혼다. 무시거 찰에 돥아서 위의 푸대나 노앙 조랍작 폭 초신 잇날에 초신 신영 영 영 불라나서 보선이 나 신고 (자락자락 발라) 초신 신영 그디 포대 위의 영 그랫방석 영 끝앙 또 이제 콩 삶은 거 영 놔서 이 그걸 영 불라. 초신 신고 경해나거 (게 불랑 그 다음?) 그 흥믈게 그거 영 찌어서 이제 돌아메. 아니 잇날엔 그런 항에 담앙 영 영 놔서 티왓주만은 이젠 돌아멩 영 티우지 았으나? 잇날엔 잇날엔 영 영 메주 영 밥그치 떡그치 멘들앙 영.

(14) 메주

(15) 쉼다리 : 밥 쉬믈 이제 영 게 누룩 누룩 노믈 쉼다리 된다게.

(16) 묵

① 청묵

(17) 젓

① 멜젓

② 자리젓

③ 구쟁기젓

④ 각제기젓

(18) 범벅

① 보리범벅

② 쏙범벅

③ 감저범벅

2. 제사 · 명절음식

1) 떡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1) 쉰편 - 송편

(2) 솔기떡

(3) 지지미떡

(4) 솔벤

(5) 질벤

(6) 인절미

(7) 침떡

(8) 세미떡/손가락떡/병거떡

영 세미 줍앙 영 병거 ㄱ치 멘든 떡이 있어. (요만이 혼 거 마썸?) 영 패랭이 ㄱ치 혼거 저런 패랭이 ㄱ치 영 혼거 손가락 ㄱ치 영 요맨히 혼영 똑똑똑 똑 시밧디 누르뜨는 떡.

(9) 고달떡

고달떡 영 줍는거 손가락 영영 바위 줍는 거. (세미떡 영 줍는거랜 안 헛우 광?) 그건 영 소랑흔 거고 그건 동그란흔 거라. 저 기름떡이엔 혼거. 기름떡이 기름떡이 그거 잇날엔 고장떡이렌 헤낫져. 잇날엔 잇날엔 고장떡이렌 헤나서.

(10) 곤떡

(11) 상웨떡

(12) 빙떡

※ 쉬

쉬 놓는 건 꽃이나 아무 저 보리콩이나 혼여서 쉬놓는거랜 혼다게. 맛있게 먹을라고 혼든.

2) 적갈 - 고기적

3) 전

(1) 호박전

4) 메-젯상에 올리는 밥

5) 갯-젯상에 올리는 국

6) 제사 관련 어휘

(1) 고살챱시/모살챱시

모살챱시라고 모살챱시라고 그 조상 앞이 제사때, 경 고사리 혼나 놓고 챱시에 모살챱시라고 그렇게 노메.

(2) 문전상

(3) 조왕

(4) 상돌 - 향 피워 놓는 곳

7) 걸메

8) 켜시

(제 지내나쁜 그 음식 호끔씩 떠그네 어디 영 놓지 않습니까?) 웅. 걸메 (걸메) 걸메. (켜시 한테 말. 이런말 들어나신디.) 켜시는 올린 것 굴아 켜시렌 허고 영 영. 떠놓으냉에. 영 벌이는 것 굴아 걸메 (걸메) (켜시는 그냥...) 켜시는 그냥 상드레 올린 것 굴아 켜시렌 한다고. 궤여서 이렇게 영 모영 켜단 건 이렇게 그릇에 놔서 올린다 하는 말이 켜시라고 해여.

9) 관세물

(우리집에서 뭐 허는거 보니까 이렇게 물. 흰수건 같은...) 게메. 그추록 영 그건 제 보젠 허면 그렇게 저 손 씻고 들어가. (관세물인가. 뭐 이추록 영) 웅. 관세물게. 관세물이라고 허는 것은 세수행 들어가는 것이 관세물게 갱. 세수행 들어강 관세물 행 씻어강으냉에 (손만 영 씻어가는게 아니파예?) 웅. 강 게 제보곡 해여.

3. 부엌용구

(1) 쟁반

(2) 망데기 : 작은 항아리

(3) 단지

(4) 항아리

(5) 허벅

① 대백이

허벅이엔도 호고 대백이. 대백이는 니네 나이에 해끔몬한 사람들 대백이. 요만이 혼거 지어났어. 대백이.

(6) 물구덕

(7) 살래 - 식기를 넣는 장

(8) 장통/젯통 - 수저를 넣는 통

(9) 저분 - 젓가락

(10) 차룻

(11) 우금 - 주걱 : 밥 거리는 주걱. 우금

(12) 남박국자

(13) 남박세기

(14) 도고리

- (15) 종지
- (16) 보시
- (17) 돔배 - 도마
- (18) 낭퐁이
- (19) 밥사발

IV. 의생활

1. 평상복

- (1) 민영 : 배 짜는 민영이렌 허주게. 민영.
- (2) 갈옷
- (3) 적삼-윗도리
 - ① 민영적삼
 - ② 갈적삼
 - ③ 마페적삼/배적삼
 - ④ 광페적삼/광목적삼
 - ⑤ 모시적삼
- (4) 갈중이-아랫도리
- (5) 치매
 - ① 베치매
 - ② 광목치매
- (6) 솟곳/소중기
밋친(멜빵) 달고, 머적단추(마작단추) 달고, 젓쟁이에 하나, 허벅다리에 둘.
연결되게 하나로 멘들앙. 입어놔주.
- (7) 보선 - 버선
- (8) 광목바지
- (9) 멍지바지
- (10) 멍지치매
- (11) 짓 - 깃
- (12) 도련
- (13) 우머니
- (14) 동정
- (15) 느람쥐
(비올 때는 뭐 써 마썸?) 비올 땐 느람쥐 닮은 거 영 둘러그넝 썩 다

너서. 느랍쥐. 새로 밧디강 새 비여당 느랍쥐 반둥 같이 짜그넝 비올 땐
영 씨웁 땡겨서.

(16) 우장

2. 상복

(1) 심의 - 상복

게난 거 베로 심의 멘들앙 입주. (심의 멘들앙 마심?) 심의. 거/ 그런데 옛
날엔 심의 엇이민 남의 심의 빌어당 입어서. (심의가 우 아래 다 ㄱ랑 심의렌
헛우과?) 우알 아래 부튼 것ㄱ라 심의.

(2) 직량

요디 등땡이에. 남자 상제는 요디 등땡이에 흐끔 무신거 부친다게. 흐끔 부
친 것 ㄱ랑 직량.

(3) 행경

(4) 두건/건대

남자상제, 아들상제는 두건을 영 요렇게 나오게 줍고, 또 이 저 사우상제는
잡은 거 꺾어가지고. (위엿거를 속으로 들여놔마심?) 어. 두건. 두건. (두건이
이 끈을 하는 거 마심?) 아니. 끈 안혀. 끈 허는 건 여자 상제 사우들은 이레
주워 난 다음에 꼬불여부러. 웁. 안으로 줍고.

(5) 흰적삼

경 치메도 이 감추지 안헤기넝. 남전 죽으믄 기낭 풀고, 여잔 죽으믄 이추룩
다 강천.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까와기넝 감춘덴. 압디래 동긴덴 행그넝 강천.
남자는 기낭 풀어기넝 영 영 저영 내빌고. 허울허울.

(6) 베치메

(7) 방장대 : 상제가 짚는 막대

① 머구낭

② 대

(영 짚영 곡하는 거 잊지 안헤마심?) 웁. 방장대. 영 사람 짚어기넝
아이구 아이구 허는 거. (방장대마썸?) / 아따. 야이 생각 잘헬찌이. 여
자 죽으믄는 대막댕이허고. 남제가 대막댕이가? / 예 / 남제는 대막댕이
고 여자는 머구낭. 머구낭잊어. 어머니는 장차 생각하고. 아버지는 드망
드망 생각헌덴. / 어머니는 항상 잊어볼지 안혀지이. 니네도 어멍이 더
생각허지. 아바지보단 아무레도 아바지를 덜 생각헬. 게난 왕대 모작헬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드망드망 생각헌텐.

(8) 혼백상 : 잿상

(9) 머리창

3. 예복

1) 여자

(1) 장옷

(2) 족두리

(3) 이망걸이

시집갈 땐 이망걸이, 영 머리띠 고치 줄라메는 것 고랑 옛날엔 이망걸이렐
헛주게. 이제 머리띠 느네들 머리띠 허지이. 경허는 것고랑 머리 얹어놓 큰 방
에 머리헤기넨 이디 머리창 머리 막 하영 막 많이 들영 허여주는 사람 이서.
이녁양으로 못헤영. (왕비들 그런 거랑 같은 거 마썸? 가짜머리지예) 영. 줄마
메는 거. 가짜머리. 진짜머런디 사다그넹 집에 놔둬서 돌아가명 새각시 머리
힐 때엔 이 집도 헤주고, 저 집도 헤 주고. 야이 시집갈 땐 아이네 집에 가져
가고 느네 시집갈 땐 느네 집에 가져가고, 경행 헤났저. 게.

2) 남자

(1) 두루메/두루막 - 두루마기

(2) 꿰지/꽂지 - 꿰자

꿰지 저 무당들 입는 거 우이 저 빨간 거 잇어지이. (아, 띠 종류 비슷허게)
어. 빨간 거 저 빨간 거 어 저 퍼렁거 썩어그넹 맨들앙, 꿰지. 위엿거게.

(3) 사모관대

4. 신발

(1) 초신 - 짚신

(2) 창신 - 시집갈 때 신부가 신는 신

① 까막창신/가막창신

코신 ㄴ치, 고무신처럼 생긴거라도 흙뽕 푼나. 모냥이. 흙뽕 모냥이.
(그림같은 건 안그려전 마썸?) 그림 무사 안그려져. (꽃그림?) 어 맞아.
껌은 것에 꽃그림. 그 것 고라 창신 / 이 신 창 아래는 징 박으니까 걸
젠하른 달각 달각 달각 달각 소리나. / 건 빌어당 신엇주게. 아무나 신

은 싣고. (사신진 못하고예?) 게. 멧 사람 어서. 빌어당 다.

(3) 남신 - 나막신

5. 모자

(1) 밀랑페랭이

(평상시에 햇빛 받으면 무슨 모자 써 마썸?) 밀랑페랭이. 쓰주게. (밀로 만든 거팡?) 거 이제 페랭이 싣지. 우리들 싣왕 땡기는 페랭이 어시냐 그것꺾랑 밀랑페랭이렌 헤여. (건 앞이 커 마썸?) 아니게. 그냥 동글랑형 페랭이 동그락하고 게 이마니 너븐 거 어시냐.

(2) 휘양

(모자 같은 건디 영 귀 내려왕 하는 거) 그건 옛날 휘양. 남자 쓰는 건 휘양. 휘양이렌 허주게.

(3) 낫가오리

옛날엔 모자쓰는 거팡. 낫가오리. 낫가오리썸 동그락한 모자 영행 동그락한 거 쓴 거 낫가오리.

6. 창통이/상통이 - 상투

창통이. 할아버지들 인형머리 영영 해 와그넝 빙빙허게 둘러그넝 가운데 뽕 해 왕 꼭 찢른 거. (요새말로 상투렌 하는 거) 어어 상통이 거 문화재에 다 나오주 건 머리 싣 올렁 인형머리 앞뒤우로 막 올렁 잘 비서그넝 딱 죄영 노슬로 뽕뽕뽕 감아그넝 이디 가운데 하나 꼭 찢러.

7. 재봉용구

(1) 바눔 - 바늘

① 바눔뀌

(2) 꺾세 - 가위

(3) 골메 - 골무

(4) 줄레/절레 - 바늘 끼우는 거

(5) 다루웨 - 다리미

(6) 윤디 - 인두 : 또 옷허영 짓돌 때 영 허는 것 꺾랑.

(7) 바눔쌘지 - 바늘쌘지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8) 줍는 거 - 바느질법

① 감치는 거

② 훑는 거

8. 서답 - 빨래

(1) 물막개

(2) 물팡

옛날에는 막 물 팡팡허는디 막 팡을 놔. 누런히 팡을 놔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팡 하나씩 차지허는디. 거기서 팔째가 굿영 복이 었인 사람은 그 팡 차지도 못허여. / 옛날 역서로 이 팔째 굿은 사람은 산것물에 가도 궁근 팡에 안넌. (궁근 팡 마썸?) 궁근 팡. 궁글궁글허는 팡이나 차지헤진덴.

(3) 다듬이질

(4) 안반 : 다닥 다닥 두드리는 건 안반. 다듬이판을 안반.

(5) 홍깃대

홍깃대. 이만이 진 거. (팔만이?) 어. 이만이 질어. 진 거 헤가지고 이제 두 끼는 요만이 허지. 홍깃대. 것에 말아가지고 (그게 영 다듬이질할 때 영 치는 거?) 어. 다듬이질허여 막 두드렁 두드리면 영 꽤작허게 꽤와정 다린 거나 다 림었어.

9. 기타

(1) 먼경/민경 - 거울

(2) 비침

얼레기 놓는 것고라 비침이엔 담아가넌 그거 가정 (시집) 가 낫주.

(3) 얼레기 - 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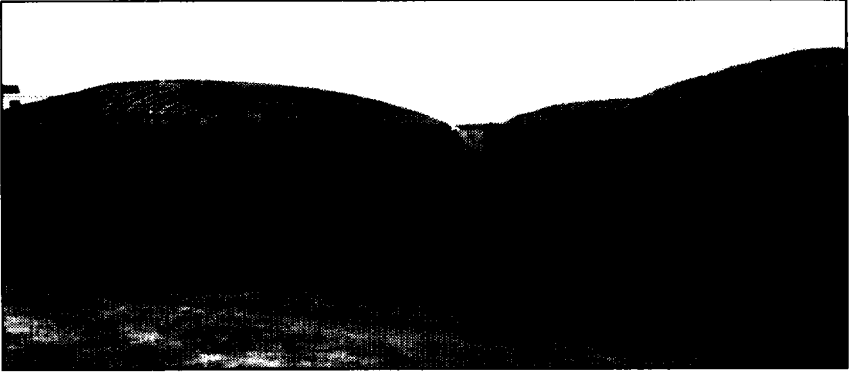
(4) 빈네 - 비녀

(5) 도매

도매. 머리뽕. 뽕 ㄱ랑 도매 영행 거두침 이디 꼭 질러그넹 경행 땡겨낫주게.

V. 주생활

1. 삼간집(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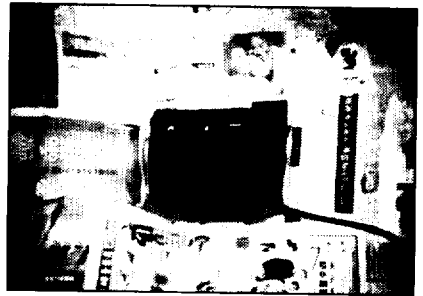


(그림 6)

(1) 정지



(그림 7)



(그림 8)

- ① 굴목(그림 7) ② 창곱 - 창구멍 (그림 8) ③ 솥덕 ④ 솥강알
⑤ 부지땡이 ⑥ 불곽/화곽 ⑦ 그스럭/그슬멍/그시렁 ⑧ 내 - 연기
⑨ 거적문 ⑩ 정지문

(2) 챗방 - 마루방과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

- ① 챗문/챗방문

(3) 상방/삼방 - 마루방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① 지계문

② 입돌

③ 난간

④ 대문계/대문고리

⑤ 구들

⑥ 서리 - 서까래

⑦ 지동 - 기둥

⑧ 대들포

⑨ 돌칠귀

옛날은 문고리. 지금은 이제 그 저 무시거 하는데 옛날은 이레 돌칠귀 이레 박아그네 영 찼러가지고 문을 던엇당 열엇당 해 낫다고. 게난 돌칠귀

⑩ 풍채 - 차양

(4) 고팡

(5) 골방

(6) 안거래

(7) 박거래

(8) 목거래

(9) 쇠막

① 막사리

② 서슬/서슬대

(10) 올레 : 집으로 돌아가는 길

(11) 통시

① 드들팍

② 독 도고리

(12) 물팡

물팡이엔 혼 건 영 돌 영 낡 영 양편이 돌 낡 이 그디 너분 돌 낡 이 디 영 물구덕 갓당 영 놓지게.

(13) 우영팻

(14) 울담

(15) 놀곶

놀곶, 놀곶. 거 무신 보리나 무시거 해당으네. 이렇게, 이렇게 둥그랗게 놀잖아. 놀젠하면 이런 돌 놔서 놀어야 아래 썩어불지 않으게 하기

위해서 늘굽.

2. 불

(1) 솔락

솔락은 뭐냐면은 소낭에서 나온 진 부튼거. 나무헤다가 영 불 살라가지고 그
것에서 이제 이렇게 불 살라가지고, 또 밥도 지어먹고 영 불도 삼고 이렇게 영
잠도 자게 만들야.

(2) 각지불

(3) 등피불

VI. 가 축

1) 물

(1) 종류

① 청충이

② 먹충이

먹충이는 검은말에다가 순백이까지 잇인 것이 먹충이고, 청충이는 흰
것에 검은 점 조금 섞어진 거.

③ 적대물 - 붉은 말

④ 백매 - 흰말

⑤ 월래물

월래물은이 지도ㄴ짜 헨 지도ㄴ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되고 이 헨 것은 이렇게 되고 또 이디 가면은 검은거 되고 이디
가면은 또 헨거 되고 저디가든 헨거 월래말. 지도 모양으로 기려진 거
지. 물이 이러면은 어디는 짙은거 잇고, 어디는 전 해연거 잇고 어디는
뭇 붉어.

⑥ 코간쟁이

코간쟁이. 물이 이렇게 헤영허게끔 이렇게 나온가 잇어. 물이 이 앞으
로 민으로 이렇게헤가지고 이기까지 이렇게 저 헨 걸로 이렇게 내려온
물이 코간쟁이라고 헤여.

⑦ 태산백이 : 이마에 헤영게 이저 점.

濟州市 外部洞 學術調查報告

⑧ 소태산백이/스죽백이

소태산은 관상을 헤보는데 물이 팻다고, 폐라서 스죽배기가 있고. 스죽배기. 발이 흰거.

⑨ 광간전이/관간전이

⑩ 유마물 : 유마물은 노리령헌 것이 유마물이고.

⑪ 가래물 - 검은말

⑫ 족발말, 섯발, 종지발

뭐 옛날에 뭐 물이 있는데 족발말이 있어 족발말. 말이 뒤축이가 이렇게 돈 물을, 물 거 무슨물이라고 했더라? / 아 저 섯발도 있고, 섯발은 일허게 디더주고, 종지발이 있고. (섯발은 영 평평하게 행 잇는거 마썸?) 응, 섯발, 섯발 (종지발은 뭐파?) 종지발. 종지발은 동골락 헤가지고 이렇게 영 / 겐디 여기 저 술잔, 술종지 잇잖아. 그렇게 그렇게 생긴 것이 종지발. 말 발을 말허는 거여.

(2) 나이 세는 법

① 금승 : 갓 태어난 말

② 금승, 이수매, 삼수매, 스수매, 오수매, 오수매 넘으론 육수, 칠수, 팔수.

※ 말은 나이를 짐작할 때 이빨로 하고, 소는 뿔로 한다.

2) 췌 - 소

※ 나이 세는 법

① 금승/금승

② 다간 : 두 살

③ 사립, 나립/나름, 다습...

3) 독-닭

① 병애기-병아리

② 장턱-숫닭

③ 암턱/ 암덕

④ 독고달-닭 벼슬

4) 도새기-돼지

5) 개

① 강생이

VII. 기 타

1. 인체

- (1) 데멩이 - 머리
 - (2) 야게기 - 목
 - (3) 가심 - 가슴
 - (4) 독지 - 어깨
 - (5) 젓꺽이/저드랭이 - 겨드랑이
 - (6) 등멩이/등짱 - 등
 - (7) 풀굽이
 - (8) 풀회목 - 손목
 - (9) 허벅다리 - 허벅지
 - (10) 동머리 - 무릎
 - (11) 구마리 - 종아리
 - (12) 발회목 - 발목
 - (13) 궁둥이/엉치 - 엉덩이
 - (14) 머리터럭/머리끄룩 - 머리카락
 - (15) 이멩이 - 이마
 - (16) 콧등머리
 - (17) 입바위/입바우 - 입술
 - (18) 턱아리
 - (19) 빼암 - 볼
 - (20) 니빨 - 이
 - (21) 막어금니 - 사랑니
 - (22) 걸니 - 송곳니
 - (23) 앞니
 - (24) 양지 - 얼굴
양지 빨경허영 홀어멍되켜.
 - (25) 콧자락 - 콧볼
옛날부터 귀 존 동냥바치는 없고 코 존 동냥바치는 잇덴허여.
- ※ 계십 - 다래끼

2. 나무

- (1) 죽대낭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2) 방풍낭/숙대낭 - 삼나무

(3) 팽대낭

(4) 폭낭 - 팽나무

(5) 먹구실낭/고른근

거 열매 까 먹는것 잊잖아. 빨간건 가을이면 노랑허게 익는거. 건 먹구실나
무고.

(6) 머구낭

또 머구낭은 이 저 가시 돋은 거.

(7) 누룩낭 - 후박나무

흐끔 볶으시롱 한다. (볶으시롱 헤 마심?) 웁. 이파리. 까릿까릿하고. 너팔너
팔허고이. 영 허멀 낭이네 치료 못하든 그런 거 허여서. 그런 거 허영 심지 영
떨러가든. 그것이 좋아져부러.

(8) 소낭 - 소나무

3. 미감

(1) 둘다

(2) 쿠싱허다

참지름은 아이구 이거 쿠싱허다 경

(3) 베지근허다

먹을 거 무시거 생선이나 돔, 저 우럭이나 지지든 베지근허다

(4) 시다

굴은 시덴, 굴은 시다. 아이구 시영 못 먹으켜.

(5) 맵다

아이구 매왕 굿다. 아이구 맵다.

(6) 짜다

아이구 짜다 게 짜다 경 곧주 게

(7) 싱겁다

이건 싱거워넝 장물 더 뇌사 켜

4. 촉감

(1) 실렵다

아이구 실렵다. 아이구 손 실러왕 못 살켜.

(2) 떠블라

아이구 떠블라. 어떠블라.

(3) 똥똥허다

아이구 똥똥헛저. 옛날 굴묵 돌똥 주서당 굴묵 때영 헌 말은 신식말이지? 굴묵 지덩 굴묵영 지더그넹 영 손 대어보른 아이구 똥똥헛 좋다. 아이구 놀앙 앓으라. 느네들.

(4) 멘도롱허다

멘두롱헌 말 멘두롱헌 말은 호끔 덜 식엇쥬 말. 호끔 덜 똥똥헌 말 보다는 호끔 얇은 말이주게. 요긴 멘두롱헛저 헌 말은.

5. 계절

봄-여름-ᄇ슬/가슬-저실/저슬

민요

目次

- | | |
|--------------|---------------|
| 1. 발 밟는 노래 | 10. 모자 노래 |
| 2. 발 매는 노래 | 11. 물레 노래 |
| 3. 타작 노래 | 12. 행상 노래 |
| 4. 방아 노래 | 13. 달구 노래 |
| 5. 맷돌 노래 | 14. 진토긔 파는 노래 |
| 6. 해녀 노래 | 15. 창민요 |
| 7. 멀치 후리는 노래 | 16. 자장가 |
| 8. 나무 베는 노래 | 17. 동요 |
| 9. 양태 노래 | |

1. 발 밟는 노래(밭 불리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문사남 할머니(94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어러 어러러러러러

돌랑 돌랑 이물덜 혼저¹⁾ 걸어라

어러 허랑 하랑 어러러러러러

조롭²⁾에서덜 혼저물라

1) 어서 빨리.

2) 꿈무늬, 뒤.

이 몰신더레 돌랑돌랑 혼저몰라
어러러러 하랑 하랑
소리덜도 받지 아니하고 이사름들 무시거허염시니
어럴럴
구석디레가전 속속 재개들³⁾ 몰라
얼럴럴럴 하랑 하랑
이 사름들아 노픈 동산 불라가멍 즈근즈근⁴⁾ 잘 불르라
어러러럴럴럴럴럴럴
뒤에서덜 허멍 물중쌍 물도 몬 소리도 받아주지 안하고 뵈들사 허염신디
어럴럴럴럴
저 몽생이 이레 막으라 이레 막으라
어러러럴럴 어 허랑 하랑
혼저 즈근즈근 불라동 점심먹곡 험게 아니가
노픈디덜 불르라 즈근즈근 몬짜헝개⁵⁾ 불르라

②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춘자 할머니(68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산중마다 놀아오던 이 막시⁶⁾들아
글로덜 즈근즈근 불려도라
어러러 어랑 하랑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라
얼씨구 절씨구 좋다
어러러러러 어 허 허랑 하랑

3) 빨리들.

4) 자근자근, 자세하고도 차례가 있게 일하는 모양.

5) 몬짜헝다, 몬작헝다, 물건이 약하고 연하여 만질만질하다.

6) 마소, 말과 소.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요 산중에 놀아 오던 이 므시덜아
즈근즈근 혼군데로 불러도라
허러렁 허랑 하랑 허랑 하랑 돌돌 허러러
삼일간만 이 므시아 걸엄시라
먹고 놀고 시원흔 산중으로 불라가리라
허러러 허어랑 하랑 어러러러러 돌돌
천왕테우리⁷⁾ 지왕테우리 흰왕테우리 삼테우리 물려당 불러놓곤
남긔 나건 구리대⁸⁾여 앞이 나건 느룡 지어
고고리⁹⁾랑 당막되어 구슬여름 췌여름¹⁰⁾ 마리티클 부러지게
올래 떡이 문어나게 채겨줍써
어러러러 어 돌돌 허랑 하랑 돌돌
노픈디¹¹⁾ 속속 들어서며¹²⁾ 불러보라 어러러 돌돌
산이 막혀 못 가고 물이 막혀 못 가고 가시나 불러보자
허러러 허랑 하랑
저 산 뒤에는 본구름이 막아지 이 시절이 닥쳤구나
허러러 허 돌돌 허러러 허랑 하랑
저 산 앞이는 흰 안개가 지어득캉캉하여 간다
허러러 허랑 허기야 디야 산이로구나

③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홍시춘 할머니(80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어러러러러러러러 허 하랑

요 뭇아지¹³⁾ 저 뭇아지 요 산중에 놀던 뭇아지

7) 주로 말과 소를 등에 놓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 또는 목동.

8) 구리처럼 단단한 줄기.

9) 이삭.

10) 쇠처럼 딱딱한 열매.

11) 높은 데.

12) 들어서며.

13) 망아지.

어러러러러 하랑

요 밧 불령 조롱¹⁴⁾ 나건 어령

요 낭이랑 나건 그리 이레 섭¹⁵⁾이랑 어령

저 막 여름¹⁶⁾이랑 나건 구슬여름 췌여름 되게 불러주라

어러러러러 하랑

④ 조사일자 : 2000년 7월 29일

제 보 자 : 박춘하 할머니(80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어러러러러러 앙 어령 하랑

요 믰시들아 노픈디들만 몰랑몰랑 볼르멍 혼저

어러러러 러러러러러

돌랑돌랑 뽕으라 이 밧 불리동 재게 불리 불령

어러러러러 러러러러

다른 밧도 강 불령 올꺼메

노픈 동산 줄랑줄랑 볼리멍

어러러러러 어러러러러 앙 어령 하라

2. 밧 매는 노래(검질 매는 소리·사데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9일

제 보 자 : 박춘하 할머니(80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어 어기야 사데

14) 조롱나무.

15) 잎(葉).

16) 열매(實).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査報告

어 어 어기야차 흥애기로다 어기야차
앞명에¹⁷⁾랑 슬슬 들어오꼭
뒷명에¹⁸⁾랑 물러나라
어기야차 사데로다

② 조사일자 : 2000년 7월 29일

제 보 자 : 문사남 할머니(94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어기여랑 사데로구나
에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자
허울허울 매염직시리 검질¹⁹⁾덜 잘맨다
어기여랑 사데로다
거끌거끌 묵은 거끌 거끌하고
ㄱ시락²⁰⁾을 먹었는가 꺼끌꺼끌 나오네
에기여랑 사데여
앞명에랑 쪽쪽 들어오라
어기여랑 사데 놀아간다²¹⁾ 놀아간다
구데기를 먹었는가 ㄱ시락을 먹었는가
꺼끌꺼끌 나온다 에 잘헌다 잘헌다

③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애숙 할머니(6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17) 눈 앞에 보이는 발머리.

18) 발 매는 이의 자세로 보아 등뒤에 놓인 발머리.

19) 기음, 발에 난 잠풀 또는 잣과 같은 것.

20) ㄱ시락, 까끄라기.

21) 놀아간다.

이어 이어랑 이어동 허 사데
앞명에야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우리 어멍아 날 무사²²⁾ 나서
이어 이어랑 사데로구나
정심 전이²³⁾ 앞명예를 넘기자
이어 이어 사데로구나
저 산에 해는 다 지어간다
이어 이어랑 사데로다

④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춘자 할머니(80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아침사데²⁴⁾ 늦어도 좋다
밤낫 사데판에 반송
즌낙사데²⁵⁾는 좇아도²⁶⁾ 좋다
세경 너븐 드르²⁷⁾ 편잘기영
사데 사데 사데로구나
정의오름 강당장칩²⁸⁾에 식콜방애²⁹⁾ 새글럼더라³⁰⁾
이어동호라 이어 이어 이어동호라

⑤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22) 왜.

23) 점심 전에.

24) 아침에 부르는 발 매는 노래.

25) 저녁에 부르는 발 매는 노래.

26) 좇아도.

27) 사방으로 탁 트인 평퍼짐한 들판.

28) 康堂長 집에.

29) 제주도 특유의 남방예를 세 사람이 짙을 경우.

30) 두 사람 이상이 '남방예'를 짙을 경우, 그 사이가 어긋나서 어울리지 못하고 있더라.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제 보 자 : 임숙규 할머니(7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바닷가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영 허야 사데로다
앞명에를 메어야 집을 가지
영 허야 사데로다
어기 여롱 사대로다

3. 타작 노래(마당질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9일

제 보 자 : 문사남 할머니(94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에야 흥 에야도 흥
이눔의 보리야 물큰물창 그차지라³¹⁾
저것추룩³²⁾ 잘 그치라 에야 흥
나 앞더레³³⁾ 바레영³⁴⁾ 두드리라
날랑 느 앞더레 빗두드리켜 에야흥
요거여 저거여
놀아간다 에야 흥 에야도 흥
뒤흔느³⁵⁾ 아이덜이 잘 허라
이 고망³⁶⁾으로 기어가멍³⁷⁾ 확확 뒤흔노라 에야 흥

31) 끊어지라.

32) 저것처럼.

33) 앞으로.

34) 바라보며.

35) 뒤집어 놓는.

요거여 저거여 돌려들멍 때려보자 에야도 흥
잘도 때려진다 어야도 흥
요거여 저거여 팔팔 날아간다 에야도 흥
밥덜 먹엉 허자 이제랑 쉬엉 밥 먹엉 허자

②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춘자 할머니(80)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어야 흥아 허어야 흥아
요놈에 동산 때려나보자
요건 보난 동산이여
요건 보난 굴랭이³⁶⁾여
요건 보난 살랭이여
어서 어서 때려보자
날도 하고 돌³⁷⁾도 한데
유월영청에 요 마당질허영
인간 백성 살리는구나
어기야디어 때려나보자

4. 방아 노래(남방에⁴⁰⁾ 짓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문사남 할머니(94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36) 구멍.

37) 엮드려 안으로 들어가면서.

38) 구렁.

39) 달(月).

40)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이어 이어 이어도방에
 이어 이어 이어도방에
 방엔 보난 굴무기⁴¹⁾ 방에
 이어 이어 이어도방에 허 허
 방엿귀⁴²⁾는 가시낭⁴³⁾ 방엿귀영 허 허
 이어 이어 이어도방에
 가시오름⁴⁴⁾ 강당장 말젓말⁴⁵⁾애긴 식콜방에도 새글럼서라 허
 전성 굿인⁴⁶⁾ 이내몸도 니콜방에⁴⁷⁾도 새맛아간다
 아이고 풀⁴⁸⁾이여
 드리⁴⁹⁾손당⁵⁰⁾ 큰애기들은 피방에⁵¹⁾ 지레⁵²⁾ 다나가네⁵³⁾
 이어도방에
 불긋불긋 왕리앗 실러나지라
 요 쏘 실렁 내일 즈낙 시아바지 소취⁵⁴⁾나 두고
 시어머니 양식⁵⁵⁾ 장만하여 두고
 나도가자 피방에 지레 ㄱ치⁵⁶⁾ 나가자
 이어 이어 이어도방에 아이고 풀이여

41) 느끼낭, 느티나무.

42) 절긋공이.

43) 가시나무.

44)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45) 셋째말.

46) 전생이 거친.

47) 네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구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찢어 넣으면서 방아를 찢는 일.

48) 팔.

49)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50)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51) '남방에'에서 피곡식을 찢는 일.

52) 찢으러.

53) 다 나가고 있더라.

54) 사주.

55) 양식.

56) 같이.

5. 맏들 노래(ㄹ레 ㄹ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A-이문호 할머니(80세), B-강지현 할머니(88세)

조사장소 : 월대 노인회관

A-이어 이어 이어동하라

어머님 아덜 편지나 와십떼가

느신디 아니 온걸 나신니 오느냐

살암시라 편지도 오고 돈도 온다

이어 이어 이어동하라

어머님 어머님 똥이나 껍데강

나 똥편건 느 똥만도 못헌거여

이어 이어 이어동하라

B-어멍 간디 날 가랜 허른 진디 보며 새 놀아간다⁵⁷⁾

이어 이어 이어동하라

산짓물⁵⁸⁾에 가도 궁근팡⁵⁹⁾ 없더라

이어 이어 이어동하라

②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춘자 할머니(68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이어 이어 이어동하라

대중선 집에 흘물⁶⁰⁾ 밤에

밀 닛말 굴양⁶¹⁾ 기일제사 한다

57) 어머니 간 데에 날 보고 가라고 하면 진 데 보며 새 날 듯 가려네.

58) 山地물(山底泉).

59)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넓적한 땅.

60) 하루.

61) 갈아서.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査報告

이어 이어 이어동하라
ㄱ렌 보난 지남석⁶²⁾ ㄱ레
이어 이어 이어동하라

6. 해녀 노래(네 져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애숙 할머니(6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나
우리 배⁶³⁾는 잘도 간다 이어사나 아어도사나
우리 어멍 나를 낳 때 무슨 날에 나를 낳는가⁶⁴⁾
이어 이어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잘도 잔다 저어라 처라
흔작 폴엔⁶⁵⁾ 테왁⁶⁶⁾을 들고
흔작 폴엔 빗창⁶⁷⁾을 들고
이어 이어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열두길⁶⁸⁾에 들어나가서 소라를 켜까 미역을 켜까
이어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손물 ㄱ런⁶⁹⁾ 동하야바다 든물 ㄱ런⁷⁰⁾ 서해바당 이어사나 이어사나

62) 지남석(指南石), 자석처럼 위아래 짝이 딱 붙어서 잘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여겨지는 땃돌.

63) 배(船).

64) 나를 낳았는가.

65) 한 쪽 팔에는.

66)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

67) 전복을 캐어내는 쇠붙이로 된 도구.

68) 열두 길, '길'이란 사람의 키의 길이. 아주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해녀는 열두 길이나 되는 바닷 속까지 깊이 들어가 작업한다.

69) 썰물 때엔.

70) 밀물 때엔.

우리 배는 종나무배라 이어사나 이어사나
우리 어멍 날 날적에 남난⁷¹⁾ 시간에 나도 낫건마는
요 물질을 시키는구나 이어사나 이어도사나
저어라 처라 넘어나 간다

②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문영순 할머니(80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어서나가자
뜬물에는 동히바당 썬물에는 서히바당
이어도사나 이어도사나 이어사 이어사
감태⁷²⁾ 좋은 웅동개로 이어사
매역⁷³⁾ 좋은 여⁷⁴⁾ 꽃덜로⁷⁵⁾ 어서나가자
머역 좋은 여 꽃덜로 어서나 휘저
이어사나 이어도사
생복 좋은 믋홀⁷⁶⁾로다
이어사 이어도사 이어도사

7. 멸치 후리는 노래(멜 후리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애숙 할머니(6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71) 남이 태어난.

72) 감태(甘苔).

73) 머역, 미역.

74) 바닷가 바닥이 얇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

75) 끝으로

76) 바닷가에 돌이 많은 곳, 또는 돌무더기.

어아 영차 메리치 잡나
어 둥겨라⁷⁷⁾ 둥겨라 둥겨라 어 메리치⁷⁸⁾ 걸렸구나
어 영차 메리치 많이 들었구나
영차 영치기 영차 영차 영차 줄때 잡아당겨라⁷⁹⁾
영차 영차 영차 아 오늘은 뭘이 많이 들었구나
우리 메리치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은 놀아봅시다

8. 나무 베는 노래(낭 끈치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흥관협 할아버지(80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헤이야 오늘은 낭⁸⁰⁾을 이낭 저낭 비어간다
어 실근실근 사르렁 사르렁 흥애기로구나
이야 허어호야
이낭은 큰낭이로구나 족은낭이랑 끈지 말고
흐루 끝낭뿔 끈어봅시다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영감님들 한잔 먹고 두잔 먹고나 비어나보자
아어 허어오이야
벗롬은 강풍아 불어 불어
셋벗롬 갈벗롬이야 마팍롬이로구나
어이야 이낭은 시르렁 시르렁
한 번 끈고 두번 끈고

77) 당겨라.

78) 땀, 땀치.

79) 잡아 당겨라.

80) 나무.

배어나 여차 여차 잘도 하는구나
 한잔을 먹고서 두잔 먹고
 어서 어서 저기에강 불러나 보자
 여어 어허호오
 동벼롭이야 서벼롭이여 동벼롭은 셋벼롭이야
 사노롱혼⁸¹⁾ 벼롭은 갈벼롭이로구나
 이허 호아 모르기로구나
 톱이야 이톱 저톱 무령 못비었구나
 어서 이낭만 끈어보자
 어여차 여차 빈다 늑겨간다
 어 잘도 잘든다 여 들어간다
 어서어서 오늘은 이 낭도 이 흥애소리로 잘 도나
 이야흥 해는 어서 지어가고
 어서나 비어보자
 시르렁 시르렁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어 이낭도 비자 저낭도 비자
 큰낭이여 비라 비어 여 비어간다
 이낭은 (청취불능) 산천초목은 나날이 젊어가고
 인간의 속은 나날이 늙어간다
 실근 실근 시르렁 시르렁
 살근 살근 과랑과랑
 같근 사랑 이어도흥
 어깨 아프고 팔도 아프구나
 이낭아 혼저 비어가라
 이야 어야 아아아
 흥애 흥애기로구나
 잘도 빈다 잘도 빈다
 이낭이여 저낭 저저 그냥 빈다
 저 비라 예에야

81) 사느랴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그래서 이 낭을 벨 사람들도 많곡, 하르방도 많곡 해민 목청이 트여가지고 (젊을 땐 목청이 워낙 좋았주) 달구만 불러간단 말이주. 아, 그러면 얼싸~얼싸~해가민 그냥 아고~잘도 비어지겠구나. 아고, 톱도목였져. 그럼 내가 톱 주린다. 가져오랜 하민 톱 주린다. 비어 보오. 아이고 잘도 비어간다. 비어지네. 아고, 잘도 낫슬다.]

비어 잘도나 톱도 질어노난 잘도 비어

사르렁 사르렁 비어간다 이낭아 이낭아

(청취불능) 긴 낭이야

(청취불능) 술진 낭이야 비어간다

홍애 홍애로구나

이절은 아어어어 이야

잘도 사르렁 사르렁 실근 실근 사르렁 비어

질날도나 비고 오늘은 열지를 비고 여 스무지를 지고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비고나면 뚝도나고

[이제랑게 흠뻑 쉬어들 험주게 담배도 한 대 꺾고 피엇들 험서]

홍관애비가 부르는 노래 들었는가

또다시 이절 비어 간다

우리가 살면은 몇백년이나 살코

막상만 살아야 한팔십이로구나

잘도나 비어간다

천청 천청 하늘은 잔별도나 많고

요내야 가슴에 수심도 하 많다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살근삼 비어간다

톱이다 뭉였구낭아

또다시 줄로 큰줄로 비어

사르렁 사르렁 줄도 줄이고 영허나보자

이 이야 삼절을 부른다

이낭아 저낭아 어서어서 끈어나 보자

어어 어야 홍애로구나

[아이구 봄도 좋다]

이야 어어야 흥애로구나

[다들 혼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낭도 비라 이낭도 비라게 어허야

우렁찬 이 노래를 들어가면서

낭도나 잘도 비어지는구나 아호오

어허오 흥애로구나

젊어 청춘에 에 노래도 하고 어 불러 불러

[또 부르고 또 험서게 아이고 할아버지 어떻습니깁 아이고 잘도나 비어간다]

이팔 청춘에를 청춘 오거리에 젊은때 불러나 본다

사르렁 사르렁 사르렁 사르렁

홀딱 홀딱 잘도 비어간다

이낭아 비어져라 흥두께만 전봇대만 비어 간다

아름ㄱ득 ㄱ득한 나무 비어간다

아호오 오 흥애로구나

9. 양태 노래(양태 줄은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이문호 할머니(80세)

조사장소 : 월대 노인회관

나 동침⁸²⁾아 나 동침아 서월 놈이 술잔들듯⁸³⁾ 혼저 앓앙 돌아가라

아양 어양 어요

은죽동아 금죽동아 어는제랑 혼저나 크엉

아양 어양 어요

동네랑 광돌⁸⁴⁾ 위에 앓아그녕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수정에나 세어나보리

82) 갓양태를 걸기 시작할 때에 날이 되는 내오리를 실로 한 바퀴 위에 놓은 다음, 양태판이라는 둥그런 널판지로 된 갓양태를 걸는 연장 한 가운데 베모지게 뚫린 곳으로 내려뜨리는 실의 끄트머리.

83) 서울 사람 술잔 돌 듯.

아양 어양 어요
어느제랑 혼저 크엉 장개 갈 때에 큰 갓 씌엉
아양 어양 어요
큰 갓 쓰면 망건 생각 망건 쓰면 탕건 생각
아양 어양 어요

10. 모자 노래(모즈 줄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홍시춘 할머니(80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이년 이년 이녀도 흐라
이년 모즈 즈라나지라
흔돌육장⁸⁵⁾ 시백인모자⁸⁶⁾
돌막돌막 즈라나지라
복복 얼근 요눔아
밥상 반양 노래말라
느네 각시⁸⁷⁾ 아기 업언
큰 한 질에 뛰엄서라
이년 이년 이녀도흐라
이년 모자나 즈라나지라
성님성님 사촌성님 시집살기가 어떡데가
아고 야야 말도나 마라

84)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끔 넓적한 큰 돌 따위로 놓은 것.

85) 혼돌 육장(六場), 한달 줄곧, 한달에 오일장이 다섯 번 서기 때문에 그 장날에 맞춰 내다 팔기 위하여 쉬임없이 결어야 한다는 뜻. '흔돌 죽장'이라고도 불림.

86) 오일시장 때마다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꼬박꼬박 그 시일에 맞추어 만들어야 하는 모자.

87) 너의 처.

고추단지가 맵다한들
시집보단 더 맵느냐
장독⁸⁸⁾ ㄱ튼 시아방에
암퉁⁸⁹⁾ ㄱ튼 시어명에
물꾸럭⁹⁰⁾ 님은 서방님에
코생이⁹¹⁾ 님은 시누이에
못살크라라 못살크라라

11. 물레 노래(미녕질 뽑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춘자 할머니(68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어기야디야 물레로구나
저산 뒤에 선구를 산다
저산 앞이 안개가 진다
어허야디야 산이로구나
날이 하면 날날마다 농촌생활이 이려는구나
어기야디야 물레로구나

12. 행상 노래(행상 소리)

- ① 조사일자: 2000년 7월 28일

88) 장닭.
89) 암탉.
90) 문어.
91) 놀레기.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제 보 자 : A-고경희 할아버지(78세), B-마을 주민들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A

B

이제 오늘 파직했노라

어 어허 어허허 이야에 녕차 어화로다

가는 길 막는 우리의 청춘

어 녕창 어화로세

이제 하직이 했 오늘로 하직

어 녕창 어허로세

어 녕창 어화로세

② 조사일자 : 2000년 7월 29일

제 보 자 : A-백술생 할머니(77세), B-마을 주민들

조사장소 : 도평 노인회관

A

B

이웃침에 갑적엔 친구도 많고

엉 허야 얼화로세

공동묘지에 갈 적엔 친구벗도 허사로구나

엉 허야 얼화로세

흔저 가면은 언자오나

엉 허야 얼화로세

한 번 가면 더 못올게

엉 허야 얼화로세

세상 천지에 만물중에

엉 허야 얼화로세

이 제사에 난 사람 니 덕으로 난나

엉 허야 얼화로세

석가여래 공덕으로

엉 허야 얼화로세

칠성님전에 명을 빌고

엉 허야 얼화로세

제석님전에 복을 빌고

엉 허야 얼화로세

이 세상에 나왔는데

엉 허야 얼화로세

흔두살에는 철을 몰라

엉 허야 얼화로세

부모은공 다 못 갚아

엉 허야 얼화로세

흔저 나면 이 날인가

엉 허야 얼화로세

흔 옛날은 청춘인데 오늘날은 백발이 오고

엉 허야 얼화로세

白鹿語文 第17輯(2001. 2)

구석구석 웃는 모양

영 허야 얼화로세

애달퍼도 설운지다

영 허야 얼화로세

③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애숙 할머니(6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어허 허 형차 어화로세
노세 노세 놀아라 젊은 청춘에 놀자	어허 허 형차 어화로세
산천초목은 나날이 높고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나 사나	어허 허 형차 어화로세
술집에 가실적에는 친구도 많고	
공동묘지에 가실적에는 내 혼자로	어허 허 형차 어화로세
갑시다 갑시다 어서어서 가자	어허 허 형차 어화로세
어린 자식들 버려나 두고	
우리 인생을 돌아나가자	어허 허 형차 어화로세
저 산 앞이 풀잎새는 해년마다 오시건	
우리 인생 한번 가면 언제나 오리	어허 허 형차 어화로세
놀아 놀아 젊은 때에 놀아나보자	허 허 형차 어화로세

④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임숙균 할머니(7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바닷가

	어허 녕창 어화로세
인저 가면 언저 오나	어허 녕창 어화로다
공동묘지야 말 물어보자	어허 녕창 어화로세
(청취불능)	어허 녕창 어화로세
술집에 가실적에는 친구도 많다	어허 녕창 어화로세
공동묘지에 가실적에는 내 혼자 뿐이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놀아 놀아 젊아 놀아	어허 녕창 어화로세
임그려 ⁹²⁾ 죽은 무덤은 몇몇이나	어허 녕창 어화로세
벼름아 강풍아 불지나 말어라	어허 녕창 어화로세
술있 단풍이 다 떨어졌나	어허 녕창 어화로세
놀아 놀아 젊아서 놀아	어허 녕창 어화로세
인저 가면은 언저나 오나	어허 녕창 어화로세
산은 첩첩 청산이요	어허 녕창 어화로세
물은 청청 녹수로다	어허 녕창 어화로세
임그려 죽은 무덤은 몇몇이나	어허 녕창 어화로세
인저 가면 언저나 오실까	어허 녕창 어화로세
벼름 강풍아 불지나 말아	어허 녕창 어화로다
술있 단풍 다 떨어진다	어허 녕창 어화로세

13. 달구 노래(달구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A-고경희 할아버지(78세), B- 마을 주민들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이제 이 무덤에 들었구나	에- 헤- 달구
천년만년 살을 집을	에- 헤- 달구
이제 하직 오닐 ⁹³⁾ 이네	에- 헤- 달구
일장 하다그네 이 흙속에	에- 헤- 달구
이제 일장 끝나는구나	에- 헤- 달구
우리 팔십에 흙덩이가 된다	에- 헤- 달구
이제 말십 하직한다	에- 헤- 달구

92) 그리워.

93) 오늘.

일장춘몽도 모다가⁹⁴⁾ 꿈이로구나 에- 헤- 달구

14. 진토굿 파는 노래(진토굿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고경희 할아버지(78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이 이히 이이 으아
인생 팔십이요 하직하는 오닐이네	이 이히 이히오
천년만년 살을 집을 오닐로 완성을 하네	
	이야 호오
이승이야 길다해도	
여기서 끝나는 일생들이로구나	오호오 호호 이해이야
천년만년 갈길 다 포기하고	
오 오닐이 지장이 닥쳤구나	헤야오
여러 역군 어른님네들 동조들 바랍니다	
	에헤에 이히여
오닐 일기 좋고 천덕을 얻은	
이 맹사님께서는 지하로 돌입하는 날짜을시다	
모다 역군님네덜 협력해	
지하로 멋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 이히 이히오
다 구경 말고 모다	
이 입장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올오호 에헤야옹

15. 창민요

94) 모두가.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① 창부타령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감지현 할머니(88세)

조사장소 : 월대 노인회관

노세 놀아 젊을때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는 십일홍이여 달도 차면 기우는다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산아 산아 노픈 산아 제아무리 높다한들
우리 부모님 은공만이 높을수가 있으리라
우리 어릴 적에 젖인 자리를 걷어주고 마른 자리를 꿀아줍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부모인정을 제 모르나
얼씨구나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놀아 놀아 젊을때 놀아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젊어신때 노실대로 놀아보시리오
얼씨구나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역새 강변 흐르는 물에 배추씻는 저 처녀야
거세그네 다 걷어놓고 속에 속익은 나를 다오
여보당신 앉아보라 속에 속익을 달라하오
처녀를 보고 말하니허여 배추가 이뻐서 말하네네
얼씨구나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노픈 산에 눈느리듯 얇은 산에다 집을 짓고
역수장막 비부어분듯이
대천바당에 물 일어나듯 요내 제사만 냉겨주소
얼씨구나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발동기 기계는 하루의 기계요 아무리 지겨도 놀지 말고
우에서 통통 밑에서 색색 옆에 물결이 살랑살랑
얼씨구나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나비야 청산가자 큰나비야 너도가자
가라가라 비바람치듯 큰나비 등에다 잠장가세

얼씨구나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적일년아 잡을년아 대동강에 (물빌년아)
얼른가자 눅저두고 어린자숙 젓 맥여 놓고
오동추야 달 밝은 밤에 잡음을 따라가나
얼씨구나 저절씨구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② 장구 타령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매숙 할머니(6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아니 아니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놀아 놀아 놀아 젊은 청춘에 놀아보자
늑구야 병이 들어서요
아니 아니야 아니는 못허리라
아니 아니요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누가 나를 생각을 하면 신작로 거리거리마다 열녀가 되어주마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다 어찌 좋은 줄을 모르겠네
요리야 종을줄을 알았다면 이삼년 전이나 만나나 보컬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야 노지는 못허리로다
하룩산⁹⁵⁾으로 나리는 물은 월대야 술을 하나 받아나 놓고
나의야 눈물은 나리는 물은 한강바다로 건너간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아니 노진 못허리라
가지마오 가지마오 가지마오 저를 두고서나 가진 마오
임은 가고 봄만 오니 꽃만 피어도 나 고향생각
앉아 생각 누워 생각 생각 생각이나 부모님생각
아니 아니 아니야 놀지는 못허리라
너년이 잘났다고 천하가 일색이가 되더냐
제눈이야 어둡어서 한장쪽만 뵈는구나

95) 한라산.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③ 청춘가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애숙 할머니(6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나 좋네 아니야 노지는 못허리라
놀아 놀아 놀아 젊은 청춘에나 놀아보자
늙구야 병이 들어서 아니 아니야 아니를 못허리라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노지는 못허리라
간다더니 왜 또왔나 온다나디니야 왜 왔느냐
내 딸 주고 내 사운데 울고 갈 길 왜 왔느냐
얼씨구 좋다 정말로 좋네 아니 아니야 놀지는 못허리라
사랑 사랑 내 사랑이라 임이 없는 요 사랑도나 사랑이나
알다가도 모를 사랑이여 있다가도 야 알미운 사랑
오손도손 살던 사랑 왁달달각 싸운 사랑
아무도야 모르게 단들이가 만남 소근소근 정준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라도 사랑이라 혼 것은 무엇이냐
공산을 멩월 달 밝은 밤에 이별이 (청취불능) 사랑
아니 아니 노지는 못허리로다
노잔다 때려보소 오고 가지를 말어다오
아까운 요 내 청춘 다 늙어서 지는구나
얼씨구나 절씨구나 좋네 아니 아니야 놀지는 못허리라
우리가 살면은 몇백년 있다가 살아있나
막상이나 살아사 단 칠팔세를 살았건만
우리야 인생 한번가면 다시 한번을 돌아올까
북망산천을 가실적엔 내가 혼자로구낭이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어찌 좋을 줄은 모르겠니
술집이를 가실적엔 친구도나 많고구나
공동묘지를 가실적에는 내가 혼자로구낭이라
북망산천을 가신님은 제사때에나 돌아올까

얼씨구 절씨구 정말로 좋아 어찌 좋은 줄 모르겠나
높은 산에 눈 날리듯 얇은 산에 집을 짓었
역수장막 비바람 치꼭 대천바당도 물밀어오고
은을 잔약이나 오신 손님이 제수야 장막 이경가소
아니 아니 아니 노지 못하리라
바람 불어서 시러진 나무는 봄비나 오면 일어설까
수신빙과 근신빙은 약방이나 약도나 허세로다
아니 아니 노지는 못하리로다

④ 박연폭포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애숙 할머니(6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박연폭포 흐리고 나리는 물엔
풍당선 빠져서 예로와 홍무로나 지는구나
에헤야 얼싸 좋고 좋음도 좋다 영 어려영 어이 동동 내사랑이로다
어동동추양에 달이가 덩덩 밝은데
임이야 동동 생각은 저절로 가서 나는구나
에헤 어허야 얼싸 좋구나 좋음도 좋다 영 어려영 어이 동동 내사랑아
가면 가고요 말면 말라지
두신을 신고서 내가 요 시집을 갈소나
에헤야 얼싸 좋고 좋음도 좋다 영 어려영 어이 동동 내사랑아
날 데령 가져라 나를 모시고 가져라 돈 좋고 심 좋은 놈아 나를 데리고 가져라
에헤야 얼싸 좋고 좋음도 좋다 영 어려영 어이 동동 내사랑아
한강수야 깊고 얇은 물에다 풍당선 빠져서 예리와 홍무로 지는구나
에헤야 얼싸 좋고 좋음도 좋다 영 어려영 어이 동동 내사랑아
너년이 잘났다고 천하가 일색이가 되더냐
제 눈이야 어둑어서 한장썩만 뵈는구나
에헤허야 얼싸 좋고 좋음도 좋다 영 어려영 어이 동동 내사랑아

16. 자장가(애기 구덕 흥그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문사남 할머니(94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자라 어진 할망손지
자랑 자랑 자랑
우리아긴 돈밥먹언 돈줍 잔다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눔이⁹⁶⁾ 아긴 고치⁹⁷⁾먹엉
꼬약허영 우는 소리여
흔저 자라 은을 주민 너를 사라
금을 주민 너를 사라
흔저장 흔저크라⁹⁸⁾
흔저경 나라충신혈 애기여
사흘잔치혈 애기여
조상의 산소에 소분혈 애기여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 자랑
은도 자랑 금도 자랑 자랑 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경 나라충신 부모 효도허라
부모님 효도허라
사흘잔치 이레잔치허자
일가방상 화목허자
왕이자랑 왕이자랑

96) 남의.

97) 고추.

98) 열른 자서 열른 커라.

흔저자고 흔저크라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은을 주민 너를 사나
은도 금도 주어도 못살 애기
흔저 자라 흔저 크라

②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제 보 자 : 박춘하 할머니(80세)

조사장소 : 외도1동 노인회관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애기 자는소리 노는소리
왕이 왕이 왕이자랑
우리 애긴 곤떡물엉 우는소리 노는소리
왕이자랑 왕이자랑
눔이 애긴 고치 물엉 우는소리
왕이자랑 왕이 왕이
흔저 ㄱ만히 자
왕이 왕이 왕이자랑
아기도 페라와⁹⁹⁾
우리 아기랑 할머니 손지
흔돌이민 초사흘 열사흘 스무사흘 스무이레
할마님 공든 족손¹⁰⁰⁾ 지족손
할마님 열다섯 십오세 안쪽은
할마님 그늘노아¹⁰¹⁾ 키와줍써
구덕혼스¹⁰²⁾ 걸리엿게 할마님

99) 페랍다, 성질이 신경질적이고 사납기 때문에 다루기 힘들다.

100) 자손.

101) 그늘을 드리워.

102) 구덕혼사.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고별손님 흥볼손님

물멍지¹⁰³⁾ 님은 손으로

강멍지 님은 손으로

소르르 씨렁¹⁰⁴⁾ 저올레 배곶디에

할마님 고별로 몬딱 내쫓아 줘써

할마님 고맙수다

이야기하며 폐랍게 흐지 말앙

잘게 질와 줘써 왕이자랑

아이고 우리아기 잘도 잔다 왕이자랑

③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이매숙 할머니(66세)

조사장소 : 내도동 노인회관

자랑 자랑 왕이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놈이 아기 못도 잔다

자랑 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기 곤떡 먹엉 자는 소리

놈이 아기 ㄱ치 먹엉 우는 소리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왕이자랑

할마님 손지 흔저 누왕자라

자랑 자랑 왕이자랑

[흔저누왕 자볼라 니네 아버지 밧갈래 가난 밥 허영 놔 뒀당 아버지 오건]

밥 허영 주고 굴묵 짓엉 놔 두꼭¹⁰⁵⁾

물 질어당 밥 허영 주고

왕이자랑 왕이자랑 자랑 자랑

103) 물멍주.

104) 쓸어서.

105) 구들방에 불을 때어 놔 두고

[아이고 우리 아기 낫난 생이우다¹⁰⁶⁾ 낫들이 해줍써 이거 할마님 손지 이거 낫
나수다게

어떻허른 좋으코]

할마님 손지 낫난거

낫들여줍써 혼 들여줍써

어지시던 할마님 열다섯이로세

전인 할마님으로 못헐 일이 있습니까까

이 즈손덜 고씨 할마님 김씨 할마님

다 끈을 놓아 줍써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어지시던 할마님 손지우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눔이 애기 못도 잔다

[할마님 손지 혼저 누윙자라 누윙자라 이 혼저 자불른 어머니 밥 허곡 굴묵 짓
곡 혈게 아나가 어진 할마님 손지 누윙자라 이]

17. 동요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

제 보 자 : 전창화 할머니(89세)

조사장소 : 전창화 할머니 댁

①

훈다리	인다리
거청	대청
원님	스설
구월	네월
행정	밭딤

106) 낫이 나간 모양입니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흐드	나무
알롱	달롱
지동에	착

②

말이나	보말이나
얼레기 ¹⁰⁷⁾ 나	돌레기나
심방채기	가죽이나
나나 전라도	평양 감스 황해도
이내목	저내목
금당목	희양목
안즌백이	산백이
웃놀이나	희초리나
지동에	착

③

저 산뒤에 꾸박꾸박 허는 거 머꼬
미빠쟁이¹⁰⁸⁾여

미빠쟁인	흰다
희른	할애비여
할애빈	등굽나
등굽은	쇄질멧가지여
쇄질멧 ¹⁰⁹⁾ 가진	늑구녕 난다
늑구녕 나민	시리 ¹¹⁰⁾ 여
시린	검나
검은	가마귀여
가마권	놉든다

107) 머릿말.

108) 미꾸쟁이, 미우쟁이, 참억새의 줄기 끝에 이삭 같이 된 기다란 꽃.

109) 소의 등에 얹은 길마.

110) 떡 시루.

놉디른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 ¹¹¹⁾ 여
철쟁인	젼진다 ¹¹²⁾
젼지민	강이 ¹¹³⁾ 여
강이는	불나
불으른	대추여
대추는	돈다
돌민	옛 ¹¹⁴⁾ 이여
옛은	홀튼다
홀으른	지레기 ¹¹⁵⁾ 여
지레긴	보리먹나
보리먹으른	췌여
췌 ¹¹⁶⁾ 는	빨돈나
빨돋으른	강늑 ¹¹⁷⁾ 이여
강늑은	똥다
똥든	배룩이여
배룩은	문다

111) 대장장이.

112) 겹지다, 겹지다, 겹지다, 겹히다, 겹음을 당하다.

113) 게.

114) 옛.

115) 기러기.

116) 소.

117) 사슴.

설화

목 차

- | | |
|-----------------------|-----------------------|
| 1. 형제 이야기 | 19. 김통정 장군 |
| 2. 사랑 이야기 | 20. 씨름장사 이야기 |
| 3. 덩방수 이야기(신씨 집안의 권세) | 21. 죽헌대부 겸 가선대부 김부은 |
| 4. 귀신 이야기 | 22. 도채비 이야기 2 |
| 5. 월대 이야기 | 23. 힘센 김씨 이야기 |
| 6. 전생의 업보 | 24. 문왕성 문도령과 자청비 |
| 7. 왕자묘 이야기 | 25. 백양초 |
| 8. 지명유래 : 도근내 | 27. 저승 다녀온 이야기 |
| 9. 토성 쌓기(가혹한 삶) | 28. 저승 다녀온 이야기2 |
| 10. 효자 이야기 | 29. 남선비와 노일저대 |
| 11. 묘 찾아주고 출세하려던 이야기 | 30. 셋째 딸 이야기 |
| 13. 도채비 이야기 1 | 31. 콩이 꽃이 이야기 |
| 14. 줄레장군 이야기 | 32.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 |
| 15. 세 선비의 내기 | 33. 도평의 지형 |
| 16. 지명유래 : 우령(牛嶺) | 34. 지관이 된 산지기 |
| 17. 신씨네 묘자리 이야기 | |
| 18. 탐 이야기 | |

I. 조사경위 · 제보자

제1일(2000년 7월 28일)

학교에서 9시 30분 경에 출발하여 도평분교에 10시 10분 경에 도착하였다. 간단하게 짐정리를 마친 뒤, 11시 40분 경에 점심을 먹었다. 점심식사 후 반별로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반장끼리 조사할 장소를 정하기 위해 반장모임을 하였다. 1차 조사는 내도 마을회관을 찾아갔다.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밭에 일을 많이 나가셔서 마을회관에는 몇 분 안 계셨다. 도

평분교에서 조사를 나가기 전에 내도 제보자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 고창수(남·68세) : 내도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과 얘기를 하는 도중에 회관에 찾아오셨다. 현재 내도 노인회장을 맡고 계신다. 마을회관에는 악주를 조금 하시고 오신 것 같았다. 원래는 이호 출신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내도로 이사를 오셨고, 중학교를 졸업하셨다. 6·25 당시에 군대를 다녀오셨고, 여행으로 일본도 여러차례 다녀오셨다. 이야기 도중에 성경, 불교, 유교 등을 계속 언급하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탐구하는 대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꾸지람을 하셨다. 이야기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아는 이야기가 없다고 하시고 개인 신앙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며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셨다. 특히, 손을 이용하면서 자신있게 말씀하셨고, 어려운 용어는 공책에 쓰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 김원옥(여·78세) : 고창수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도중에 물귀신 본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다. 도평 토박이로 2남 2녀 중 셋째라고 하셨다. 19살에 내도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계속 사신다고 하셨다. 손주들은 전화국, 한전, 대학생이라고 하시면서 자랑을 하셨고, 현재 며느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셨다. 작은 체구에 틀니를 하셨지만 발음은 비교적 정확하였다.

▷ 강지현(여·88세) : 고향은 고내이고 결혼한 후 내도로 오셨다고 하셨다. 13살 때 일본 방적회사에 다니면서 야학을 다니셨다고 한다. 내도에는 33살 때 다시 들어와서 장사를 하셨다. 남편은 고향이 외도이고 자식은 3남 1녀라고 하셨다. 내도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할머니인데도 치아 상태는 아주 좋으셔서 말씨도 좋았고, 기억력도 좋으셨다.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신 후에는 손동작까지 섞어가며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잘 하셨다.

▷ 이문효(여·80세) : 월대 마을회관에서 강지현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듣던 중에 다가오셔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다. 강지현 할머니가 하시는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문효 할머니는 월대에서 태어나서 월대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셨다. 설화보다는 민요를 많이 알고 계셨고 조사자들이 이야기를 부탁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 싶어하셨다. 앞니는 은색으로 박으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다. 두 번째 이야기부터는 자신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떠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다.

저녁식사 후 반원들은 2차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2차 조사는 월대 마을회관에서 소개시켜 주신 김성도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하였다. 저녁 7시 30분 경에 할아버지 댁에 전화를 드려서 집의 위치를 묻고, 8시쯤에 찾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할아버지께서 집의 위치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한참 헤매다가 가게에서 할아버지 댁을 물어 물어서 8시 30분 경에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집보다는 밖에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도근내 옆에 있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다.

▷ 김성도(남·80세) : 원래는 광령에서 태어나셨고, 30대에 외도로 이사오셨다고 한다. 학교는 안 다니셨고 지금은 6남매를 결혼시키신 다음 부인과 함께 사신다고 하셨다. 표준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셨고, 젊었을 때는 야학 선생님도 하셨다고 한다. 지식이 많은 것 같았고, 제주신문에 제주도의 전설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연재하신 적도 있다고 하셨다. 특히, 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하셨다. 내용을 조리있고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셨다.

제2일(2000년 7월 29일)

3차 조사는 숙소인 도평분교에서 전사를 2시간 가량 하다가 도평 마을회관에 찾아갔다. 할머니 여러분이 계셨는데 옛말을 잘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성과가 없었다.

4차 조사는 외도 1동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조사를 하였다. 김정순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변 상황이 너무 시끄러워서 저녁에 할아버지 댁으로 직접 찾아뵙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박춘화 할머니에게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요즘 마을회관에서 사물놀이 연습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다.

5차 조사는 저녁 8시 경에 김정순 할아버지를 찾아뵙기로 하였으나 할아버지가 피곤하다고 하셔서 다음날 아침 9시 경에 찾아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도평 김치하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도평 마을회관에서 찾아뵙기로 하였다. 회관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도평 마을회장이신 윤치현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께서 일요일 9시 경에 할아버지 몇 분을 모시고 도평분교로 찾아오신다고 하셔서 숙소로 돌아왔다. 그 후 도평분교에서 반원 전체가 전사를 하였다.

▷ 박춘화(여·80세) : 외도 1동에서 태어나서 계속 사셨다고 하셨다. 지금은 농

사를 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옛 이름은 많이 기억하고 있었지만, 설촌 유래나 옛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았다.

제3일(2000년 7월 30일)

6차 조사는 전날 외도 1동 마을회관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김정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침 9시 30분 경에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도 마을회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셔서 마을회관에 찾아갔다. 그리고 김치하, 윤치현 할아버지가 도평분교에 직접 찾아오셔서 두 분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김정순(남·84세) : 외도 1동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외도 1동에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소학교를 다녔고, 외삼촌이 있는 동네에서 서당을 3년 정도 다니셨고, 집에서 직접 선생님을 모셔다가 3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시청에서 서기를 한 적도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30세에 북쪽에 가서 5년 정도 사신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40세에 양봉업을 시작하셔서 외도 1동에서 알아주는 부자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3남 8녀를 두셨고, 지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만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왼쪽 눈이 안 보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한쪽 눈썹을 계속 찌푸리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야기가 잘 안 들렸지만, 비교적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기억력도 그다지 좋으신 것 같지 않았고, 한문을 아주 잘 쓰셨습니다. 고서를 보여주시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시려는 적극성을 보이셨습니다.

▷ 윤치현(남·66세) : 도평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도평 마을회장으로 계시고, 제주시에서 직장도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격이 아주 호탕하셔서 이야기를 듣기에는 편했습니다. 옛말보다는 신앙쪽에 박식하신 것 같았습니다.

▷ 김치하(남·66세) : 도평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서당을 다니다가 독학을 하였고, 국민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공직 생활을 30여년 하였고, 현재 새천년 민주당 제주지구당 상무위원으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얀 모시옷을 입으셨고, 아주 세련되어 보이셨습니다. 치아도 아주 가지런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말씨도 아주 또렷하셨고, 표준어도 구사하셨습니다.

7차 조사는 첫째 날 월대 마을회관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고정숙 할머니의 녹음 상태가 안 좋아서 마을회관을 찾아갔는데 할머니가 회관에 나오지 않으셔서 집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위치만 파악하고 저녁에 집으로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월대 마을회관에서 첫째 날 이야기를 해주셨던 강지현, 이문호 할머니에게서 또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할머니 두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반원 전체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다.

8차 조사는 저녁 7시 경에 고정숙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도평분교에서 전사를 하였다.

▷ 고정숙(여·72세) : 외도 1동에 사시다가 올해 3월에 월대로 이사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월대에서 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시다가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자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이야기에 여러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목소리가 작아서 이야기를 알아듣는데 조금 힘이 들었다. 특별한 동작이나 특징없이 조용하게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사자들은 이야기 도중에 여러 이야기가 섞인 것 같아서 각각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체보자에게 물어보았다.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4일(2000년 7월 31일)

9차 조사는 나가지 않고, 숙소인 도평분교에서 반원 전체가 녹음한 테이프를 나눠서 전사를 하였고, 마무리를 하였다.

1. 형제 이야기

제 보 자 : 이문호(여·80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옛날 두 형제가 타고난 운명 때문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 형제는 길을 가다가 보리나무 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도둑들에게 밟히고 말았다. 도둑들은 형제를 집지기를 시키려고 데려갔다. 그런데 형제들의 복력 때문에 도둑들은 모두 죽고 형제만 남았다. 갈 곳이 없어진 형제는 도둑들과 함께 지낼 때 배운 기술로 경찰에 들어가서 잘 살았다.

그 애기가 둘을 아들 성제(형제)를 낳는데 <조사자 : 아들 성제 마씨?> 아들~
조갯디¹¹⁸⁾ 할아버지도 죽어불고 할머니도 죽어불고 어머니도 아빠도 죽어불고 어머
니도 죽어부난 외가를 가서, 외가 간디 외가에서 할아버지가 죽어부러 <조사자 :
어~>

제난 할머니가 또 아픈허난 어떤 점쟁이를 돌아서¹¹⁹⁾ 점을 하니깐 그 애기들 복
이 나빠브난 경협젠¹²⁰⁾ 허난 이젠 그 무똥¹²¹⁾에 간 영 들으니까 기어 그 말을 들
으니까 애기들 성제가 손을 심언¹²²⁾ 뛰쳐나서 도망가서 도망간, 가다가 질이 두 갈
래 질¹²³⁾이 있으니까 “혼밧되¹²⁴⁾ 가민 얻어먹지 못할거난 두 갈래 질로 널랑 일
로¹²⁵⁾ 가고 날랑 올랑¹²⁶⁾ 강 얻어 먹께.” 감히 어디 강 집만 빌영 자도 그 집이 사
람 죽을꺼난 집도 빌영 자지 말곡 그자 보리낭 트멍¹²⁷⁾에나 그 옛날에 놀¹²⁸⁾

<조사자 : 예>

쩍¹²⁹⁾ 놀에나 고개 드므랑¹³⁰⁾ 자게 헤연 나무 하나를 심어두고 나가서 나가니깐
성은 어디 가논고 허른 이렇게이 넷물 월천을 해서 월천을 헤연 밥 얻어먹고 그자
느긋 쥼 놀에 들영 스긋(사긋) 와딩 고개 드므랑 자고 그자 원칙을 안 행 잘 허고
동생은 보리낭 트멍에 강 보리낭 빠동¹³¹⁾ 강¹³²⁾ 소 몰앙¹³³⁾ 자곡 하는데 여름인디
보리낭 트멍에 자노렌 허난 도둑놈들이 와서 도둑질 허젠 영영 허단 아을¹³⁴⁾ 뵙아
서게¹³⁵⁾ 그걸 뵙으니까 너는 어떤 놈이나 허니까 가인¹³⁶⁾ 거짓말로 나는 부모 동생

118) 가까이에 있는

119) 데려서

120) 그렇게 한다고

121)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122) 잠아서

123) 길

124) 한군데

125) 여기로

126) 요기로

127) 틈

128) 짚이나 마소의 풀 따위를 차곡차곡 둥그렇게 쌓아올린 더미

129) 쥼

130) 넣어서

131) 빼고

132) 가서

133) 몰고

134) 아이를

135) 뵙아서게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다 죽어부난 경 막 저 이녁 이녁이 경험젠 안 행 죽어부난 홀수엇이¹³⁷⁾ 영 얻어먹으래 텡기노렌 허난 도둑놈들이 요거 심어당 우리 저 집지거나 허렌 허게 행 심영 가서게 심영 강, 가난 도둑놈들이 가이 복력으로 하나씩 둘씩 하나씩 둘씩 다 죽어~

<조사자 : 아~>

경허난 그거 이 다 죽언 이 홀수엇이 이걸 난 대장으로 메우자.

<조사자 : 아~>

대장으로 메우니까 집이 집이서 도둑질 해오른 그 굴 쏘그베서¹³⁸⁾ 먹고 먹고 허연 허는디 심심허니까 막 저 화살도 초곡¹³⁹⁾ 막 그냥 그런 그 영 사람 때리고 막 그추룩 호는걸 배와서 배완, 이젠 도둑놈덜이 다 죽어불고 셋만 남으니까 우리 이제 어머른 경찰로 가서 우리가 저 이 혼련을 잘 해시니까 가른 밥 얻어 먹어진다고 행 해연 강 경찰에 가니까 밥 잘 주고 이~ 잘살더래.

<조사자 : 아~>

2. 사랑 이야기

제 보 자 : 이문호(여 · 80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옛날에 선비가 공부하러 다니다가 주막집에 있는 아가씨와 정이 들었다. 아가씨의 집이 가난해서 부자인 중풍에 걸린 선비에게 팔려갔다. 선비는 아가씨가 걱정이 되서 몸이 쇠약해졌다. 그래서 선비는 부모님에게 돈을 준비해 주면 외가에 가서 좀 쉬다가 오겠다고 하였다. 선비는 길을 가다가 아가씨의 동생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서 둘이 도망가서 살았다. 그러다가 이 사실을 안 동네 사람들이 삼강오륜에 어긋난다고 해서 여자의 귀 한쪽을 끊어갔다. 선비의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죽게 되었는데 선비의 아버지는 선비가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 선비와 아가씨는 산 속으로 들어가 자식을 낳고

136) 그 아이는

137) 할 수 없이

138) 속에서

139) 쏘고

살고 있었는데, 호랑이에게 자식이 물려가서 찾지 못했다. 선비와 아가씨는 다른 섬에 가서 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선비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이 쳐서 선비는 죽고 말았다. 아가씨도 선비가 죽은 근처에 가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선비와 아가씨의 시체는 3일 만에 부둥켜안은 채로 발견되었다.

옛날에, <조사자 : 예, 예>

아주 부제침인데¹⁴⁰⁾ 아들이 하나 나니까 산 넘어 공부허레 이제는 막 공부 댕¹⁴¹⁾ 사람이 해도 그땐 아주 부제나 베끼¹⁴²⁾ 이. 공부허레 가서 간 가 가고 오고 허는데 그 저기 주막집에 어머니 아버지든 쇠도 잡고 몰도 잡고 왜야지도 잡는데 에 그거 조금씩 조금씩 잡으면서 꿇어당 에 숯¹⁴³⁾ 저 (?)에 구멍, 먹고 그 저 찌 개도 혜영 먹고 허는데 그 그 저 선비엔 허주게.

<조사자 : 예>

선비가 넘어가당 그 주막에 들면은 그 아가씨가 맛있는거 주고 주고 허난 아주 정이 들어 부렀어.

<조사자 : 아~>

정이 들어부니깐 에 정이 들어분디 그 아가씨는 부모가 막 못사니까 응 어 그 선비선생이 병이 들었어. 저 중풍. 중풍드니까 그 저 중풍 완 허는거난 아가씨가 부름씨¹⁴⁴⁾허고, 음 몸도 따뜻이¹⁴⁵⁾ 허고 허문 종넌 허난 그 아가씨 부제침에난 선생이난 돈 쥘 사가서게.

<조사자 : 아~>

사간허난 그 총각 그 선비는 정든 아가씨를 선생신디 그, 그 늙은 사람신디 갔다 고 막 걱정이 되어 걱정이 되단, 막 몸이 막 쇠약하고 막 그냥 죽게 되었어.

<조사자 : 아, 병환으로~>

밥도 못먹고

<강지현 할머니 : 아가씨가? >

응, 걱정되연 허나네, 켜 그 그 선비가 허는 말, 허는 말은 나가 이렇게 으 아빠.

140) 부자집인데

141) 댕

142) 밖에

143) 숯

144) 심부름

145) 따뜻하게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엄마가 “왜 너는 그렇게 아프냐?” 허난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돈을 많이 엄마가 준비해 주면은 외가에 강 좀 수양하당 오쿠덴” 허난 복채 정도를 돈을 부모네가 많이 해줘서 전대에 담안. 짚어지고 두루마끼를 줄라메고 그 아가씨 저 오래비신디 간 저 누나 불러내렌 혜영 불러내난 그자 못 주건¹⁴⁶⁾ 심언 막 돌아서게, 둘안 주막 칩이 간 그 남제는 창통차고 여자는 머리 엇지고 그래서 거기서 거기 사는데 어떠 난 혼번은 동네 사람이 보더니만은 부모, 부모네신디 강 굴아부난¹⁴⁷⁾ <조사자 : 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¹⁴⁸⁾ 저녁때디 그냥 이 선생의 은혜는 하늘과 같은데, 이 이거 삼강오륜을 끊어볼켄 허난 목을 줄라가켜, 귀를 끊어가켜 허다가 귀 흔착을 끊어 가부러서.

<조사자 : 어~>

간 가보나네 귀 흔착 끊은 가부난 집에, 집에 온 것에 막 그냥 귀로 피가 나고 허난 여자는 죽어볼켄 막 허난 죽지 안연 살았는데 음 또 혼번은 이제 엄마가 막 그 아들을 보고 싶어 아들이 석기라 일름이, 아들 보고싶은 죽게, 죽게 되서 허니까 으 동네 사람이 와서 엄마는 죽게 되니까 아덜을 좀 봐달렌 허난 오랏젠 허난 가서, 간디 다른 집은 다 굴뚝으로 내¹⁴⁹⁾가 나는 집, 아니 나는 디 그 집으로, 자기네 집으로 내가 나고, 그 그 돌레온 사람이 아빠네 집이 가서 저기 돌아와시니까 엄마 좀 봐러, 봐와오는데 어떻허냐고 하니까 아빠는 절대 안 된덴. 아주 산중으로 그냥 사람 못 보논디 가지 앓으론 큰일난덴 허나네 집이 어허허 울면서 새벽인디 울면서 이레¹⁵⁰⁾ 돌아왔. 그 아가씨 음 아들을 나서, 그 아가씨 아들을 난데 그 아가씨 이제 하고 소 하나, 소 하나 타고 똥따리¹⁵¹⁾에 덜, 싹 허게 짚어진 산중으로 올라가서, 산중으로 올라간 집을 짓언 집을 그자 움막 메연 그 소로 지실¹⁵²⁾도 같고 7레도 좁고 그럭저럭 행 사논디 이 아래서 사람 가시론 버려주신거 좀 주문 거 소금을 좀 구해달렌 허민 소금 가정오론 바쳐먹고 정 행 허논디, 그 애 아들 난 것이 이 여 감저도 먹고 헤가난 안에 이 년은 감자도 많이 심어다 허겠다 허디 엄마가 물동일 물질레 가가난 조롭¹⁵³⁾에 가단 보니까 호랭이가 확 차가부렀어. 아들~ 그 아덜 애기.

146) 못 죽어서

147) 말해버리니까

148) 찾아와서

149) 연기

150) 이곳으로

151) 꿈무늬

152) 감자

<강지현 할머니 : 뭐 호랭이가?>

웅 호랭이가 확 차가부난 그냥 둘이 그냥 막 죽자쿠나 막 돌아댁겨도 좇지 못해서 좇지 못하니까 이젠 홀수엇이 이제 알로¹⁵⁴⁾ 내려가사 허켄헨 알로 내려온 것이 소도 곧 죽게 돼서. 배고판 뭐 출 아이취노난¹⁵⁵⁾ 죽게되난 그 그거 땃 푼 받고 이젠 남자도 생전 담배 못 먹어난디 담배 사다주고 여자도 고기 사단 꿔면 먹고 거 처음으로 경헨 이젠 이 섬에 말앙 어느 똥 섬에 가야허겠다. 똥섬더레 넘어와서 넘어가는데 귀 한착 엇고¹⁵⁶⁾ 그 배에 사람이 “왜 귀는 없냐?” 하니까 “모르겠다” 허연 둘이 가서 막 서방, 서방이 배에 타서 저 고기 낚으레 갔어. 가니까 각시는 이 땅 므른데 있는데 그냥 풍파가 쳐서 막 그냥 바람이 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와도 안 들어완 부두가에서 막 울다가 보니까 죽어부렀어. 남편은 죽어부니까. 그 영 보난 배에서 남편 죽은 배에 강 보켄 허난 배에 신건 간. 요즘 어디 죽었다 허니까 이렇게 뵈리다가 풍 빠전렌. 풍 빠전 여자도 죽고 헌디 혼 삼일만이 보니까 둘이 부둥켜 안았더레.

<조사자 : 아, 물 속에서 영 헨 죽영 나와신디, 근디 아까 그 누구 귀 엇인거 무사 엇인거 마씨? 거 호랑이 만날 때 땄진거파?>

<할머니 : 고개를 끄덕인다>

<조사자 : 아~>

그거 왜 연애허든 그냥 그디 결혼해여 줘 불주만은 결혼 안해 줘부난 아덜도 신세 망치고 흠~ 딸도 신세 망치고 흠흠.

3. 덩방수 이야기(신씨 집안의 권세)

제 보 자 : 고창수(남 · 68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내도 마을회관

153) 풍무니

154) 아래로

155) 안 주니까

156) 없고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요약 : 옛날에 신씨 집안이 권세가 당당했었다. 신씨 집 앞에는 덩방수라는 물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이 집 앞을 지나가려면 절을 하고 지나가야 했다. '덩방수'라는 것은 석수(石水)라는 의미이다. 아마도 신씨 집안이 권세가 강했던 것은 '덩방수' 때문이었을 것이다. 덩방수는 물이 좋아서 물을 떠다가 밥을 지어 먹기도 했다.

옛날엔 여기 신침이가 상당히 권세가 당당해 났어.

<조사자 : 신씨마씨?>

<글자를 쓰시면서> 남신(申)자 <조사자 : 음~> 남신(申)자. 여기, 여기 요디가든 저 병규(병규 : 사람이름)네 집 앞이 물이 거 무신거렌 험니까?(옆에 할머니께 물으며)

<할머니 : 어디?> 여기.

<옆할머니 : 산물>

아~ 산물. 거기 덩방수렌 험니까?

<신희운 할머니 : 덩방수>

<조사자 : 아, 덩방수 마씨?>

아, 고만 있어봐. 옛날 신침이가 권세가 상당히 좋았다고 했어. 건디, 아, 고만(가만히) 잇입서게. 나는 모르지. 옛날 하르방이 말하는 말이 권세가 좋았는데 시내서 여기에 물을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 신침이가 권세가 좋으니까 여기 인사를 허지 않으니 지나가질 못한다. 신침이서 그걸 그런 권세를 보였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저기 덩방수가 물이 좋았는데, 덩방수엔헌 그 글자가 말이여 아까 나 말했지만 말이여 그 글자는 몰라. 겐 함부로 옛날거 여기 저 돌아갔던 문태하 하르방이 그 하르방이 한글도 잘 모르는데 구 학문을 주독헌 분이다. 건디 덩방수의 그 덩방수가 뭐어떤 글잡니까? 돌석변(石)에 물수자(水)다 이거여 응, 응, 그렇게 내 들은 바가 있어. 것 뿐.

<조사자 : 그 덩방수에 얽힌 이야기...>

그 덩방수 얘기는 긴 얽힌 얘기는 별다른 것이, 거기 물이 좋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신침에 그 권세를 그 물 때문에 누리지 않았느냐. 그 물을 가지고서 그때 신침, 그 신침이가 그렇게 해서 누리질 않았느냐.

<조사자 : 아직도 거기에 물 잇어 마씨?>

이제는 물이 안 납니다.

<조사자 : 아! 말라부런마씨? 어떤 말라분 이유가 있겠지?>

아, 말라분 이유 물이 안 나니까 말라부렀지.

<조사자 : 아니 뭐 어떻게 해서 그 물에 잘못해서~>

아이, 신침에서 그건 없고 자연적으로 말라분거. 게난 여기 신침에도 몇 가구가 없어. 여기도 (신희운씨를 가리키며) 신침 할망이지마는.

<조사자 : 아~>

신침에 여기 이젠 다 떠나볼고 여기 여기서 그런있~

<조사자 : 그럼 그 물이 좋아가지고 신침이가~>

켄디 거 건 모르지 그 쪽~

<조사자 : 아~ 사람들이 경 돌아마시?>

아니, 그때 덩방수에 베르기(?) 우리 지나가젠 허문 신침에서 혼번은 기다리라 말이시 그래서 딱 제동을 걸거든. 야 이눔들아 우리가 있는데 왜 지나가느냐. 이눔들 인사라도 행 지나가라고 이려고 해서 그때 신침의 권한이 좀 있었다.

<조사자 : 아~ 샘물마썸?>

샘물 나왔주.

<조사자 : 물을 떠다가 먹은거를 그냥>

아이, 그 물을 떠다가 우리가 생수로 밥도 지어 먹고 먹기도 했고 그 물이 상당히 좋아.

<조사자 : 동네 사람들이 마썸?>

허벅 지영 강.

<조사자 : 예. 물이 상당히 흐영 있어난거 닐아?

하유, 물 좋았지게.

<신희운 할머니 : 그 물은 막 거꾸로 남젠하는 말 잇인다. 막 웃터레¹⁵⁷⁾영>

<조사자 :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잇언 마썸?>

아이. 나도 살아, 살아 아 나도 젊은 때도 어린 때도 어 거기서 은어도 잡고 고기도 잡고 장어도 잡고 다했지 이.

4. 귀신 이야기

제 보 자 : 김원옥(여 · 78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물을 길러 갔다가 빨래하는 귀신을 본 이야기

옛날에 나 커온 때

<조사자 : 할머니 몇 살 때 마씨?>

헌 열서너 설 날 때.

<조사자 : 음~>

헌 열 여섯 났구나. 고국(?)에 있으니까. 저 물이 저 이녁 사는 동네서 허영 바가지로 굴리멍 먹든 저 니까 이제 저 아래 느레간¹⁵⁸⁾ 이제 헌 이 막 그 뭐 멧 살 멧 헌 십리 나가야 질어와 경허난에 물질레 갈 때는 못 보고 간 물질언 와가난에 세답¹⁵⁹⁾허는 소리가 착착착 나.

<조사자 : 세답하는 소리 마씨?>

음, 내가 셔.¹⁶⁰⁾ 앞 내가 겨난 어멍 영 새벽이 세답을 험신고 혜연 이젠 차분차분 보난 혜영헌¹⁶¹⁾ 할망이 조제기 아장 그거, 착착착착 막델 두들기난 난 그디완 저게 누게렌, 핑핑 영 세답을 험신고 헨 엄~ 영 허난 물 위에 도물령허게 기어들어.

<조사자 : 그니깐 그 세답하던 사람 마씨?>

음, 켜 아무 것도 엇어. 게 그때 무서워네¹⁶²⁾ 스몫 막 그냥 물 몬¹⁶³⁾ 쏟으멍 왔 주게, 집드레.

<조사자 : 다른 사람도 봐났덴 마씨? 할머니만 봤우과?>

우리 어머님호고.

<조사자 : 아~>

158) 내려가서

159) 빨래

160) 있어

161) 하얀

162) 무서워서

163) 모두

5. 월대 이야기

제 보 자 : 강지현(여 · 88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옛날에 월대는 앞 소(沼)에는 은어가 놀고, 뒷 소(沼)에는 송어가 놀았다. 어떤 사람이 달이 물에 흰히 비춰서 달이 물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월대라고 이름을 지어서 나라에 바쳤는데 이름을 잘 지었다고 해서 벼슬을 받았다. 그 사람에게는 예쁜 딸이 있었는데 사또와 딸이 연애를 해서 딸은 사또의 부인이 되기로 했었는데 죽고 말았다. 부인이 될 사람이 죽은 것을 안 사또는 발을 하나 사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었다.

옛날에 이칩인데 여~ 저~ 월대 있지, 월대 알아?

<조사자 : 예~>

월대 이?

<조사자 : 예>

월대라고 하는거 이름 지은 것이 멧채냐니 거 이 그 이름 몰른가 이정숙 이 땃이더라, 이제 이름을 질르긴¹⁶⁴⁾ 땃 지었는데, 거니깐 나라에 바칠라고

<조사자 : 아~>

앞 소(沼)에는 은어가 놀고, 뒷 소(沼)에는 송어가 논다.

<조사자 : 아~>

그러니깐 앞 소(沼)는 저디 낭¹⁶⁵⁾ 풍, 풍낭¹⁶⁶⁾ 아래 앞 소(沼)레. 여기는 뒷 소(沼)라

<조사자 : 아~>

그 때, 은애¹⁶⁷⁾, 은애는 막 옛날에 은애가 많았어, 여기에.

<조사자 : 아, 은어!>

앞 소(沼)레는¹⁶⁸⁾ 은애 놀고 이 뒷 소(沼)는 송어가 막 춤을 추는거라. 송어가

164) 짓긴

165) 나무

166) 뽕나무

167) 은어

168) 앞 소(沼)에는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 바칩서. <조사자 : 아~> 나라에 바치니까 그 학부가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 소에는 은애가 놀고 뒷 소에는 숭어가 놀고 달이 흰허게 비추니까 이 월이 그 달이 물 속에 있지 이 <조사자 : 예> 그래서 월대라고 이름지었지.

<조사자 : 아~>

월대라고, 경헨 왜라보니까¹⁶⁹⁾ 월대라고 이름지어서게. 나라에 바치니까 그때 벼슬해가지고 이.

<조사자 : 예>

높은 사람 된 것은 따로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아낙, 그 아낙들이 그래 됐지. 앞 소(沼)에는 은어가 놀고, 뒷 소(沼)에는 숭어가 놀고. 이제 달이 밤에는 달이 흰허게 비추꼭 건 이레(이곳으로) 비쳐가지고

<조사자 : 물 속에>

그래 월대라 그러지

<조사자 : 아! 예>

그래 월대라고 지으니까 이 그 사람 벼슬해가지고, 또 그 사또가 욕으니까¹⁷⁰⁾ 이

<조사자 : 예>

그 사람 똬이 이 막 아주 이쁜 똬이 있어.

<조사자 : 아~>

이쁜 똬이 잇이니까 그 그거 알아가지고 저 연엘 해가지고 저 나라의 그 사또의 마누라가 됐어.

<조사자 : 아~>

마누라 될 땐 마누라 들어가지 안 해연 거 그만 죽어부렀지. 죽으니까 이제 그 사또가 한번 오라보니까 아, 여기 그 사람 어디갔냐고 허니까 이~ 죽었다고 하니 그 사람 사는 가세 ㄱ르치라고¹⁷¹⁾ 죽은디 ㄱ르치니까 사실 예 요디 <조사자 : 아~> 줄드리(다리)라고 헌디이, 그디 이디 산이 잇어. 산이 잇인 그 밧¹⁷²⁾을 사가지고 이 밧으로 해서 이 사람을 보초해주고 잘해주라고 그랬다고

<조사자 : 아~>

169) 와보니까

170) 약으니까

171) 가르키라고

172) 밧

그래서 여기 월대라 해.

<조사자 : 아, 예>

외도 월대, 소문난 월대라. 풍낭 있지? 풍낭 두 개. 외도 그 그 할아버지가 지은거.

6. 전생의 업보

제 보 자 : 감지현(여 · 88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부자집에 시집을 간 여자가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아 아들였다. 두 번째 부인이 아들을 낳자 첫 번째 부인이 시기를 해서 두 번째 부인이 볼 일을 보러 간 사이에 아들의 머리에 있는 숨구멍에 바늘을 찔러서 죽었다. 두 번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에게 당신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니가 첫 번째 부인은 부인을 하면서 내가 만약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면 후세에 태어나서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후세에 태어난 부인은 시집을 갔는데, 전생에 지은 죄가 있어서 남편, 자식이 모두 죽었다. 가족을 잃은 첫 번째 부인이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가 자기를 따라 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 남자는 도둑이었다. 그 남자와 산중으로 올라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남편이 해산을 할 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을 밀었는데, 그만 남편이 가마솔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 마침 도둑인 남편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도둑이 훔쳐온 것을 먹은 여자라도 잡아가자고 해서 여자를 데리고 갔다.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천국에 갔다.

<조사자 : 옛날에 마씨? 막 부자칩인데 애기가 었어 마씨?>

어. <조사자 : 예, 예>

두 분이 막 인정은 좋고 <조사자 : 예?>

금칩¹⁷³⁾은 막 좋아 그 두 분이. <조사자 : 아~ 예, 예>

아들도 딸도 아무 것도 아기가 없어. 없으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저 마누라가 저 작은 마누라를 었졌어. 었지니깐 이제 그 아들 낳어. 그 아들 나니까 그 아들 난 집이 이제 거 작은 어머니신디 막 정을 두고 <조사자 : 아~ 예, 예> 남편이 정을

173) 금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두고 이제 현디 그 시알을 했어. 큰어머니가 시알을 했는데 무슨 시알을 했냐? 이 아들난 덕분에 나한테 정이 없다.

<조사자 : 아~ 예, 예>

이 아들을 죽여부러야 내가 정이 있겠지 해서 숨구멍에 바늘¹⁷⁴⁾을 질렀어. 어린 아이 머릿꼭에 바늘을 질렀어.

<조사자 : 아~ 예>

바늘을 찔르니깐 그 아이는 아기는 죽었지? <조사자 : 예> 작은 마누라는 잠깐 어디 가오는 더리¹⁷⁵⁾에 아이는 죽었어. <조사자 : 예> 그러니 큰어머니보고 “당신 이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깐 “나는 안 죽였다” 자기가 죽여서 꾸며낸 말이 나는 안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했어. 내가 아들 죽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조사자 : 아!> 한 날 한시에 (?) 맞아 죽을거고,

<조사자 : 아~>

나가 후생에 태어나면은 <조사자 : 예, 예> 남편¹⁷⁶⁾이 독세¹⁷⁷⁾ 물령 죽일거고, 아기 나면 물에 빠질거고, 또 스나이 나면은 물에 돛가¹⁷⁸⁾ 더운 물에 돛가 죽을거고 그런 말이 있어. <조사자 : 예, 예>

근디 이제 그 사람이 후생에 태어났지? <조사자 : 예> 태어나니까 시집을 갔어. 시집을 가니 아마 촌인가봐. <조사자 : 예> 강을 건넜어. 저 동네 친정이라고 현디 달밤은 흰현디 그 남편네가 아기 싯¹⁷⁹⁾을 나니깐 데리고 <조사자 : 예>

이제 친정으로 갔어. 그 남편하고 친정으로 <조사자 : 아~> 가는데 물이 깊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 길이 막혀서 이! 근데 물 쌀 동안은 앉아 강믄 달밤은 시원하지? 앉아서 기다렸어. 기다린디 그 남자가 이? <조사자 : 예!> 독세 물려 죽었어.

<조사자 : 아~ 약속한대로, 자기가 약속한대로 예!> 독세 물려 죽고 이제는 울다가 <조사자 : 예> 이젠 물이 쭉 건너간디 물이 쭉 내려갔지? 내려간 이 앉으면 하난 업고 이 하난 치마통에 담아가고 입에 영 물어가지고 이 입에 물어가지고 건너가는데 큰 딸은 보고 놀랑 요기 앉아서라. 이 애기 저~것디 데려다 봐두고 내가

174) 바늘

175) 사이

176) 남편

177) 독사에

178) 담가서

179) 싯

데려가겠다. 하니가 이젠 아진디 물을 건너. 강을 건너가는다, 건너간 이제 “아이고, 엄마야!” 소리 질렀어

<조사자 : 아! 딸이 마썸?>

어, 딸이 <조사자 : 예, 예> 거기 영 보니깐 호랭이가 와서 딸을 물어 갔어. <조사자 : 예> 그니깐 호랭일 데려다가 <조사자 : 영, 영> 허니깐 아기도 물에 빠지고 치마통에 담은 아기도 물에 빠지고.

<조사자 : 저 호랭이 영 가렌 허렌 허멍 치마도 딱 해신디?>

입에 물었던 치마¹⁸⁰⁾가 이제 비틀비틀 되니까 벗어지니 내렸겠지? 내렸던 아기가 물었겠지? 그래서 죽었지? <조사자 : 예> 죽고, 현 이제 아기 되었어. 아기 되니깐 이젠 어머니한테 이젠 친절을 좇아 갈라고 가서 보니까 동네 사름이 와가지고 건너오다가 “너는 어머니 죽었다고 하니깐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왜 죽었느냐?” 하니깐 이! “언치냐¹⁸¹⁾에 불 나가지고 한날 한시에 어머니, 아버지 다 죽었다.” <조사자 : 아> 그 맹싸니까¹⁸²⁾ 다 죽었다 하니깐 앓앙 울었어. 우는디 남자가 하나 와 가지고 “나 따라와라. 나 따라오면은 살려 주겠다.”

<조사자 : 예> 그러니깐 내 죽젠 해도 할 수가 었이니 그 아기를 나서 그 시간에 이, 후생에나 둘까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남자 딱라간¹⁸³⁾ 이, 막 산중으로 올라갔어. 올라간디 아 도둑놈이라, 도둑놈.

<조사자 : 아~ 남자가 마썸?>

남자가 도둑놈인디 이! 이제 뵈을 하나하른 한번은 아길 아기 놓고 <조사자 : 예> 아기난디 막 몸을 젖영 문 열라고 문을 두드리니까 잘 나고 그니깐 해산하는 단 문 열 수 없었지. <조사자 : 예, 예> 문 이제 해산 해두고 문을 열었지. 여니깐 문을 여니까 뽕편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했느냐고 나를 계기¹⁸⁴⁾ 들여놓지 않았다고.

<조사자 : 아~ 오헬 했구나, 예!>

오헬 했어. 막 각실 두드려어. 그니깐 하는 말이 나는 아기 났으난 그 순간에 문을 못 열었다. 그러니깐 이런거 필요었다. 핏! 허고 데껴부니깐¹⁸⁵⁾ 물에, 더운 물에

180) 치마

181) 어제 저녁

182) 맹세하니까

183) 따라간

184) 빨리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피맨 물에 빠졌어. 가마 속에 들어가부렀어.

<조사자 : 아~> 그래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딸도 세 성제나 죽고 그래 죽었지? 죽으니까 이제 쪼깐 있으니까 점방¹⁸⁶⁾더레 왔어. 점방더레 와가지고 도둑놈 심으러 왔다고 심어가면서 허는 말이 이 예편네 도둑질 해다 주어 먹었으니까 이것도 심어가자.

<조사자 : 예, 예> 심어가다가 중간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거 가든 콩밥이나 맥영 맥이젠 해도 매기니까¹⁸⁷⁾ 물어뵈 가자고 물어뵈 이 예 예 남자는 데리고 가고, 여자는 일단 이, (?) 손목을 이제 다 놓고 야개기¹⁸⁸⁾만 영 내밀어 가지고 내부렀어. 그니까 울었지.

<조사자 : 예, 예> 그 여자가, 막 우는 소리 난 이, 이젠 풍천님이 넘어가다가~

<조사자 : 부처님 마씨?>

풍천님이 <조사자 : 풍천님 마씨?> 으으 <조사자 : 예, 예>

넘어가다가 이제 저디 가 봐라. <조사자 : 예> 가봐난 가 봐니깐이 야개기만 영 내밀어서 울었어. <조사자 : 예>

우니까 울어가지고 사름은 물었는데 목만 내두고 이제 물어 부렀다고 땅에 물어 부렀다고 하니까 풍천님 하는 말이 그 사람 데려오라. <조사자 : 예> 이거 파서 데려 왔지. 데려와서 이 사름은 무신 죄를 지어서 이리 됐습니까? 그래서 물었지. 물으니까 전생에 시집을 부제침이 갔는데, 아기가 없어서 각시를 었졌는데 이제 시알 해가지고 그 아길 죽여부니 큰 어멍 아기 죽였다고 막 그러니까 막 (?)했다고 저 남편은 독세 물려죽고 아긴 나쁜 물에 빠 죽고 큰 애는 또 뭐냐 범들에 죽고

<조사자 : 예> 범 물어 가고 또 뭐냐른 딸은 이제 그 아기들은,

<조사자 : 죽은 아이는 물에 빠정 죽고 예>

아기 나면은 빼넷(?) 물에 빠진다. 그니까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어마한 맹덕을 했는데 저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 죄를 좀 풀겠다고 아이 죽인 것 헌디 후생엔 또 그대로 됐다고.

<조사자 : 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저 내가 전생하는 일을 어찌 압니까? 전생에 지은 죄 용서해 주셔서 해서, 그 풍천님 따라 가서 풍천님 있는데 가서 천

185) 던져버리니까

186) 가게

187) 필요 없으니까

188) 목

국엘 갔지.

<조사자 : 아~>

7. 왕자묘 이야기

제 보 자 : 김성도(남 · 80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도근내 옆 쉼터

요약 : 광령의 무수천(도근내 상류)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로 고씨라는 한 영감이 가족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냇가로 갔는데 모래 위로 비단자락이 나와있는 것을 보았다. 과 보니 어린 아이의 시체였고 나중에 관에서 조사해보니 왕자였다. 그런데 한라산쪽으로 약 2km정도 올라가면 조그만 무덤이 여러 개 밀집해 있는데 이것이 왕자묘라는 전설이 있다. 냇가에서 발견한 왕자의 시체를 그곳에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하천에 대헌 거. 그 광령 밭을에 고씨 집안에, 고씨 집안에 부자로 살았든 영감이 하나 잇었어.

<조사자 : 광령 마을에>

응, 광령 마을. 요 외도 남쪽 마을이 광령 밭을. 적을 거 없어요. 꼭 필요하다면 기록이 있으니까.

<조사자 : 어디 책에서 본 거 얘기…….>

아, 거 들어봐야 알 일이지.

이제 그 고씨라고 하는 영감네 집이 연대에 와서 지금부터 그 약 이제는 거저 400년 되지요. 그 그때 내가 한 12살 때니깐 그 고씨 집안의 그 할아버지가 소와 말을 길렀어요. 그 옛날 우리 제주도는 축산을 아주 주 경제로 해온 시절이 있었으니깐. 그저 그 소, 말은 소나 말은 산에 방목 할 때에는 그대로 물 있는데 방목해 버리지만은, 이 사람 사는데 끌어진 때에는 하루 한 번 꼭 물을 먹여줘야 되어. 그런데 광령 마을에서 그 소를 끌고 이, 거기는 무수천이지. 이 상류가 무수천에 와서 이자 물을 먹이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은 약 유월달, 태풍이 아주 강한 때, 태풍이 아마 불어난 끝이 아니냐. 태풍 그 불면은 물론 이 하천이 꼭 차게 범람

을 허니깐 그 끝이라 모래가 많이 흘러왔다 그 말이며. 그래서 그 영감이 그때부터 말하자면 내가 지금부터 50년 전후로 보아선 350년 전에 그 영감이, 이제 소를 이 하천에다 물을 맥이려고 소를 몰고 이리 데니까 막 소가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는 데, 영감이 그저 지팽이 들고 이렇게 섰는데, 최근엔 많이 모래를 끌어다 그 모래가 쌓여난 데가 있어요. 이 홍수가 터지면은 반드시 모래가 끌어와서 인제 쌓이는 거. 그 모래밭에다 비단 자락이 하나 났다. 생겼다 그 말이야. 비단자락이 바람에 파닥 파닥 불린다 그 말이며. 그래서 그 영감이 지팽이로 소를 모는 지팽이로 모래를 이렇게 파 봤어. 파고파고 그 비단조가리를 추궁해서 들어가 보니까 연령으로 보아서 한 열 두어 설짜리 어린 아이 시체다 그 말이며. 어린 아이 시체가 그 모래 속에 묻혀 있는데 그 옷차림으로 보아서 비단으로 옷을 차려 입었으니 이것은 보통 시체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주 목사한테로 연락을 했다 그 말이며, 허니 제주목사가 나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왕자다 그 말이며. 왕자다 헤가지고, 왕자로 확인하고 그 발견한 영감에 대해서는 뭐, 벼슬하나를 농촌에서 선달같은 그런 이제 벼슬도 주고 이랬다. 이런 전설이 그 지방에 있는데, 전설이 글로¹⁸⁹⁾ 끝이며. 아, 그런가. 어떤 왕잔지 그 왕자 시체를 어떻게 했는지도 없고 그 뿐이며.

<조사자 : 무수천에서 있었던 일 마썸?>

응. 우리 고향인데.

< 조사자 : 예.>

바로 내가 사는 부근에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잇었던 말이며.

근데 그런데, 그 광령부락이라는데서 한라산쪽으로 약 2Km 쯤 올라가면은 그 분토풀(?)이라는 허는 목초지가 두 개가 있어. 그 목초지대에 왕자묘의 전설이 또 거기에도 있어. 거기서 내가 어린 때 확인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근거가 많이 이제 많이 넓지 않고 한 요 정도 헤가지고 한 여 남은 게 한 이상 쪼고만썻헌 무덤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봉분을 만들었느냐고 하면은 왕자의 시체가 거기 와서 물을 때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접촉이 되어서 거기 제주도 귀양을 왔을거다, 귀양을 와서 인자 죄인의 몸으로 묻었는데 어떤 놈이 파다가 고운 땅에다 옮겨 묻으면은 또 왕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며. 그러니까 왕이 나왔다고 허면은 또 역적으로 하니깐 누구든지 왕, 그 왕자의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이제 진짜 왕자의 무덤인지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

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

1996년, 96년에, 2월달, 2월 중순에 2월 하순이든가. 2월 하순에 제주신문에 이제 3일간 연재로 내가 기사를 내었어요. 그렇게 행 광령에 전설이 2개가 잇었는데 이걸 필연코 경세자의 아들 12살난 놈 제주도에 왔다가. 에 기록을 더듬어보니까 9월 달에 죽었어. 와가지고 오라서 얼마 안돼 가지고 금방 죽었는데 말은 병으로 죽었다 하지만은 대정까지 끌고 가서 여기에서 대정 가서, 징역 살리려고 대정까지 끌고 가다가 이 사람 많이 끄셨어요. 여, 여기다 비 오라가면¹⁹⁰⁾ 냇가에 이런 의지 할라고들 물에 쏘려서 죽었는데 똑 죽으면은 지금 그 시체가 발견된다가 걸려요.

() 그것을 내가 죽 조사했는데 그 소현세자는 약방문해서 책 보면 어쨌든 책에 나오는데 박한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양반이 이제 소현세자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내가 신문에 연재한 다음 제주신문에 연재한 딱 1년 후에다 소현세자라고 하는 소설을 상하권으로 내었어요. 그 사람이 그거 내고서, 그 자기 조상이 에, 직계 조상이 그 소현세자 암살에 참가했다는, 그런 속죄하는 의미에서 상하권을 내었어요. 전화도 해봤는데, 그 외실터로 데리고 가다가 냇가에 사건이 내는 터졌으니 해서 어디로다가 딱 아오는 끄서가지고 끄서부니까 가서 끄셨다고 하니까 그거 내볼라고 잘했지 거 인조라든지 인조 각시 그 소현이가 이제 있다가 여기 () 시체를 찾아내어가지고 저 창쇄로 올라가니까 뭐했는데 필연코 거기서 발견된 시체가 그 산쪽 2km 지점에 거기 묻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제주신문에 연재, 3일 연재로 내었는데 이걸 왜 그 얘길 허냐하면은 이 전설이라든 이런 것이 어디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게 아니고 꼬꼬만한 걸 붙잡아서 캐고캐고 들어감시면은 가치있는게 있고 가치없는 것도 있고헌디, 그렇게 해서 찾는 것이다.

8. 지명 유래 : 도근내

제 보 자 : 김성도(남 · 80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도근내 옆 쉼터

요약 : 제주도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이곳에서 실어서 토성 안으로 운반했기

190) 비가 오면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때문에 처음에는 조공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를 '도'로 발음하여 도공내로 불리우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 제도가 사라지며 도근내로 바뀌었다.

이 도근내라고 하는 것은 이 김상명씨의 그 주장이, 그 도근내, 이 내를 도근내라고 한 것을 그 왜 도근내라고 했느냐 허면은 김상명씨의 주장이에요. 조공내다 그 말이지. 조공내.

<조사자 : 이 옛날에 여기로 해서>

이 저디¹⁹¹⁾ 고성에 토성 안에 고성, 고성에서 정권을 잡고 제주도를 다스린 것이 똑 100년이며. 김통정이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에 김방경이한테 이제 토벌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 이어서 흠보라는 양반이 거기 정권을 수립했는데 제주도를 다스린 것이 똑 100년을 했어. 100년. 그래서 최영 장군이 와서 그 세력을 꺾어붙었는데 그 동안은 이 지도내에서 보면 토성에서 요 다리 있는데까지 꾸썩~ 길이며. 이주 직선. 그땐 뭐 길이 뭐 없는 때니깐 자기네 마음대로¹⁹²⁾ 꾸썩 직선으로, 여기서 제주 전체의 거 세금을 받으면은 여기서 실어가지고 그 토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 건디 그 세금 받는 것을 조공이라고 허거든. 조공 받친다고 그래. 조공이란 건 지금 글자로 '아침 조' 저 공, 공업 고등학교라는 그 공업이란 '공'자하고 위에 패적패를 붙여서 '공'잔데 조공이란 것은 세금이란 말이거든. 젠디 그 '조'자가, '조'자가 자자 저저허는 '조'를 모음으로 하는 '조'가 아니고 다다더더하는 이 '도'아래 다음자 두 그릇 헌 그걸 도도더의 발음이거든. 더의 발음을 'ㄷ'쪽으로 발음을 하면은 도해서 발음이 나온다 이 말이며. 이 이북 사람들은 중국하고 가까워서 대개 이 아침 '조'자를 '도'해서 발음을 하거든. 그래서 도공내 도공내 하는 것이 쪼끔쪼끔 이제 도공이 그 제도가 이 없어져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자 도공내, 도공내 하는 것이 도근내로 변한 것이다. 도근내로 해서 동착서착¹⁹³⁾하는 것은 외도, 내도 이렇게 나온거다. 그래서 조공내라 해서 나온 것이 도근내다. 그 김상명씨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 말하자면 건 그 틀림없는 사실이고, 어 아침조자에 조공인데 중국에서는 도해서 발음을 한다 말이에요.

191) 저기

192) 마음대로

193) 동쪽 서쪽

9. 토성 쌓기(가혹한 삶)

제 보 자 : 김성도(남 · 80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도근내 옆 침터

요약 : 김통정이 원나라에 대항하여 제주도로 와서는 토성을 쌓게 되었다. 그런데 이 토성 쌓기에 동원된 도민들의 삶이 어쩌나 힘겨웠던지 토성 쌓는 도중 똥을 싸면 자기가 뒤돌아 보기도 전에 누군가가 와서 주워 먹었다는 얘기와 길에 서있는 개황낭 보고 너도 언젠가는 세금을 내야할 것이라는 뼈있는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한다.

<조사자 : 이쪽에 아까 할아버지 말한 그 김통정 장군 있잖아 예?>

예?

<조사자 : 김통정 장군>

어, 김통정.

<조사자 : 뭐 그 장군에 관한 얘기는 뭐 전해지는 건 없고 마썸?>

예, 뭐 그 전해지는 건 보통 그 어떤 제주도의 기록이 순수한 기록은 예, 무슨 서적이 있느냐고 하면은 예, 제주도에 대한 서적이 하나가 있어요 거참 말이 느려서 예, 하나 있는데 제주시 광산 김씨가 썼다고 하는데 예 그 책 하나가 있는데 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 목사니 이제 김상언 어사니 해서 남사록이니 뭐니 나왔지만은 저런 제주시 사람이 쓴 것은 그 뭐라 그런 나한티도 그 책이 있는데, 거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그 김통정에 대한 기록이 거기 나와요 기록에 김통정.

<조사자 : 할아버지는 뭐 그 읽은 거 말고 들은 얘기 없고마썸?>

예?

<조사자 : 읽은 거 말고 들은 얘기마썸. 그 장군에 대해가지고.>

예, 뭐 읽은 거는 어린 때 다 귀로 들은 것을 좀 나이 많이 해서 좀 (옥)아서 옛말로 하면, 좀 자라나서 책으로 본 거고 그때부터 건 다 보통 아는 게 그거지 무슨, 다 정해진 학생들도¹⁹⁴⁾ 다 건 들었을 거야 보통. 일단 우리가 응 저 원 원나라에 쫓겨가지고 정부가 강화도로 와서 오래 버텼지요 한 20년간 영 버티니까 천지는 이 저, 저

194) 학생들도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원나라 천지여. 임금이 다 원나라에 그 저. 강화도에 강 곱아부니까¹⁹⁵⁾ 그래도 강화도 쳐들어가지 못하니깐. 경 헛다가 하도 오래고 허니깐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항복해서, 항복해서 들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건져야 된다.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여. 삼별초,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해 가지고 삼별초라고 해서 별도군제 했는디, 그 군대가 이제 김통정이 우에서 김통정이 제 2인자거든. 제 1인자로 해 가지고 반항을 했어. 항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항복 안 한다고 해서. 딴 임금을 세우고 나온 것이 광주에서부터 막 쫓겨 쫓겨 진도에 와서 썩다가¹⁹⁶⁾ 진도에 와서는 제 1인자를 눌러 버리고 제 2인자인 김통정이가 거느려서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래서 고성에 자릴 잡았던 말이야. 이 고성¹⁹⁷⁾엘 자릴 잡고 이제 김통정이가 제주도 와서 항거한 것이 딱 2년 반이여. 내가 계산해보니까. 2년 반인데, 2년 반 사이에 거의 다 토성을 쌓아졌을 거냐 하는 게 문제로되, 김통정이가 탁 쌓다고. 그 전설은 윈고 허니 제주도민을 전부 모여갔고 이제 동원시켜서 토성을 쌓아 노니깐 백성은 먹을 것도 없고 그디 강 그 일만 자꾸 시켜 노니 그 당시에는 그기 일하다가 대변을 보고 싶으면 대변, 대변을 보아서. 그 대변을 돌아앉아서 봐릴(볼) 겨를 없었다고 해. 어떤 놈이 지켜 섰다가 확 좇어 먹어 버린단 말이여¹⁹⁸⁾. 얼마나 험악한 살림을 살아왔기에 그러한 전설이 남았느냐 허는 거지. 그래서 그때 한 얘기라고 그래요. 길 어염에¹⁹⁹⁾ 개광(?). “너는 개광, 너는 자유롭게 길가에 가만히 앉아서 있지만은 너희 개도 언젠가는 무언가 이제 과세. 세금을 내라고 닥달할 때가 있을거다.” 개광낭 보고 그런 얘길 했다는 거여. 그 거 두 가지. 똥을 싸가지고 자기가 돌아앉아서 봐리기 전에 딴 놈이 좇어 먹어 붙었다. 길가에 핀 개광낭 보고 너도 언젠가는 세금 부담을 받아야 될거 다하는 그런 얘기. 그것이 그 토성을 쌓을 때 나왔다는데 예, 김통정이가 제주도 와서 2년 반쯤 밖에 견디질 못했거든.

195) 가서 숨어버리니까

196) 싸우다가

197) 지명이름

198) 주워먹어버린다

199) 옆에

10. 효자 이야기

제 보 자 : 김성도(남 · 80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도근내 옆 쉼터

요약 : 광령의 김대식이란 사람은 '돈'을 사러 갈 때, 어머니를 업고 갔다. 그 리곤 틈을 내서 밥을 얻어다가 어머니를 공양하였다.

광령이라는 데는 김대식이라고 해서 효자가 있었어요.

<조사자 : 이 동넨 없고 마썸?>

예, 이 동넨 그런 전설 없어. 그저 뭐냐 돈을 산다 그러거든. 돈 산다. 지금 말하자면은 병역의무, 병역의무를 젊은 사람이 할 때에 그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어머니를 업고 갔어요. 지게에다 지고 가 가지고 어디 그늘에 놔두고 이제 돈 사다가 그 틈 타서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다가 자기도 먹고 어머니고 멕이고, 돈 다 끝나면은 이제 또 지고 나왔다고 해서 김대식이 예도 있고, 전설이 있어요. 그건 기록에까지 남았어요.

11. 묘 찾아주고 출세하려던 이야기

제 보 자 : 김성도(남 · 80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도근내 옆 쉼터

요약 :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 한 외도 사람은 높은 벼슬을 하는 대감 집에 머무르게 되고 우연히 그 집안에서 선묘를 찾는다든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서울로 올라오던 도중 안동에서 들은 무덤 이야기를 생각해내고는 그 묘를 찾아주었다. 대가로 여러 벼슬들을 주겠다고 했으나 더 큰 벼슬을 바란 그는 한 사코 사양한다. 그러나 결국 그가 묵고 있는 집안이 정과 싸움에 밀려 몰락하면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고향 제주로 내려오게 된다.

<조사자 : 이 동네에서 특별하게 뭐 전해지는 얘기 같은 거 었우과?>

하나가 있는데.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무슨 얘기 마썸?>

이 동네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건디 내가 알고 저 1동 영감이 반쯤, 반쯤 알아가지고 반쯤 얘기하는걸 들었어. 아. 이 영감이 반은 아는구나. 그래도 그 영감은 아주 돌아가신지 오래지만 그 영감밖이는 그 얘기도 아는 사람도 있어.

<조사자 :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은 거 마썸?>

응. 나는 근본적으로 그 얘길 잘 알지. 내 그 얘길~

<조사자 : 그니깐 그거 한번 돌아봅써.>

한번 들려주지 이. 학교 서쪽으로 가면은 거 길 학교 서쪽에 길이 있거든. 길 서쪽에 부잣집 하나가 있었어요. 부잣집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무엇을 했느냐. 감상관을 했어.

<조사자 : 감상관?>

감상관이엔 하는 것이 뭐 말이냐 허면 여기다 이 논이 있는데 여기 관답이 있었어요 어느 건지 어느 관답인지 여기 사라진지 오래되영 모르지만은,

<조사자 : 관답이 뭐하는거 마썸?>

나라의 논이여. 나라의 논.

<조사자 : 아~>

나라의 논이 걸 백성이 가서 벌면은 가서. 감상관이 가서. 거 수확 얼마 나오겠다. 거기까 너 얼마 먹고 얼마는 나라에 받치라는 그걸 받아 올리는 것까지 감상관이여. 했는데 김씨라는 영감이 살았어. 영감이 살았는데, 혹시 내가 이런 얘길 해서 여러분들이 시대가 오래니깐 그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은 그 이종 사촌인 조천에 고순흙이라고 있어요.

<조사자 : 고순흙>

고순흙허면은,

<조사자 : 흙마썸?>

예. 순흙. 일정 때에 항일 운동가야. 무정부주의 사상에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깎으지 않고 이까지 길르고 다녔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고, 자기 자신이 항일 운동가노라고 음. 했지만 뭐, 그 시람이 옥고를 얼마나 치뤘느냐 하는 것은 모르겠고 그 아버지가 고순흙이 아버지는 말하자면 구한말이지. 아직 그 구한 시대 우리나라 이름이 바뀌기 전에 과거를 봐가지고 문과에 급제를 해서 에 문과에 급제하면은 급제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자 뭐 어디 문묘같은디 그 아마 돈, 큰 벼슬은 못 살

있던 모양인데 하다가 어디 모랑에(?) 가서 글 그만두고 모랑에 가서 아이들 모여놓고 글 시키다가 석유 시대가 나니깐 석유하고 모기장하고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나서 그 영감이 죽어 붙었어 이. 그 영감하고 인제 이디 그 김씨 부잣집 아들이 사촌 형젠디, 그 그디 이제 형님뻘 되니깐 “나 과거 보래 갑니다.” 이러니깐, “강 잘 큼직한 벼슬이나 하나 얻고 오게.”에 가불라. 이 양반이 이 강진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경상도 쪽으로 해서 벼슬을 올라 올라가는데 안동을 들어갔어요.

안동을 들어가서 안동 그 안동 시가지를 이렇게 눈앞에 내려다보면서 바깥쪽으로 외곽인데 영 앉아 보니깐, 앞에 못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여. 날은 저물어서 이 안동거리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집을 하나 붙잡아서 저녁에 유숙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있었는데 절루다²⁰⁰⁾ 하얀 영감이 하나 내려오는데, 오다가 이제 그 제주도 외도 김씨가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라. 담뱃불 가졌느냐고 하니깐 가졌다고 담배도 권하고 이렇게 했어. 그 영감이 유식헌 영감이었어. 헌디 조기²⁰¹⁾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저기 묘하나 보이지 않느냐.” “보입니다.” “저기가 안동 김씨 묘라 허는데 지금 아마 저 자손이 어느 우의정인가 좌의정을 헌다고 그래. 저 까딱시 자기네 조상묘를 잃어버렸다고 그래.” “이 못에 전부 아마 이 못에 왕 돌렸단 말이 있어.” 그 얘기가 “아 그렇습니까?” 심겁게 들으멍 웃었던 말이여. 이제는 거기서 밤을 자고 서울로 아장아장 올라가서 과거를 보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보니 아무렇게나 갔다간 () 그 말이여. 시관, 말하자면은 그 과거의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합격,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직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우의정인가 좌의정네 김씨네 집을 찾아갔어요. 찾으게 되었어. 찾아가가지고 식객으로 들어갔는데 거 식객으로 들어가면은, 다 들어가서 그 밥을 해주기 때문에. 식객으로 있었는데. 거 그 뭐 그 집에 들어가서 식객으로 들어 갔지만은 그 집 주인을 만나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여. 만나볼 수가 없어. 진디, 낮에는 이렇게 놀다가 보니깐 뒤에 별장을 따로 초가집, 초별장을 지었는데 사람이. 요렇게 모여 앉아서 친족들이 모여 앉아서 뭐 족보 관계로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논의……. 이렇게 가만 앉아서 들어보니깐, “우리 옛 대 조상 할아버지가 묘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이 기회에 어떻게 그 묘를 찾아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여. “이게 지금까지도²⁰²⁾ 못

200) 저쪽으로

201) 저기

202) 지금까지도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찾았는데 이게 어떻게 찾겠느냐 말이지. 그 허드렁한²⁰³⁾ 소리 건 가치가 없는 소리다.” “이제까지 못 찾아서 찾아야지. 이렇게 어. 큰 벼슬까지 허는 집안이 아니 조상 묘 뻔히 잃어버려둔 거 내뿜어서 쓰겠느냐?” 그건 그것이 문득 생각이 났다 그 말이 여 하 그 묘가 안동 영감에게 들은 그 얘기가 그게 그 묘가 아니겠는가 허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외도 영감이 인제 가만히 생각, 생각을 했어. 웅 인제는. 내가 이 영감에게 그 묘를 찾아줘서 그 덕택에 과거를 톡톡히 하나 해야되겠다.

벼슬도 얻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주인 비서를 통해 가지고 이 얘길 어떻게 거론되영, “내가 이 주인 대감께 꼭 할 얘기가 하나가 있으니 당신이 주인대감께 그걸 전해주시오” “뭔 얘기가?” “집안 애긴데 중요한 얘기라고. 중대한 얘길 내가 하나 여쭙 것이 있으니깐 이 대감하고 나를 면회를 시켜주시오”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만나 뵙게 내가 얘길 해 보겠다.”고 그 비서가 좌의정 영감에게, “저기 제주도에서 온 과거 보례 온 식객 하나가 대감님을 꼭 만나뵙겠다고 합니다.” “무슨 때문에?” “뭐 집안일,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내일 퇴청해서 오거든 거 밤 오래서 저녁에쯤²⁰⁴⁾ 되거든 아무도 모르게끔 술짜²⁰⁵⁾ 내방으로 들여보내라.” 이제 제주도 거 김씨 양반이 그 좌의정 방에까지 들어갔어. “거 자네가 제주돈가?” “그렇습니다.” “자네가 특별히 나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가?” “제가 이 가만 후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들으니깐 후원 초당에서 문중 회의를 해 가지고 갑론을박으로 다투는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를 실했었다는데 제가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니가 어떻게 해서 그 우리 집안에 그 실했은 것을 찾을 수가 있느냐?” “아, 어쨌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있거라.” 게서 뒷날은 그 주인 양반이 문중회의 일부로 나갔어. “저 식객으로 와 있는 저 제주 사람 하나가 우리 실했은 묘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제주 사람이?” “아니 어쨌든 꼭 찾을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거든 만일 그 놈을 보내어서 우리 묘를 찾지 못하면 건 집안의 큰 실수다. 실수가 되지 않도록 술찌기 잘 달래어서 가서 찾은 다음에는 아무래도 되지만은 찾지 못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안 거 제주 놈한테 뭐 벼룩맞은²⁰⁶⁾ 그런 허술한 집안이라고 헐터이니 잘 알아서 자네가 처리하게.” 그럼 이제는 그 좌의정 되는 주인 양반이 ()해가지고

203) 쓸데없는

204) 저녁 쭈

205) 살짝

206) 바람맞은

경상감사에게 소개장을 썼어. '이 소개장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아주 비밀리에 잘 대접도 하려니와 원하는 일 감쪽같이 다 후원을 해줘라.' 그런 것을 딱 써가지고 딱 보내니깐 경상감서²⁰⁷⁾. 지금의 경상도 이. 도지서지. 경상감서에게 이제 가져가고 여비로 엽전 몇푼을 집어줬단 말이여. 이러니깐 거 뭐 참 여행치곤 아주 일등 좋은 여행을 경상도로 내려오는거여. 내려와서 경상감서에 떡, 가가지고 떡 내노니까 아이고 경상감서에게 오꽃²⁰⁸⁾ 일어성 흙치²⁰⁹⁾ 절하고 "어,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애기만 허면은 다……." "내가 이거 안동이라는데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안동 원님에게 소개장을 써주시오" "아 그러십시오" 안동, 이제 경상감사가 안동 군수에게 뭐라고 행 가니깐 이 사람이 이제 안동으로 가니깐 뭐 일이든지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을 다 들어주라 이랬어. 이제 그 소개장을 가지고 안동 군수에게 가 뵈니깐 안동 군수가 과들락하게²¹⁰⁾ 일어사고 허번디(?) 절하고 아주 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서, "무슨 일입니까?" 허난, "내가 객사에서 누웠다가 내일 아침엔 뭐 아무건데 몫시차건 연못이 하나 있다, 있소?"하니깐, "게민 난 그 연못으로 부락 아낙네들은 바가지 하나씩 다 가지고 나오게 해 주시오" "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 뭐" 허난, "그렇게만 해달라." 이제 그 못에서 기다리노렌허니 아낙네들이 바가지 하나씩 가지고 그 못가로 쪽 모여 왔거든. 당신네들이 이 못에 물을 퍼달라고 하니깐 거 뭐 어딘지 거던지 해가 그 못에 물을 전부 바가지로 망무더기로(?) 퍼낸단 말이여. 현 12시가 거저 되가니깐 못에 물이 배질배질허게 이제 거즘²¹¹⁾ 허니까 이제는 그 제주 김씨 양반이 7치²¹²⁾ 못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급에서²¹³⁾ 이렇게 그 비석, 동자석. 이런 것이 이시냐 어시냐 더듬는단 말이여.

막 더듬으니깐 아따 댔다고 이제는 그 물푸던 아낙네들을 전부 돌려 보내불었어. 비밀리에 혈라고 하니깐. 다 돌려보내두고 자기만이 남아서 그 송모루(?) 옆으로 卍서다²¹⁴⁾ 보니깐 비문이 완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말이지. 그니깐 그때 서서 다녔으니깐 이제 종이랑 붓 내놔가지고 비문을 쪽 이제 베껴 썼는데, 건디 비문 보니깐 안동

207) 경상감사

208) 벌떡

209) 아예

210) 화들짝하게

211) 거의

212) 같이

213) 속에서

214) 끌어다

김씨 선묘가 맞거든. 이제 비석 다 비문 베껴 써서 흙 이제 묻어두고 화닥닥다 출려서 서울로 인제 직행으로 달려왔거든. “거 자네 갔다왔는가.” “예. 갔다왔습니다.” “어떻게 됐는가?”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들어가서 비문을 쪽 베껴 쓴 것을 툇 내놔서 내노니깐, “하이고 거 우리 조상이 맞다.” 아, 경 행 그 문중회의들을 열어서 그 집안의 대경사가 됐거든. 허니깐 이제 그 좌의정이 직접 거동해가지고 그 못에 가서 친족들이영 가서 그 비문 전부 이어다가²¹⁵⁾ 그 산에 다시 이제 치성을 해가지고 잘 이제 해냈는데 이젠 돌아와서는 이 제주 김씨에 대한 보수 관계가 문제단 그 말이여.

“자네에게는 어떻게 그 공을 갚아야 되느냐?” 하니깐, “제가 원래 올 때는 과거나 하나 할려고 왔습니다. 경하니깐 대감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 그러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뭐 에 지금 정의원 자리는 하나가 있어.” 정의원은 그 정의군수 말이거든. 한 마을이니깐 그게 정의군수를 하라니깐은 별 생각이 없다는 거여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 대정 군수가 나왔어 대정군수는 나온게 아니고 대정군수를 치워버리고 치와두고 “거기를 자네가 이제 군수로 가게.” 허니깐 “조금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한 것은 뭐냐고 허면은 제주에 제주에는 목사를 이제 저기에, 뭐라고 그럴까 예, 제주에는 제주도 그 대정에 군수, 정의에 군수, 모관탐관(?). 모관탐관이라고 해서 예, 제주를 관할하는 모관탐관 자리를 그 제주목사 아래에다 모관탐관 정의군수, 대정군수 서이다²¹⁶⁾하거든. 그거 모관탐관 하나 벌어볼라고 아 거 조금 기다리겠다고 경헌디 그 그 모관탐관 당장 목을 잘라야 되니깐 목 잘르지 아니민 좋은 자릴 내주질 못하느디 거니깐 기다리는데 이젠 틀림없이 될꺼다 생각하고 옷 몬딱 뺄스까지 다 벗고 ()까지 가만 행 누웠는데 밤중에는 와~ 와~ 하는 소리가 나서 화딱 겁이 나서 화재가 났구나 해서 뛰어왕 나왕 보니 집 네 가지에 다 불이 붙으고 방 모두가 다 불이 붙으고 거 뭐냐면은 정치싸움에서 정권싸움에서 말하자면은 그 정과가 패망을 당한거라.

<조사자 : 웅>

게니 그 김정순이 거기서 이제 몰락을 당한거지. 게 김정순도 다 달아나고 산지도 격어정 제주 김씨도 거기서 어떻게 헤여 이젠 거지가 되가지고 내려올 수밖에 막 너무 이제 흑세무민 했다고 해서 쫓겨나니까 그 김씨는 과거 볼 정신도 엇고 그냥 허둥

215) 가져다가

216) 세 개다

지동 제주도로 내려와서 화북에 딱 가니깐 그 고순흠이 아버지 사촌형이 왔다가 “나는 () 을 해서 거기서 () 까지 밖에 못했는데 그래 자네는 뭘 벼슬을 하고 왔고?” 대답도 아니하고 머리 슬면서 외도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하자면은 나라에서 그 정과싸움 때문에²¹⁷⁾ 많이 욱 본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도 간혹 이 동네 사람 하나가 죽건살건 공부를 하고 과거보래 갔다가 그런 욱을 봤다고 그래.

12. 월대를 좋아한 어느 선비

제 보 자 : 김성도(남 · 80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28일

조사장소 : 도근내 옆 쉼터

요약 : 동근 달이 떠오르는 월대의 경치를 좋아한 금릉의 박영이라는 사람은 친구들을 데리고 술과 안주를 지고 월대를 자주 찾았다.

<조사자 : 옛날엔 여기 월대 막 월대도 여기 이제 촌에서 선비들 옛날에 막 시 짓고 행 월대팔경도 있고 막.>

월대 팔경이 무슨 말이며. 누계 하나가 거 한문 거 하는 사람이 그거 써그네 덩거 그네 월대 팔경이 무슨거니 뭐니 하는거여 난 무식하니깐 건 모르고 이 월대가 이 여름 이 음력 가을쯤 되면은 이 보름쯤이 돌이, 만월이 둥그렇게 떠올라요. 만월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면은 여기 앉아서 춤 술먹기가 좋으니 그래서 이건 일정 때에 이 동네 유자들이 만들어 논 거고 이 비슷하게 공걸이²¹⁸⁾ 어디 있었어. 그냥 작지로²¹⁹⁾ 헤가지고 매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일 머리 큰 양반이 여기 와서 술먹었, 여기를 애끼고 이 경치를 좋아해서 여기 왔다는 것이 말하자면은 에~ 그저 뭐 박영이여 금릉리 박영이 사람 금릉리 박영이 사람. 그 양반이 제주도에 유배를 왔을 때에 여기를 자주 왔다는 얘기여. 거 그냥 그렇단 얘기지. 술을 지고 친구덜 데리고 제주시에서 술 대바지(?) 허벅에다 지고 안주지고 해서 걸어서 뭐 발탁발탁 여기 이제 거저

217) 때문에

218) 시멘트 바닥

219) 자갈로

여기 와서 먹었노라고 그러더라고.

<조사자 : 경치가 좋으니깐.>

13. 도채비 이야기 1

제 보 자 : 박춘해(女)

조사일자 : 2000년 7월 29일

조사장소 : 외도 1동 마을회관

요약 : 허벅을 지고 물을 길러 갔다가, 다리가 없는 도깨비를 보고 기겁을 하여 돌을 몇 번 두들기자 도깨비가 도망갔다.

연날 도채비들은 하난²²⁰⁾.

<조사자 : 저 다리 옆으로 덩치 이만이 현 허깨비마씨?>

도채비이,

<조사자 : 예.>

그 도채비가 혼 네시 반이 물 질레²²¹⁾ 가단 보니까~

<조사자 : 물질, 할머니 물질 하서나수과?>

응, 옛날은 허벅으로 물, 수돗물 얻어났주게.

<조사자 : 아, 예 예>

혼 스오십년전인, 게난 저디 물 나는데 밤이 현대 시메(?) 물질레 간 보난 도채비가 이디 영 행 수건 싹고, 사람인가푸덴 이~

<조사자 : 수건 쓰고 예?>

아이고! 막 이제 제게²²²⁾ 가서 나가.

<조사자 : 예>

이제는 그때는 둡²²³⁾ 우는게 현이라(?). 시게도 얻어²²⁴⁾.

220) 많았다

221) 물 뜨러

222) 빨리

223) 닭

224) 없어

<조사자 : 예>

시계도 으선²²⁵⁾. 둥 올때만 허벅으로 물 질레 가단 보난 일루영 알르시(?) 수건
가지랭이²²⁶⁾ 싹고 영 행 가지랭이 가난,

<조사자 : 예>

난 사람인가푸텐.

<조사자 : 예 예>

물통에 돌려간보니까 이, 도채비랑 말앙 춤 사람이랑 말앙 아무것도 엇어. 허께!

<조사자 : 아!>

도채비 돌아난, 경허난.

<조사자 : 예>

닥~닥 두들연 그냥 물도 그냥 안 질고 그냥 집이완, 따신²²⁷⁾ 경 밤이 안 가나서,

<조사자 : 아 계난 딱 봐신디 다음에 딱 또 보니깐 엇어저분거마씨?>

응, 들어간거. 물통에 들어간 거.

<조사자 : 아, 쟁 그냥 딱딱~>

이디 이디 이디, 발이 엇어. 그냥 중간에 영 행 놀앙 퍼뜩퍼뜩.

<조사자 : 아, 할머니 영 보명으네>

어, 나 즈름에²²⁸⁾ 가는디 이디서 저만인 가.

<조사자 : 아~>

경 간보니까 옛날은 그 둥 올명, 시계 엇어 낫주기게.

14. 줄레장군 이야기

제 보 자 : 김정순(남 · 84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재조사)

조사장소 : 외도 1동 부영아파트 103동 910호

225) 없어서

226) 가지런히

227) 다시는

228) 뒤에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요약 : 힘은 있는데 키도 작고 몸집이 작아서 활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힘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줄레장군이라고 별명을 지었다.

그 활쏘는 장군이 키도 작고 혼날은 활을 쏘 봉간 그냥 동동 떠가지고 저래 그냥 막 돌아가, 돌아났단 그 전설이 있어. 웬 그러니깐 건 힘, 힘은 있는데 키도 작고 신체가 작으니까 활을 쏘 빠니까 그냥 그 힘에다가 사람이 등등 뜨면서 그냥 돌아나는 거라, 게 그 전설이고 건.

<조사자 : 예. 그 사람을 줄레장군이렌 해마썬?>

응, 게난 줄레장군 그 벼슬을 그냥.

<조사자 : 거 벼슬이름 마썬?>

응, 아이 줄레장군이다 이렇게 그냥 별명을.

<조사자 : 아~ 별명>

어, 별명, 별명이라고 허라고 그렇게 그냥.

<조사자 : 사람들이 경 행 불려마썬?>

음, 음.

<조사자 : 줄레장군 말고예 그 사람 영 활 못 쏘아난 사람이고 활 잘 쏘아난 사람은 엇우과?>

그거 쏘아난 사람은 그건 일음²²⁹⁾을 기억칠 못하지. 할 수가 없고

15. 세 선비의 내기

제 보 자 : 김정순(남 · 84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재조사)

조사장소 : 외도 1동 부영아파트 103동 910호

요약 : 짐동산에서 세 명의 선비가 술 한통을 걸고 무덤에 다녀오기로 했다. 무덤에 다녀온 증거는 무덤에 말뚝을 박고 오는 것이었다. 그 중에 한 선비가 자진해서 무덤에 갔다. 무덤에 가서 말뚝을 박는데, 두루마기 고름을 같이 박았다. 말뚝을 박고 일어서려니까 당겨서 감짝 놀랐다. 그 선비는 도깨비가 하는 장난인

229) 이름

줄 알고 놀랐지만, 나중에는 두루마기 고름을 빼고 돌아와서 술 한통을 얻어 먹었다.

<조사자 : 또 여기 뭐지 짐동산...> 어 <조사자 : 거기서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도깨비 행으네 거 선비 세 명이> 어 <조사자 : 그 무덤에 강 뭐 영 행 오는거 그 애기 어저께 해줬잖아 예~> 어 <조사자 : 그 애기도 한 번만 더 해줄써.>

그거는 여기서 앉아서 어, 노는 사람들이 놀다가 밤에, 밤중에 한 열두시 넘언 어떻게 어떻게 해서 놀다가 누가 거기 짐동산에 가가지고 어, 가 올 사람이 잇이면은 술 혼통 내겠다 해서 그렇게 내기를 쳤거든. 그니깐 혼 사람이 어, “저가 가 오겠습니다.” 술 혼통이나 허니까 어 맞았다고, 맞았다고 말이지. 혼 사람이 나가서, 옛날엔 그전 이렇게 막은 옷 벗고 이렇게 영 흐지 안 행 똑 두루막을 출리꼭²³⁰⁾ 행 덜 그냥 노는 사람들도 놀고, 이렇게 허난에. 두루막을 입은 채 그냥 나갔거든. 아장 그디간 말뚝을 박는디 거 두루막 저 치메 갖다가 ㄴ치 놔서 그냥 박아져서.

<조사자 : 두루마기 영 자락을?>

어, 아니, 자락이 아니고 거 저 곱²³¹⁾ 옛말로 허민 곱이엔 허는디.

<조사자 : 곱마씨?> 어, 곱! <조사자 : 곱?> 어, 이 창 멘드는 이거 침보고 옛날엔 우리가 곱이엔 현다. 저고리 곱, 무신 치마 곱. <조사자 : 아, 예 예> 아, 그러는 디이! 폴랑 허연 일어나선 우뚝 허난 그냥 종긋으로 잡아 땡겨져부런. 사람이 겁이 나서 그냥 자빠질거 아니라! <조사자 : 예> 자빠져서 그냥 해서 일어난 이제 이젠 그걸 빼고 갱 또 오랐는데 친구들한테 술을 혼통이 받아먹언 전설이고건.

16. 지명유래 : 우령(牛嶺)

제 보 자 : 김정순(여 · 84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재조사)

조사장소 : 외도 1동 부영아파트 103동 910호

요약 : 우령산은 소가 누운 지형이라고 해서 우와(牛臥)동산이라고도 부르고,

230) 차리고

231) ‘웃고름’의 준말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어미소가 있으니까 송아지가 있는데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돌아보는 지형을 어
독고모형이라고 한다.

우령산, 우령산이라 하는 것은 저 우왓동산이 소 누운 동산 지형이 췌 누운 동산
으로 일음²³²⁾을 지와가지고 이 췌 누운 동산이라 하니까 우왓동산, 우왓동산, 우령산,
우령산 보통 불르긴 우령산이라고 그냥 부르지. 그런데 그거 지난 이야기고, 모을 일
음을 우령리라고 그냥 부르고, 그 뒤에다가 그 우령 소가 그렇게 큰 예미소가 잇이
니깐 예미소에 어린 송아지가 있어야 되거든. <조사자 : 예> 게난 어독고모형이, 인
다고 해서 그냥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돌아보는 형태가 되서 거 그것이 지리사가 봐
가지고 거 산 옛날에는 산터대를 불라고 하면 지리사를 돌아가지고 산터를 봤지. 갱
그것이 잇고, 응, 외도 지형에 대해선 그뿐이고.

17. 신씨네 묘자리 이야기

제 보 자 : 김정순(남 · 84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재조사)

조사장소 : 외도 1동 부영아파트 103동 910호

요약 : 셋동산에 외도 1동에 먼저 들어와서 살았던 신집에서 소의 배 부분에
무덤을 써서 그 집안에 천식을 앓아서 기침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조사자 : 그 우령, 우왓동산이나, 예. 그 셋동산인가?> 음 <조사자 : 거기서는 뭐
어떤 일 있어났던 하는거 못 들어 봤우과? 옛날에 뭐 도깨비라도 영 나타났져 막 그
런거.>

그런 것도 없고, 원 없고. 거 이제 셋동산에 신침이서 여 외도 일동에 김침하고 신
침이 그냥 우선 들어와서 살았는데~

<조사자 : 맨 처음 들어왔?>

응, 살았는데 거 신침 조상이 거기 묻어서.

<조사자 : 신침 조상이 거기 묻힌 마씨?> 어 <조사자 : 거기 우왓동산에?> 어 <

232) 이름

조사자 : 예> 우왓동산에, 경 해부는데 지리사 예 오랏는다 췌²³³⁾ 굴칩²³⁴⁾(?)이레 그 산을 세와 노니까~

<조사자 : 췌 어디마씨?> 굴칩이라고 이 <조사자 : 옆구리?> 어 배! <조사자 : 배?> 어, 배 옆이 옆이다가 세와, 옆이다가 세와 노니까 천징허는 사람이 많아서.

<조사자 : 좋아하는 사람이?> 천징 <조사자 : 천지?> 천식 <조사자 : 거 뭐마 씨?>

홀롱팔매비라고 지침, 험 험 해면서 그냥 지침허는 사람이 많으면.

<조사자 : 아, 병같은거?> 응, 폐 폐를 <조사자 : 아, 폐가 안 좋음?> 응, 폐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걸 어 거기에서 췌 굴치 해부난 천식이 많다 이런 그 전설로서 그냥 말이 나왔고.

<조사자 : 신침이서는 그 무덤 팡으네²³⁵⁾ 뭐 판대로 영 옮기고 하지는 않겐 마 씨?>

응, 아니 아니 아니라서 아니라, 그건 어, 누가 그 동네에서 우시게로 해서 그거 전설로 내려오는 말 같아.

<조사자 : 전설>

18. 탐 이야기

제 보 자 : 김정순(남 · 84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재조사)

조사장소 : 외도 1동 부영아파트 103동 910호

요약 : 지리사가 외도 아랫 동네가 허해서 가난하니까 탐을 쌓으라고 하였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20미터 정도의 돌탐을 쌓았는데 4·3 사태에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조사자 : 그 옛날에 요기 뭐 알 동네에 어떤 영 그런 지관 영 행 보는 사람이> 어 <조사자 : 뭐 아랫 동네가 영 허하덴 행으네 뭐 탐 쌓으른> 어 그거 <조사자 :

233) 소(牛)

234) 허리의 좌우쪽 아래의 잘숙한 부분

235) 파서

된덴 행으네 그건 뭇과?>

그때 지리사가 말하니깐 <조사자 : 그거 언제쯤에 마씨?> 건 아니 처음 외도 생기, 우령리가 <조사자 : 생길때?> 생겨날 때 이 알이²³⁶⁾ 허하거든. 어 이렇게 무시름 허게시리 그냥 다 어, 바위가 허이아니(?) 그냥! 부자촌으로 부촌으로 되었는데 알이 허하거든 북쪽이 허하니까 저기는 그 탑을 쌓아야 음! 부촌이 되겠다 생각허면 탑 쌓아놔주게. 게난 그 탑은 스타에 성 다우면서 다 돌로 갖다단 써버리고 그러니 그거 뿐이고.

<조사자 : 탑은 뭐 돌멩이로?>

어, 돌로게~ 돌로 해서 이 어 구들만이씩 건 싸면서 그냥 울어레 그냥 높이 그냥 흔 아~ 메다로 보면은 흔 이십메다 높이는 쌓지.

<조사자 : 게 할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그건 있었고 마씨?> 어 어.

<조사자 : 음, 그때 4·3 사건때 다 없어져부런 마씨?> 어, 다 없어져불고.

<조사자 : 거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왕 쌓은 것과?>

성은 그냥 우리 동네 사름, 우리에 사름으로 전부 행 쌓주, 그건 <조사자 : 우령리 사람들하고?> 어, 성을 쌓아서 그냥 그 공비들을 방비, 방비했주거. 이러한 공비들이 밤인 오라선 곡식덜 막 집이 들어간 털어 가고 우마들 시난 우마들도 끄서단 잡아 먹어 불고 그래 이말이라.

19. 김통정 장군

제 보 자 : 김정순(남 · 84세)

조사일자 : 2000년 7월 30일(재조사)

조사장소 : 외도 1동 부영아파트 103동 910호

요약 : 김통정 장군이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재 한 말씨을 받아서 성 주 위에 쌓아뒀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말꼬리에 빗자루를 매달고 재 위를 달리게 해서 적으로 하여금 구름이 낀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적이 침입하면 도두, 연대, 고성 순으로 봉화를 피워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김통정 장군, 왜적을 막으려고 해서 그냥 해난 역사가 있주. 왜적을 <조사자 : 어

명 행 김통정 장군이 어떻 했텐 마씨? 거 무슨 말꼬리에~> 저 고, 고성에다가 향과 두리라고 거기 성을 쌓어²³⁷⁾ 그냥 토성은 흙으로 성을 싸서 <조사자 : 예> 에 쌓아서 그 거기에 그 안에서 살고 그 우에서 그거, 그건 내가 설명, 어제도 설명 해줬주게.
<조사자 : 안 되부난 다시 듣젠.> 어? <조사자 : 다시 또 듣젠.>

어 동네 사람이 게 전부 그 세금이라, 세금 받는 것은 재 혼 말씩, 불 탄난 재 <조사자 : 예> 그 재 혼 말씩 해서 전부 거두면서 거기 쌓여 뒀다가 만약 적군이 일본서 적군이 들어오면은 그 우에 그냥 싸가지고 그냥 어 돌 풍지에다가 비차락을 그냥 돌아²³⁸⁾ 메가지고 탕 돌리면 그 재로다가 막 허면 아 저기는 구름이 그냥 운무가 졌다고 허영 운무로 보지 성 쌓은 걸론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냥 속여났는가. 또 어디서 적이 나타났나 할거 같으면 저 도돌봉이 봉화를 올리면은 <조사자 : 도두?> 어 <조사자 : 도두에서?> 어 도두, 도돌봉이라고 예 있주게. <조사자 : 예> 그 저 사라봉으로 해서 그냥 글로 연락이 되면은 도돌봉에서도 불 싸꼭 해서 거기서 불싸면 여기 어 외도 연대라고 한디가 탑이 있어, 탑을 싸가지고 그 우에서 또 어 봉화를 올리고 그 디서 허면 저 수산봉하고 올리면은 고성 나가서 알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조사자 : 연기로?> 어 계난 연대동이라 해서 부락 일음을 연대동으로 그렇게 그거를 불러서.

20. 씨름장사 이야기

제 보 자 : 김정순(남 · 84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재조사)

조사장소 : 외도 1동 부영아파트 103동 910호

요약 : 옛날에 외도 일동에 힘이 센 씨름장사인 김맹환이 있었다. 하루는 관덕정에서 제주도 전체로 해서 씨름대회가 있었는데 김맹환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일 등을 해서 미영배 한필을 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조사자 : 옛날에 이 동네에 막 힘쎈난 사람은 엿우과?, 힘쎈난 사람.>

힘쎈난 사람? <조사자 : 예> 힘쎈난 사람은 옛날 저 관덕정에서 씨름 어 제주도

237) 쌓아서

238) 달아서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적으로 해서 글로 씨름 할 때에다가 어 해서 제일 힘센 사람은 민영 혼 필인가, 혼 동인가 쥐넋단 그 말이.

<조사자 : 뭐 한필 마씨?> 미영베 <조사자 : 미영베?> 어 <조사자 : 음> 미영베 라고 <조사자 : 옷 만드느거 마씨?> 옷 만드느거 <조사자 : 예> 그거 씨름을 해가지고 해난 사름이 여기 김맹환이라고 현 이가 어 일등을 했다 해서 그냥 타난 전설이 있고.

<조사자 : 그 사람 외도 사람 마씨?> 어, 우령리 사람이라.

<조사자 : 뭐 그 사람네 집은 그 사람만 힘센 것과 아니면 그 집 식구들이 다 힘센 것과?>

그 사름만 <조사자 : 그 사람만?> 응, 조식도 없고 <조사자 :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마씨?> 어 <조사자 : 갹 그 사람 어떻 외도에서 어떻 행 살았던 현 저 씨름하레 간저 말고> 어 <조사자 : 뭐 힘 썩으네 외도에서 어떻 했덴 현 그런건 없고 마씨?> 어, 그런 것도 없고. <조사자 : 저 씨름강 이경운거 딱> 응 <조사자 : 그런것만?> 힘이란 것은 보통 힘에서 조금 씨면은~

21. 조현대부겸 가선대부 김부은(金富殷)

제 보 자 : 김정순(남 · 84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재조사)

조사장소 : 외도 1동 부영아파트 103동 910호

요약 : 외도 설촌 후 처음 살던 김부은(金富殷)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민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자, 육지에 가서 곡식을 싣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것을 안 나라에서는 그에게 조현대부겸 가선대부라는 높은 벼슬을 주었다.

그 우령이서 산 지 후에 <조사자 : 예, 뭐 후에 마씨?> 이 외도 설촌해서 산 지 후에 우리 김씨 하르방 <조사자 : 예> 어 부(富) 자(字), 부자 부(富)자, 어 은나라 은(殷)자, 부은학이엔 현 할아방이니까 <조사자 : 부자 부(富)자에> 어 <조사자 : 무슨 은마씨?> 저 은나라 은(殷) <조사자 : 은나라 은(殷), 김부은(金富殷)?>

응, 이제 그 사름이가 어 제주도 도민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게 되었어. <조사자 : 예> 굶어 가니까 일본으로 가, 춤 육지로 가가지고 그땐 무곡이라 그래. 곡식을 갖

다가 혼배를 실러 갔거든. <조사자 : 예> 실러서 저 군항포로 댕가지고 전부 그 난
놔줘서 허니까 나라에서 어 가선대부 죽헌대부겸 가선대부를 벼슬을,

<조사자 : 가선대부마씨?> 어, 게서 그냥 쥐난 예가 있고. 죽헌대부 <조사자 : 그
거는 뭐하는 벼슬잇과?> 그건 나라에서 제일 잘했다고 허는 벼슬이주. <조사자 : 어,
높은 벼슬마씨?> 어, 높은 벼슬이주. 그래서 그것에서 그건 그 양반 비석에도 가선대
부겸 죽헌, 죽헌대부겸 가선대부라 이러 해서 그냥 해서 어 써전 있더군.

22. 도채비 이야기 2

제 보 자 : 윤치현(남 · 66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도평분교

요약 : 도평에서 대정으로 장사를 다니던 사람이 날이 어두워져서 돌아오는데
무서워서 1인 2역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도채비가 나타나서 도
채비에게 어떤 곳에 가서 좌정을 해 있으면 잘 모시겠다고 해서 돌아왔다. 일단
그렇게 얘기해 두고 그곳에 가서 떠를 엮어서 물이 안 들게 하는 집을 지었는데,
그것을 '주쟁이'라고 한다. 그 '주쟁이'는 지금은 없고 30년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조사자 : 어르신은 옛날에 그 도채비 얘기 들어본 적은 엿우과? 살단?> 그놈의
도채비 얘기는 많이 듣지예, 도채비 <조사자 : 들은거 ㄱ르쳐, 얘기...> 근데 도채비,
도채비 허는거는 예 지금 우리가 저그 저 뭐 무슨 불이 연간 연간 허는 거는 우리
나가 직접 목격한거는 요 요즘은 뭐 슝스방에 불이 켜 옛날엔 뭐 아주 밝은 진흙갈
은 어, 춤 캄캄하니까 이제 요 내창으로 우리 조카하고 제사먹으래 간 보니까 그 도
채비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어디나 춤 완전히 겁도 나기도 허명 춤 봐 보고도 싶은데
이제 그 짹 짹 걸어가는 걸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다고, 걸어가는 걸 본 적이 있고,
그 옛날 그런거 본 적도 없고, 우리 여기에 그 저 하나의 그 전설이라고 허는거 그거
는 아마 근래, 근래에 생겨난 일인데 여 우리 동네에 이제 그, 그 대정 장사를 허는
사람이 하나 있어 가지고.

<조사자 : 대정 장사 마씨?> 대정이 강이네 무슨 영 장사를, <조사자 : 아, 예 예>
장사를 왔다갔다 하면서 그때 그 날이 어둑와서 좀 저 위로 이제 좀 오노렌 걸언 오
게 되니까 밤은 깊고 무섭긴 허고 <조사자 : 예> 그래서 그 사람 나름대로 생각한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것이 아 일인이역을 해야 되겠다. <조사자 : 예> 어,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일인이역이지. 이 행으네 감서? 헌 말에 언제와? 나 감서 <조사자 : 예> 이제 거 쪽 이젠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상대방이 어디 들어도 두 사람이 감구나. 이렇게 이젠 요 요 옷동네 살던 양반인데 내가 그 지금 누구라고 지적을 하면 곤란하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딱 올래 왔그젠 들어 갈라니까 뒤에선 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조사자 : 예> 아이코! 큰일났구나, 게서 그때 그 양반이 이야기하기로는 “아이고, 저 요 아무디 가그네 좌정해서면은 저가 잘 모시겠습니다.” <조사자 : 예>

그래서 그 우리가 그저 요디 가면은 그 지금도 그 요 몇 해 전에도 그 주쟁이가 있었습니다. <조사자 : 주쟁이?> 예. 주쟁이 몰르~ <조사자 : 예, 주쟁이 뵈과?> 저, 주쟁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그 세로, 띠로, <조사자 : 예, 예> 띠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물 안 들게끔 해가지고 저 옛날엔 <조사자 : 아, 예 예> 느라미 이렇게 쳐 가지고 제일 꼭다리에 <조사자 : 예, 예> 덮으는, 제일 꼭대기에 덮는, 우리가 그 걸 팬히 요 몇 해 전까지도 한 삼십 년까지도 그게 있었어요. 그 저 그디 해가지고 게서 그, 그래서 갈 때면 위하고 그냥 그 똑 그런다 그래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그 눈으로 목격한 사실이 있고, <조사자 : 그니깐 그 어디 아무개에 강 좌정행 잇이면은 이제 잘 모시쿠다, 행> 모시쿠다!

<조사자 : 계난 주쟁이가 강 잇이전 마씨?> 아니 계난 그거는 사후에 엘 들어서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어디 강 잇이면은 그디강 집 지서 들이쿠다 허는 식이지. 게서 이제 내중엔 그 아주 후일테주게. 그 저 그 일단 그리 얘기해 놓고. 차후에 가가지고 영 춤 비 안 들게끔 해가지고 저 거기 강 좌정허고. 그런 전설이 이제 그거는 우리가 봤으니까. <조사자 : 그 주쟁이가 지금도 있어 마씨?> 아니, 지금은 <조사자 : 지금은 없고?> 혼 삼십년 아직 전에까지 얘기지. 우리 옛날 쉼 맥이젠 저거, 저거 허명 헌 거난 혼 삼십년 나실테주. 지금은 어실거여.

23. 힘센 김씨 이야기

제 보 자 : 윤치현(남 · 66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도평분교

요약 : 옛날 도평에 김씨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집 삼간 지을 만큼의 나무도 한꺼번에 지고 다녔다고 한다. 하루는 김씨 할아버지가 나무를 하고 돌아오다가 대변이 마려워서 그 나무를 진 채로 볼일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나무를 해서 산에서 걸어오면 옆에 있던 나무가 다 움직일 정도였다고 한다.

<조사자 : 옛날에 여기 혹시 예, 그 이상한 행동 허는 사람은 있어났우과? 영 거 때문에 막 재미난 일 많았을 것 같은데... 특이한 사람들>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 뭐 저 이 지금 그 후손들이 여기 뭐 여럿이 있습니다만은 자기네 뭐 8대존가 뭐 어느 조가 있었는데, 김팔춘, 아니다. 하여튼 뭐 비슷하게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도 나 예도 어떤 뎨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삼간 칩 한그릇 썰 나무를 전부 지고, <조사자 : 예> 어, 지고 오다가 똥 마려우니까 그냥 진 채로 똥을 뉘서, 어허허허허. 그니까 산에서 그거를 헨 나무를 지고 게 산에서 올라근게 옆이 게 나무들도 있고 뭐 할꺼 아닙니까게. 그냥 그냥 그냥 뭐, 길이 나 있는건 아니잖아예, 그냥 또 나무를 그냥 짹 걸어오른 그냥 나무가 짹 그 그런 <조사자 : 아~> 힘센 할아방이 있었다는 얘기 합니다. <조사자 : 아~> 그 후손들이 합니다, 지금. <조사자 : 성, 성이 김씨고?> 예, 성이 김씨고.

24. 문왕성 문도령과 자청국 아가씨

제 보 자 : 이문호(여 · 80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자청국 아가씨가 문왕성 문도령을 사랑하여 남장까지 해가며 같이 지냈다. 자청국 아가씨가 집에서 결혼을 권유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도령도 따라 왔으나 맺어지지 못한다. 그에 아가씨는 자살을 하고, 문도령이 결혼을 하던 행차 길에 둘은 재회를 하고 한 몸이 된다.

옛날에 응. 이름을 잊어부렀네. 호호 이름을 잊어부런. 옛날에 선비가 옛날에는 가난하기로 보통으로 공부를 못했어. 아주 부자집 아들이나 서울가서 선비로 허레 가느디이 부재집 딸이 그 중간에 있는데 딸이 저그 종을 돌아서 빨래도 허고 허영 사느디이 종이 손이 고와.

"너는 어떻게 손이 그렇게 고냐?" 허니까 저 어느 물에 가서 빨래를 허면 손이 이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렇게 곱넌 허난 지도 이젠 매날 손 곱난 빨래 허레 간다고 빨래 강 허느렌 허난 그 선비가 서울르레 공부하러 가다가 아! 이쁜 처녀가 아자서 빨래를 헬서. 냇가 가서 빨래 헬시니까 내 처녀광 말이나 섞엉 굴아보카 행 좇아가서. “아가씨, 미안하지만 물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허니까 어 이렇게 그 표죽박, 콧박에 물을 이렇게 거려서 게 이젠 나뭇잎을 톱 톱앙 들이칭취²³⁹⁾. 들이칭 주니까 아가씨 얼굴은 이쁜데 므음세가 나쁘냐고 이거 왜 이거 들이칭 주느냐 하니까 먼 질 가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먹 으면은 목에 걸리니까 조금씩 조금씩 먹으라고 정 쥐수덴. 경허난 아~ 그러냐고 거 난이 경허난 “어드레 가는 길이우과?”허니까 그니깐 경허난, “서울 공부가는 길입니 다.”하난 옛날엔 남자도(허리를 가르키며) 머리 이래 놓고, 여자도 머리 이래 놓으니 칸 아고 우리 오빠가 서울 공부 갈라고 하는데 친구가 엇엉 못가니까 저 우리 오빠 랑 7치갑센. 경허난 빨래는 건져 앓앙 경 허렌 허난 그 남자는 여기 문왕성이 문도 령. 일름. 문왕성이 문도령.

<조사자 : 아~ 문왕성이 문도령?>

문도령. 문도령은 이젠 턱에 앉아서니깐 집이 가서 오빠 방에 옷을 가져와서 나와 서 어머니 방에 공부방에 쓰는 아버지 방에 공부 가젠허난 지집년이 남들한테 영만 하난 그래서 뛰쳐나와져 나왕.

<조사자 : 남장 행 다닌 마썸?>

응. 문왕성이 문도령하고 그 아가씨하고 자천국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자천국 아가씨하고 문왕성이 문도령하고 공부 서울로 가는데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 하는 말이 여기 물둥이를 이렇게 물을 이빠이 놔서 놓, 놓앙 밤에 잘 때는 요쪽에 하나 자고 요쪽에 하나 장 요거 건드리지 아니하든 공부가 막 잘되고 요거 건드리면 안된 덴 하니깐 문왕성이 문도령은 순풍이로 아 그런가 행 밤에는 명심해서 물둥이를 거서지카분덴 행²⁴⁰⁾ 자주게. 둘이 자난 여자. 여잔지 남잔지 몰랐다그네 선생님이 영 하는거 보니깐 이 자천국아가씨 꼭 아가씨 닮아. 너네들 하루는 오줌 누는 걸 한번 하렌. 경 허른 여잔가 남잔가 알지. 이제 하난 그 저 저 대통을 깎아서 이렇게 깎앙 대어 났다가 저 오줌 굴기는다 대어서 짜르륵 굴기멍 착 들르니깐 여자는 열두 방축을 굴리고 남자는 아홉 방축 밖에 못 굴려서게 어떻 영 헬시니? 여자가 아니고 남자다 헤영 선생도 그렇게 헤연 해었는데 혼번은 옛날에 그 가막, 옛날은 가마

239) 넣어서 주다

240) 건드리질까봐

귀이~ 전날개로(?)편질하더랜 가마귀 전날개로 편지를 허는디 와서 쓰집²⁴¹⁾가겐 경
 헨 편질 오니까 목목 고불런 데껴두고 문왕성의 문도령 그라 허는 말이 나가 집이서
 어머니가 아파서 오랜허난 강 오켄 허난 문왕성이 문도령은 누드 가는디 나도 그치
 가겐 그치 가겐허난 할수엇이 나와서 나온다, 오다가 보니까 냇물이 절절 흘리는데
 이스난 “우리 요물에게서 모욕이나 허영가카?” 허난 혼 통에서 감으른²⁴²⁾ 안되고 항
 상 문왕성의 문도령은 순품이라게. 문왕성이 문도령이라 알통에 감고 날랑 옷통에서
 물을, 몸을 굶자 헨 이젠 몸을 여자는 저청국아가썬 옷통에서 몸은 아이 감고. 양재
 만 씻으고 그 문왕성이 문도령은 거 멍청허게 옷 모딱 벗어두고 덤방 들어가니까 이
 제 낭쌔²⁴³⁾을 톨아서²⁴⁴⁾ 그래 저 글을 써서 「문왕성이 문도령아. 나는 여즌디 연 3
 년을 그치 살아도 나 여즌지 물렀느냐. 나는 결혼허레, 시집가레 오노라」 겐 썬 물러
 레²⁴⁵⁾ 트뒤아된 그냥 뛰쳐나서. 아우 무슨 종이가 신지 영 그 그 글이라. 그냥 옷을
 입젠 허니까 혼 가달에 두 개도 들어가고 이 파당파당 입언 조쯤시라~ 조쯤시라 허
 명 돌려도 그냥 돌리는거라. 계난 오다 가다가 그 목에 노니까 이녁 집들에 확 기어
 들어가 부니까 아 문왕성이 문도령은 올레에서 이렇게 이렇게 허여 부모님은 저디
 어떤 총각이 와서 이렇게 배린다 경 허니까 나영 저 그치 공부하던 사람인디 이데
 홀초²⁴⁶⁾만 장 가겐 햐수다 허난에 경 허진 경 허렌 경 헨 헨디 문왕성이 문도령고
 라 혼 말이 이제 나, 밤 열두시 새로 혼시 그땐 시간은 엇고 쯤 이제 오랑 문을 두드
 리든 나를 생각 하염시든 쯤을 아이 잘꺼 안 생각 햐시든 쯤을 잘꺼니까 오랑 문두
 드리켄 허난에 뜯방에 뜯방에 눕졌주게. 거난 간 문두드리난 오곳 자부런 문왕성이
 문도령, 날 생각 안 햐텐 이젠 또내 이히히~ 결혼을 허영 허젠 허는거라 하난 집이
 오란 집이 오란 이제 집이 그 문왕성이 문도령이 간데 조총국 아가썬 이제 문 갖춰
 난 일주일을 굶으니까 죽었어. 죽으니까 그 문왕성이 문도령 결혼하는 길에 가서 나
 를 물어 달라 해연 유스²⁴⁷⁾를 썬 놔두고 허니깐 그디간 물어있으니까 문왕성이 문도
 령은 이젠 뜯디 장젤 가는거야. 장젤 가는디 거길 가니까 새가 들어서 가지 못허게
 막 허는거라. 허니까 그 문왕성이 문도령이 알안 “조총국아가씨야 나를 향해 막음 잇

241) 시집

242) 감으면

243) 나무 이파리

244) 뜯어서

245) 물에

246) 하룻 저녁

247) 유서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건 무덤이나 두레 딱 갈라지라” 허난 딱 갈라져래. 아 그 관관이나 둘에 딱 갈라지라 허난 딱 갈라전. 거난 그 가메 들~ 저, 가메 들르고 가던 사람들은 그 새 드련²⁴⁸⁾ 간 동안 둘이 강 안양 혼몐됐다. 쟁 죽어부련.

<조사자 : 둘이 같이?>

(웃으며 끄덕끄덕)

<조사자 : 할머니 얘기 누구한테 들어수파? 자청비 얘기>

쟁 죽어불언 메기.

<조사자 : 누구한테 들언 마썸? 이 얘기?>

응?

<조사자 : 이 얘기 예 누구한테 들언 마씨?>

이거? 우리 옛날에 부모님한테.

이쪽에 하나 묻고 이쪽에 하나 묻어서 이제 별이 심삼계라고 하고 조총국 아가씨 하고 문왕성이 문도령 별이 있어 미리네~ 구름이 요르요르 신앙쪽에 있어. 이제도 별 막 난 날은 그거나와.

<조사자 : 쟁 그 문도령하고 자청비가 죽었으네 그 미리네가 됐덴 헛거마씨?>

으, 으, 응 거 문왕성이 문도령고라 심삼계라고 해.

<조사자 : 심삼계?>

응. 발 영 번어서 별이.

<조사자 : 예?>

별이 발을 이렇게 번어서.

<조사자 : 기~ 길다란~ 별이 영 된 별 마씨?>

응. 요쪽에 하나 있고 경 칠월 칠석일 날은 둘이 만난대. 전우 직녀. 그거 그 말이 라. 전우 직녀가 그저라.

<조사자 : 전우 직녀 같추록 그 자청비하고 문도령도 정행 만나덴?>

응.

<조사자 : 별 땡으네?>

응. 칠월 칠석날은.

25. 백양초

제 보 자 : 강지현(여 · 88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가난하게 방아를 찧으면서 아들과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쌀을 고르다가 온방울이 있으면 그것을 큰 솥 안에 넣어 두었다. 그러다가 어느 나라에 있는 왕의 아들이 병이 났다. 사또는 왕자의 병을 구하려고 점을 봤는데 백양꽃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백양꽃을 구하던 사또는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지붕 위에 백양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솥 안에 백양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백양꽃을 왕자에게 먹이자 왕자는 살아났고, 할머니는 왕모(王母)가 되었다.

저 연날에 이 막 가난하게 살았어. 가난하게 산디 이 이제 아들하고 딸만 살았지. 좀 저 어머니만.

<조사자 : 아들하고 어머니만?>

어. 사는데이 이 할머니가 땃을 해 사는고 허니 이 나무 방엘 지었어.

<조사자 : 아~>

연 방알 연날엔 방엘 저 가지고 어하등등 방애등, 방애등

<조사자 : 예>

에 거 저 가지고 이 쌀을 허면은 다 쥐 불고 거 스레기²⁴⁹⁾ 저 스레기 치면 쓸²⁵⁰⁾ 나오잖아.

<조사자 : 예>

그 스레기는 이녁 받아다가 어 그 눅을 해가지고 공도지고 거기서 굴라가서 솥방울에 온방울이 잇이면은 그 방울을 주시면서 솥 안에 댔어. 큰 여 큰 솥 안에 뉘지고 두께²⁵¹⁾ 더끄고²⁵²⁾ 거 그거 콩 저 부처님 앞에 공질라고.

<조사자 : 예>

그래 성심을 먹어서 이제 온 쌀을 씨레기 쌀을 저, 거, 거, 참진 쌀을 영 주시다보

249) 싸라기

250) 쌀

251) 뚜껑

252) 덮고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문 온 방울이 들어시문 그거 좇어 놓고, 그거 좇어 놓고 하면서 저 부처님 앞에 공을
진디. 이제 어느 나라가 이 병이 났어. 아들이~ 나라에 아들이 병이 났어. 병이 나니
까 막 약을 해도 아니 좋고 이 험다 허는 약은 다했어. 다해도 좋지 않했어.

<조사자 : 그 어머니가 마씨?>

아니, 그 나라에 아들이.

<조사자 : 예>

좋지 안헌디 어디간 이 백양초라고 백양꽃, 꽃, 헤양한²⁵³⁾ 백양꽃이 그 백양초허라
하는 그 잇는디 그 백양초를 갔다 먹으은 이제 이 사름이 병이 좋겠다 경 헤니까 그
나라 아들이 병이 좋겠다고 허니까 그걸 구할라고 막 다녀도 구할 수가 없어. 겐디 이
할마니 집에 이 그 그거 구하레 간디 우에이²⁵⁴⁾ 지붕 우에 그 꽃을 피워서. 꽃, 꽃.

<조사자 : 예. 예.>

그 백양꽃을 이 꽃이 피어시니까 이젠 아무데 가 보니 그런 꽃이 잇더라고. 아 그
러른 그 집안에 가서 어 보라고 허니까 아 할머니 한티 간 이, 그런 말 허니 아이고!
이런 거지로 살명 머 좋은 일도 한 일이 없는데 근데 그런 꽃이 어디실꼬. 헤연 그
술 두껍일 영 열아 뵈어. 열아 보니 술 안에 그 꽃이 경 피어 있었어.

<조사자 : 백양초?>

백양꽃이 환허게 피어 있었어. 겐디 그 사또 눈엔 지붕에 있는 걸로 뵈었어.

<조사자 : 아~ 예>

응. 지붕에 있는 걸로 보고 술 안에 그 꽃이 피었어.

<조사자 : 예.>

겐디 그 꽃을 해다가 맥이니 살아났어. 저 사름이 사또 춤 저 나라의 아들이 살아
나니, 이제는 이 날 살려준 할머니를 데려오라고 어머니 삼췌다고 게 이젠 그 이제
그 할마니를 데리레 온 이, 데려가마 가마 태왕으네 데려갔지. 데려가니까 어머니 삼
고 왕모(王母)가 됐어.

<조사자 : 왕모?>

왕모라고 이, 그 왕에 아들 아들. 아들의 어머니니까 왕모라고.

253) 하얀

254) 위에

26. 도채비 이야기 3

제 보 자 : 감지현(여 · 88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농사를 지으며 나루를 하기 위해 밤에 밭에 나가보면 도채비가 땡 하
는 소리를 내면서 밭 위로 지나간다. 도깨비가 나타나면 돌을 가루로 내거나,
잇몸에 피를 내면 도깨비가 사라진다고 한다.

한번은 이 우리 밭(밭)에 저 농사 진디 이, 농사 짓는디 영 가면은 농사진디 가문
도채비 이, 저 나루 나루 이 우리 나루해났지 이.

<조사자 : 예>

옛날에 나루허니 낮에는 불리지 못해. 게난 그거 나루를 놔뒀다가 밤에 나루 바
롭²⁵⁵⁾ 불 때 이.

<조사자 : 예>

그때 강 불리른 되어. 도채비들이 그냥 땡~ 하면서 우루²⁵⁶⁾ 날아가고 땡하든 또
우루 날아가 저 저 우녁 밭드래 가고 그러더라. 도채비는, 소리 날 때는 소리 나. 그
런디 도채비 경 날아다녀도 나 무서운건 었어. 어 그 도채비는, 겐디 사람이 무섭지
도채빈 무섭지 안해.

<조사자 : 아하~>

겐디 그 도채비 불 때는 돌 딱딱 모사가지고, 돌을 모사서 돌 코틀레(?) 나면은 도
채비 어 사라져부러.

<조사자 : 아 돌가루... 영 들렁으네 뿌성으네 돌가루 내면은 도깨비불이 도망가부
러 마썸?>

웅. 없어져부러.

<조사자 : 웡~> 그리고 니뽀(잇몸)을 솟지 이.

<조사자 : 예> 니뽀를 스어 니(이)도 피나지이.

<조사자 : 예> 피 나른 것도 없어져.

255) 바람

256) 위로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아~> 그 무서운 때는 이제는 전기불 환허니까 도채비 같은거 없어.

<조사자 : 예> 연날에 도채비 많았어. 뭐 여 다리에도 도채비들 막 돌아다니는데.

<조사자 : 할머니 뵈우과?> 어?

<조사자 : 할머니 여기 다리에 영 도채비불 영 돌아 다니는거> 어 여기서 다니는 건 못보고.

<조사자 : 들은건 잇우과?>

영 집에서 보른 집 중간에 도채비 낭 돌아댕겨. 봤어.

27. 저승 다녀온 이야기 1

제 보 자 : 강지현(여 · 88세)

조사일시 : 1994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어떤 할머니가 저승을 갔는데 저승에서 때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이승으로 오게 되었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내려갈 때 할머니에게 가져가고 싶은 것을 하나 가져가서 인간 세상에서 아무 일이라도 하나 하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수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깨어보니 꿈이었다.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사람들의 넋을 들이는 일을 하였다.

<조사자 : 이름이 똑같이 가지고 예. 원래 이 사람 데려갈텐데 실수했으네 이 사람 데려 와신디 이사람 저승 갔당으네 나 아니우다 해가지고 이 사람 다시 보내주고 딴 사람 데려간 얘기. 그런 얘기 못 들어 뵈우과?>

응. 그런 얘기 들어봤지.

<조사자 : 얘기해줍써>

한번 어디 가니까 말 들었어. 들으니까 할머니디 저 저싱²⁵⁷⁾을 가니까 저싱을 가니까 죽어서 저승을 가니까 너는 혼이 아니 났다. 인간으로 나가라 나가라 해서 나왔다고 니그 할마니한테 들었지. 나가서 그러믄 빛을 가정 가느냐네 네 갖고 싶은거

257) 저승

아무저라도 가정 가렌 행 수판을 가전 나왔더라다.

<조사자 : 수판 마씨?> 응

<조사자 : 예>

수판을 가전 나왔는디 깨나보니 꿈이라. 춤 저 죽었다 살아난거라. 해서 인간에 가서 아무저라도 한가지 허라고 했는데 그 그 할머니가 무엇을 하니 아이 뉘들었어. 켜 뉘들이는거 이 거른 당작²⁵⁸⁾ 좋아

<조사자 : 아~>

이제 돌아갔을거라.

28. 저승 다녀온 이야기 2

제 보 자 : 강지현(여 · 88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최씨(A)가 죽어서 저승에 갔는데 잘못 왔다고 해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왔다. 대신 다른 최씨(B)가 저승에 가게 되었는데 그 최씨는 초신을 삼아서 생계를 꾸리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최씨(A)가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미 자신의 몸은 땅에 묻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최씨(B)의 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최씨는 자식과 부인이 불려도 뿌리쳤고, 자식과 부인은 남편이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최씨(A)는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이 부자가 되게 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 있어.

<조사자 : 예.>

죽영 가니까 죽영 나 이제 죽을 땐 어찌 죽었는고 허니 이, 그 최씨가 둘레²⁵⁹⁾ 왔지 이, 둘레오니까 죽언가니까. “이 사름이 아니다.” 잘못 따라왔다.

<조사자 : 예.>

응. 혼저²⁶⁰⁾ 인간에 보내렌. 보내렌 허난 이젠 그 최씨가 둘레오니까 “아이구! 난

258) 당장

259) 데리러

260) 빨리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아기들광 다 신 삼아서 신을 삼아가지고 신, 알지 초신 이?

<조사자 : 예. 예>

신을 삼아가지고 그거 팔아²⁶¹⁾ 가지고 아기들 밥을 멕이는데 나 죽어볼문 이 아기들 어찌느냐고 막 그냥 날 돌아가지²⁶²⁾ 말라고 해도 이제 염태대왕에서 돌래왔다 해서 돌아가. 돌아가니까 잘못 돌아왔다고. 이 사람은 아닌데 잘못 돌아왔다고. 나가라고. 나가니까 나오라 보니까 그만 그 물어부러서. 할망을.

<조사자 : 땅 속에?>

땅속에. 묻지 안 해서든 자기가 자기 명에 이제 자기 몸으로 태어날 켜디 남의 집에가서 태어났어. 남으집 이.

<조사자 : 아 그 할머니가~ 물어부난.>

묻어 부난에 그 옆에 이 그 남으 그 대신 돌아가는 집 이서. 예 그 사람 된 나왔지. 그 사람은 죽영 돌아가고 그 사람 몸뚱이로 또 되언 살아나가지고.

<조사자 : 아 그니까 그 할머니 그 사람은 영 행으네 내려와신디 자기를 물어부난 자기 원래 죽을 사람은 죽영 가신디 그 사람이 죽은 사람 몸 속에 들어가부룬 마 씨?>

응. 죽은 사람 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아났지. 계난 그 집에선 이젠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 불러도 아버지가 아니라.

<조사자 : 아~>

어떻 허난 저 아 거기선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니라.

<조사자 : 예.>

게서 자기 집이 그 영감이 자기 집이 가서 여보 여보 해도 막 그냥 이 사람이거 뭐한가 하르방~ 노망허는 사람이라고. 막 그냥.

<조사자 : 아~>

아들도 뚜드려불고 이 막 못 오게 허고 이 강 각시강 영 마누 마누라 영 심젠 허문 막 뿌리대기고. 경 해서 난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해도 이 사람 노망허는 사람이라고 막 그래 뚜드리는거 받 뚜두렸지. 뚜드리니 이젠 할수엇이 그 집안에 가 그 집이 이제 그 남이 집의 부제들여 살렸다.

<조사자 : 예?>

261) 팔아

262) 데러가지

남 그 남의 집이 깨나니 그 집안에만 부제됐다고.

<조사자 : 그 집안에만? 그 쟁 그 사람은 계속 그 집에서 살았던 마썸?>

어 그 영이 깨나니까 뭐 내가 죽지이 에~ 영혼이 깨나면 우리 집안에 못 깨어 나지 이.

<조사자 : 예.>

그 사람 집안을 믿음²⁶³⁾은 남의 명을 달 남의 영 인디 그 남의 집안에, 그 살렸지.

<조사자 : 켜 거기 집에서 계속 살았던마썸?>

응. 켜디 오래되영 뭐 자기 아버지 죽은 사람 살아나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 허른 나 너게 아버지 아니다. 또 마누라도 왜엔 허른 나 내 내 남편 아니다. 쟁 했지.

<조사자 : 경해도 그집에서 살았던 마썸?>

게도 헐수엇이 살았지.

<조사자 : 쟁 그 집에 부자되고...> 응.

29. 남선비와 노일저대

제 보 자 : 이문호(여 · 80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월대 마을회관

요약 : 옛날 제주도에 일곱 형제를 둔 남선비가 있었다. 먹고 살기가 곤란해 지자 남선비의 부인은 남선비에게 육지에 가서 돈을 벌어 오라고 하였다. 남선비는 자식들이 만들어준 테우를 타고 육지로 갔다. 육지로 간 남선비에게서 소식이 없자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초신을 삼으라고 해서 바닷가에 나가서 남선비를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다.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테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테우를 저어서 육지로 갔다. 육지에 가서 남선비를 찾았지만 남선비는 이미 둘째 부인이 있었다. 둘째 부인인 노일저대는 남선비의 부인에게 애교를 부리며 바닷가에 때 밀러 가자고 해서 바다속으로 밀어버렸다. 노일저대는 부인의 옷을 입고 남선비와 함께 제주도로 갔다. 자식들은 옷은 엄마 옷이지만 얼굴이 다른 사람이어서 노일저대를 의심하였다. 자식들이 의심을 하자 노일저대는 아픈 것처럼 피를 부렸고 남편에게 점을 보고 오라고 하였다. 노일저대는 점쟁이로 변장을 한 후 남선비에게 자식들의 애를 7개 먹으면 부인의 병이 낫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남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선비는 자식들의 애를 내기 위하여 칼을 갈고 있었다. 자식 한 명이 아버지가 칼을 가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묻고는 자기가 형제 여섯 명의 애를 산에 가서 내고 올테니 아버지는 나의 애만 내어서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였다. 아들은 산에 올라가 돼지를 잡고 돼지의 애 여섯 개를 가지고 내려왔다. 애를 어머니에게 먹으라고 준 다음에 아들은 창구멍으로 노일저대가 피만 입에 묻히고 바닥에 애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바닥을 걷고 왜 애를 먹지 않나면서 노일저대를 추궁하였다. 놀란 노일저대는 변소에서 목을 매서 죽었고 아버지는 놀라서 달아나다 문전에 목이 걸려서 죽었다.

옛날에 음 남선비는 이 제주도라.

<조사자 : 예>

제주도데 음 아들을 남 남 허멍 낳고 낳고 해서 일곱 성체를 낳어. 일곱 성체를 나니까 그때는 어디 나라에서 보충도 안 해주고 하니까 막이 먹기가 곤란해여. 굶어. 경허니까 그 남선비 큰각시가 여보 어디 가서 돈, 저, 돈을 벌어서 이 애기들을 일곱 성체 살려야 혈편디 어떻허코 어디 육지라도 가서 저 돈 벌어 오랜 허난 게민 육지강 어디 돈 벌어오카 해연 정 행 이제 가 가젠 허난 그 옛날은 배도 없어. 비행기도 아무 것도 없이니까 이 아들 일곱 성체가 저 나물²⁶⁴⁾ 해다가 이러구 태울 멘들아서. 자리 태우 7추록²⁶⁵⁾ 멘들아서 아방을 육지레 보내니까 소식이 깡통인디 이 아방은 육지 가서 노일저대 호탕에 드니까 아들 일곱 성체 생각도 잊어불고, 어 각시 생각도 잊어불어서. 헐디 그냥 노일저대가 어떻게 그냥 지랄을 허는디 (웃음) 막 해노난 잊어불언. 허는 살안 이제 큰각시허고 아돌 일곱 성체는 어디 가서 안 오는가 해서. 음, 엄마가 느네들 신 초신 혼 베씩만 삼으라 나 그 신 신영 아부지를 불러보켜. 그 그 신 신영 바닷가로 막 돌아 땡기멍 여보 여보 암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멀어노니 대답해져. 육진디.

<조사자 : 예~>

<조사자 : 예~>

대답 없으니까 이제 할수엇이 “느네들 나물 일곱 가지를 큰 나무 허여오라. 태우를 짓엇어. 아버지 좇으래 간다.” 큰각시가. 이제 큰 나무 혼 늬이 혼나씩 허난 일곱 가지주게. 일곱 개난 태우를 짓엇어 본 날은 배를 젃어서 육질 가서. 잘 갓지 이. (웃음) 육질가서 어디 좇으라 허대도 좇질 못허고 다니노렌 허니까 아가씨가 날래 예

264) 나무를

265) 그렇게

날레 날레 알아지지 이?

<조사자 : 예> 곡식을 넣어둡서.

<조사자 : 예. 예>

새가 와서 막 조아 먹어. 까서 조아 먹으니까 “요새야 저 새야 야기 말고 자기 말라. 요집이 남선비는 흐를 낭시바리 해와도 채밥도 기럼찌.” 아이고! 아가씨 거 무신 말고 다시 혼번 굴으려했난 “나 이 영 굴아수다. 저기 남선비는 노일저대 호탕에 드니까 흐를 낭시 저와도 채밥도 기럼찌. 굴아수다.” 허난 그 남선비엔 현 사람이 어디 사느니 허난 그 남, 이제는 예 굴이쳐 줘서게. 굴이쳐주난 간 보니까 남선비는 스몹 죽게되고. 아이고! 요 아방아 웅 아기를 일곱 성제 나된 무심히 오란 영 행 살암젠 허난 아 죽은 각시가 나오라 “아고 성님 왔구나!” 그냥 막 언강을 해서. 노일저대니까 막 언강을 허영. “아구 성님 애, 애, 때 베었구나. 아 바닷가에 가서 우리 때밀자.” 헨 헤연에 언니를 돌아가서 옷을 다 베견 놔두고 때 미는 채 허당, 자락 그래 밀령으네²⁶⁶⁾ 죽여부러서게. 물에서. 거난 엄 큰각시는 죽어불고. 그 옷은 이녁이 입어서. 그 때는 어려운 때난 입연. 집이 간 우리 저 아들 일곱 성제 신디 강 나는 큰각시 노렌 허영 속영 살게 허난에 이거 남선비는 그제 솟봉이²⁶⁷⁾로 경허져 행으네 큰각시간 그 테우에 타서 이제 오라가니까 아들 일곱 성젠 매일 바닷가에 가서 엄마 아빠 올걸 기다리다가 보니까 테우가 들어와. (손뼉치며) 아고 엄마 아빠 온다고. 좋아서 뵈려보니까 엄마는 얼굴은 아난디 옷은 엄마 옷이라. 경헨 이제 그 다른 아들들은 멍청헨 모른디, 흐나 아들이 “아 우리 엄마 아니다” 현 걸 알아서. 집이 가네 켜 밥상을 올리느걸 보니까 큰아들 쥐난거 죽은 아들 주고 막 석어. 경허니까 아 저 틀림엇이 우리 엄마가 아니다. 허연 헨디 막 노일저대니까 “음 아고! 내가 아파 죽겠다 죽겠다” 허난 서방은 “아고 어디간 약을 지어와야 할걸” 허난 “요디강 오문 시커름²⁶⁸⁾에 망대기 썩 아즌 사람신디 강 점이나 해봅써.” 허난에 서방은 이 올레로 가는 동안 옷담으로 뛰영 간 망대기 썩 아즌 “아이고! 저 각시가 아파서 죽어가난 점허레 왔우다.” 허난 아이고 점허는 체 허단 “아그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른 금방 따시 아들 일곱 성제 나쿠다.” 아이고 쟁 허영 집에 오 옷담으로 각신 노일저댄 들어완 아야 아야 헤연. 이제 오란 “빛이엔 굴읍디가? 빛이엔 굴읍디가?” 경 굴으난 그 서방은

266) 밀려서

267) 솟둥이

268) 세 갈래 길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른 댕시²⁶⁹⁾ 곧 아들 일곱 성제 나켄.” “아고 어떻 경 허코 마썸.” 허난 “아이고! 읍썸. 경 허게. 나 죽어불른 살아지쿠광. 읍썸 경허게.” 허난 칼을 실강 실강 굴암시난 아들이 들어완. “아버지 칼 뿔허첸 굴암수과?” “느네 어떻 아프난에 아들 일곱 성제 애 내영 먹으른 조켄 행 칼 굴암쥬.” (웃음) “아이고! 아버지 어떻 우리 일곱 성제 신더레 죽여지쿠과. 아버지는 아버지 대로 말고 나가 가서 아들 여섯 성제만 죽영 애 내영 오건 날랑 좋지 안 허건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만 죽이는게 좋지 안 허과” 허난 “경 허라” 허난 나간 칼 쥐영 나간 영 산에 강다니단 보니까 사람이 살젠 허난 도야지가 여 일곱씩 “꺽꺽, 꺽꺽” 허명 땡겨. 산 툷²⁷⁰⁾, 연날엔 산툷. 시난 그거를 다 죽연 잡안. 애를 여섯 개를 가전와서 가전 완. “아버지 이거 여섯 개우다. 이거 어머니 먹언 좋으건 허고 아이 조건 날랑 아버지 손으로 죽입썸.” 허난 “알고 경허게.” 해연 이제 허난 어머니 이거 먹읍썸 허난 “아이고! 약먹는디 아무도 보지 아이 현다. 다 나가 불라” 허난 서방도 나오고 아들도 나 오란 창끔²⁷¹⁾으로 춤²⁷²⁾ 불란²⁷³⁾ 터지완. 연날엔 그 창에.

<조사자 : 예.>

요렇게 보니까 입더레 피만 영 슬고 초석 알려레 다 묻더래. 묻으니까 이젠 “아이고! 하나만 먹으른 조켜. 하나만 먹으른 조켜.” 허난 이젠 “어머니 나 마지막으로 방이나 소지²⁷⁴⁾해뵈 죽으쿠다.” 경허난 안뵈덴, 안뵈덴. 기에²⁷⁵⁾ 엄말 내쫓아 놓고 방을 초석을 확 걷으니까 이거 애 이거 애 아니 켜 켜. 이거 왜 먹질 안헤고 이걸 나를 죽이져 허난 경 굴으난 인제 언니덜 죽엇건 혼 정으로 오고 살앗건 육신으로 읍썸허난 언니들 다 모여들어서. 다 모여 드난

<조사자 : 언니가 뭐 마썸?>

언 그 죽지 안했주게. 돛²⁷⁶⁾을 허난 그 언니들은~

<조사자 : 아 언니들. 형제들?>

응. 오난 오라가난 겁절에 그냥 그 노일저대는 그 옛날 저 그 벤조²⁷⁷⁾에 가문 디

269) 다시

270) 산뵈지

271) 창 툷

272) 춤

273) 발라서

274) 청소

275) 기어이

276) 뵈지

딜팡.

<조사자 : 디딜팡?>

응. 그디간 목 매여 죽어부렀어. 그 노일저대가. 아방은 겁난 집에 문전에 가단 목 걸렁 죽어불고 형 경 행 죽어부난 경 행 이제 몬 배아진 돌란 바당에 데끼난 물리실 (?)되고 또꼬냥은 돌랑 바당에 데끼난 물미줄되고 피는 더럽덴 바끄난 대죽잎에도 가고 양애잎에도 가고.

<조사자 :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마썸?>

음 팡은 행 데끼난 모기가 되난 이녁양으로 구똥베기 때리고 막 발톱은 허난 겹것 이 군벳되고, 음 그 신방은 다 곱안디 우린 잘못 ㄸ주게. 경 행 허된 이제 허난 업엄 마는 엄마는 아빠는 문전 하르방으로 들어상. 상을 영 문전에 질 해여 나문 그것에 거 따시 영 앓아냉 또 허영 조왕어여. 그거 엄마는 바당에서 추워 죽었다. 행 저 조왕에 뚏뚏헌디 불초렌 조왕드레 허고 아빠는 문전되고 아들들은 뭐 뭐 지등태원. 뭐, 뭐, 올레에 무신거 무신거 막 집이 그런거 되어서. 경허영 경햇켄 해여.

<조사자 : 아까 피는 영 데껴부난 어떻 됐덴 헛우과?>

피?

<조사자 : 노일저대 피?>

피는 뿌려부니까 양외잎에도 가고

<조사자 : 무슨 잎 마썸?>

양외.

<조사자 : 양외~>

응. 대죽잎에도 불긋 불긋 허지 안허여게.

<조사자 : 무슨잎 마썸? 대죽잎? 그게 뭐파?>

대죽잎에도 불긋 불긋 해여.

<조사자 : 대나무 마썸?>

응.

<조사자 : 대나무잎? 옥수수 같은거 마썸? 대죽, 옥수수, 대죽잎?>

음, 대죽, 대죽.

<조사자 : 응 그 옥수수 같은 나무에 영 울긋불긋 한거 마썸?>

응.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조사자 : 양외있은 양배추...>

양외, 양외 저 뒤에 있지. 계

<조사자 : 양외 있어.>

옛날 집엔 있고 이 신식 집엔 어서.

<조사자 : 영 행 벗경으네 쌀망 묻청먹는거?>

응. 경행 팡은 몬닥 행 데껴부난 저, 그 모기도 되고 음 모기 죽이젠 허몬 이녀
양으로 구똥베기²⁷⁸⁾ 토리, 흐홍 아하.

30. 셋째 딸 이야기

제 보 자 : 고정숙(여 · 72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재조사)

조사장소 : 고정숙 할머니 집 앞

요약 : 홀어머니, 홀아버지가 만나서 딸을 삼형제를 낳고 살다가 삼형제를 불러
누구 덕에 사냐고 묻자 막내딸은 자기 덕에 산다고 하자 내쫓았다. 작은 딸은
나가서 마판둥이를 만나서 잘 살게 되고 잔치를 해서 부모를 결국에는 만나게
된다.

옛날 옛날에 어디 웃동네는²⁷⁹⁾ 홀어멍이²⁸⁰⁾ 살고 이. 알동네는²⁸¹⁾ 홀아방²⁸²⁾이 살
았어. 가난하니까. 알동네 홀아방이 홀어멍네 칩이²⁸³⁾ 얻어 먹으려 갔거든. 간 보니깐
알동네서 계메 웃동네를 가니까 인자 간 보난 다 가난하거든. 얻어 먹곡 자시고 헐
것 었이. 그른 느 팔저나 나 팔저나 같은 팔자니깐 같이 살아볼자 헤연 살았어. 사는
디 이제 딸을 하나하나 낳단 보난 삼 형젤 낳았거든. 낳는데 이제 살아가는 부자가
되엿 살아지니까, 이제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니까 이제 비오라났던²⁸⁴⁾ 모양이라, 생
각에. 큰 딸을 불러서 너는 누구 덕에 사냐고 말을 물었거든. 그니깐, “어머니도 덕이

278) 뽕

279) 윗 동네

280) 홀어미

281) 아랫 동네

282) 홀아비

283) 집에

284) 비가 왔던

요, 아버지도 덕이요, 땅님도 덕이요, 하늘님도 덕. 나 배똥 아래²⁸⁵⁾ 선 그릇이²⁸⁶⁾ 덕 이외다.” 그렇게 허니깐, 이제 그 큰 내 딸이 분명허다 했거든. 둘짜 딸도 불러도 그렇게 말했어. 그렇게 말 허니까 그 둘짜 딸 도게 와 두고 이제 작은 딸 부르니까 작은 딸은 아무 덕도 아니고 자기 덕에 산다이거라. 나 배똥 아래 선 그릇이 덕이고 하늘님도 덕이고, 땅님도 덕이고, 어머니 아버지 덕이우다. 허난 에이 못된 년 거꾸로 굴 았다 헤연. 이젠 내쫓아 부는 거라. 세설 적에 입어난거 네설 적에 입어난거 다 그냥 좇어놔²⁸⁷⁾ 감은남 췌에²⁸⁸⁾ 신건²⁸⁹⁾ 내방송민거야. 내보내니까 (청중 : 오꽃 집안은 망해분거라.) 가단 가단 보니깐 날이 점글었어²⁹⁰⁾. 어느 시골 마을에 들어간 오막살이에 들어간 집이 주인이나 좀 빌리소 허난에,

“아이고 주인 빌리디가 었어. 우리 큰아들 들어오민 집 빌렸젠 야단행으네 이제 못 산다.”

허난, “요 무똥이라도 됐소.” 허난 꼭 거기 앓든 앓은 거야. 이제 앓았으니까 왈랑 달랑 소리가 나. “삼춘, 저거 무슨 소리?” “아, 우리 큰아들 마 광²⁹¹⁾ 들어오는 소리.” 이제 들어왔에 어떤 사람을 칭 뉘져시니²⁹²⁾? 야단을 허는거라. 이젠 야단을 허니까 “아이고 넘어가단 사름, 나디난(?) 사람 짐을 정 땡기니까²⁹³⁾ 넘어가단 해가²⁹⁴⁾ 점그니까 좀 밤, 유에(까닭에 ?) 허레 들어오랏다.”고, 허니까 이제 또 좀 시니까²⁹⁵⁾ 또로 이제 왈랑달랑 또 소리가 나. “삼춘, 무슨 소리?” 허난 “우리 셋아들 마판둥이 오는 소리.”

<조사자 : 마판이 뭐 마씨?>

마, 마, 먹는 마, 먹는 마를 파서. 어려우니까 광으네 땅에서 판거지. 경 행 판 들어오는 소리. 아, 이제 앓앙 이시니까 또 조끔 이시니까 따시²⁹⁶⁾ 왈랑달랑 소리가 나.

285) 배꼽 아래
286) 혼적
287) 주워서
288) 검은 소에
289) 실어서
290) 저물었어
291) 마를 파서
292) 누웠느냐
293) 저서 다니니까
294) 해가
295) 있으니까
296) 다시

“저거 삼춘 무슨 소리?” 허난 “건 우리 죽은 아들²⁹⁷⁾ 마 팡 둥글엉²⁹⁸⁾ 오는 소리.” 이제 삼형제가 다 각기 지씩 삶았어²⁹⁹⁾. 삶안 큰 아들은 이제 손님을 꼬릴 주고 머리는 어명을 주고 한 가운데는 지 먹고, 셋칩이³⁰⁰⁾도 경 행. 죽은 아들은 한가운데는 이제 손님을 주고 머리는 엄마를 주고 꼬랭이는 지가 먹고, 경허니까 밤 뉘³⁰¹⁾ 자다가 이제 고만서(?), 손님 허는 말이, 할머니네 이제 줌도³⁰²⁾ 안 들고 허니까 옛말이나 곧소³⁰³⁾ 허난 아이고 우린 마파레나³⁰⁴⁾ 땡기주³⁰⁵⁾ 옛말도 곧는³⁰⁶⁾ 말이 엇이니까 나그네가 굴으렌 허난, 이제 나그네도 굴을 말도 엇고 여기 죽은 아들이, 막냉이가³⁰⁷⁾ 좀 말을 험직 허니까 나 즈깃디레³⁰⁸⁾ 오랜. 이래 오랜 허니까 왔어. 오니까 옷은 준비해던 모냥이라. 그 마파레 데니던 때 묻은 걸 삼수세³⁰⁹⁾ 걸어다가 밀언 때 베³¹⁰⁾ 이쁘게 맨들안³¹¹⁾. 이제 옷은 입혔다. 옷을 입고 돌안³¹²⁾ 이젠 부부 돼분거지. 이젠 늦은 덕이 정하님 하고 서이³¹³⁾ 그냥 나가는 거라.

<조사자 : 늦은 덕이 정하님이?>

정하님이렌. 남이 집 머슴살이 사는. 놈이³¹⁴⁾ 집이 식모살이 사는 여자가 있잖아. 경 헨 여자지. 경 행 나간, 가단 가단 보난 이제 날은 점글고³¹⁵⁾ 집은 쫓아가지 못허고 허난 그대로 그냥 역새 소곱에³¹⁶⁾ 그냥 뉘 잔거라. 뉘 자단 보니까 뒷날은 독도 울고

297) 셋째 아들
298) 굴리면서
299) 삶았어
300) 둘째 아들
301) 누워서
302) 잠도
303) 말하소
304) 마를 파러
305) 다니지
306) 말할
307) 막내가
308) 옆으로
309) 한삼 덩굴
310) 벗겨서
311) 만들었다
312) 데려서
313) 셋이서
314) 남의
315) 저물고
316) 속에

새소리도 나고, 사람 웃음 소리도 나고 깨난 보난 이거 집이 된저라. 억새 소곶에 집이 되니까 이제 그디서 잘 살아지닌 양가에 부모들을 찾아뵈기 위해서 두 일레³¹⁷⁾ 걸어와서 쉼 잡아 놓고, 돛³¹⁸⁾잡아 놓고, 그냥 잔치를 헌거야. 열 나흘을 걸어놓. 부모들. 찾아보기 위해 잔치를 헌거지. 열 나흘 두 일레. 십사일, (청중:일레, 일레허든 열 나흘이 되지.)경 걸어놓 경허난 이제 그디서 허단보난 마지막 날에는 어떤 송구 막작한 할망들이, 하르방 뭉둥이를 짚고 들어오는 거라. 들어오난 저디 오는 어른 일랑으네 저 제일로 내중에³¹⁹⁾ 모시크메 음식을 적게 가정 강 일로 맥여가도³²⁰⁾ 적고 절레³²¹⁾ 맥여도 족게³²²⁾ 맥이렌. 경허난, 일보는 사람들이고라 경허니까 그 끝에 행보난 거꾸로 맥여가도 음식이 메기고³²³⁾, 이쪽으로 영 맥여와도 메기고 경 이젠 고만(?) 중에도 안 갔던 모양이라. 앓안 기다리당 보난에 날은 저무니까 손님들은 다 가고 이제랑 안트레 모시렌. 좋은 방에 모셔두고 허는 말이 잘 도일상(?) 차령 왕, 찰려와서 잘 자시거시라 놔뵈³²⁴⁾. 막 먹으면서 뭘엔 굴아신고 허든 할망 하르방이, “할망, 우리 영 잘 맥영 잡아 먹어 볼젠 햄신가?” 경허난 이제 들으난 그렇게 말허거든. 경허난, “아니우다. 할머니, 할아버지네 연날에 역사나 살아난 역사나 굴읍서.” “아이고, 우리 영 얻어먹으레 땡기는 사람이 무슨 역사 굴을 말이 잇어? 젊은이나 굴아.” “그러든 나 살아난 역사 허결랑으네 잘 들읍서.” 허난, 앓앙 역사를 곤는디 “옛날 옛날 적에 못살단에 잘 살아 저가난 딸들 불러당와네 누게 덕, 누게 덕 물언헌디³²⁵⁾ 나는 그렇게 못 굴안 나 배똥 아래 선 그릇이 덕이우덴 허난 내쫓아 부런 이만큼 살아지닌 이젠 부모들 모셔보젠 영허우다.” “내 경현 사람이라, 아이고.” 경했더라 허여 그제 끝이라.

31. 콩이 꽃이 이야기

제 보 자 : 고정숙(여 · 72세)

317) 14일

318) 왜지

319) 나중에

320) 먹여가도

321) 저쪽으로

322) 부족하게

323) 떨어지고

324) 드시라고 두고

325) 물었는디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재조사)

조사장소 : 고정숙 할머니 집 앞

요약 : 새엄마가 들어와서 팔이를 놓고 콩이는 구박을 받았다. 힘든 일만 하던 콩이는 소가 명주를 풀어주기도 하자 그 소는 죽게 된다. 뻘, 쌀, 국물을 소가 말한 곳에 버리고 어머니가 친정에 간 사이에 소의 도움으로 고운 옷도 입고 일을 한다. 고운 옷을 입고 가다 신을 놔두게 되고 한 할아버지가 그 신을 가지고 콩이를 데리고 가 살게 된다. 팔이 엄마는 찾아와서 콩이를 죽이고 팔이를 살게 하나 나중에는 콩이가 꽃으로 나타나 팔이를 죽이게 된다.

옛날에 어떤 시골에 사람인다, 사느디 홀아방이 각시를 얻었어. 각시를 얻은디 작은 어명 장만 헌지저. 예쁘게 딸을 낳느디 어명 죽어버리니까, 예쁘나? 예쁘지 안허니까 이제 그 작은 어명을 돌아원³²⁶⁾ 낳느디 자기도 딸을 하나 낳어. 딸은 나니까 이제 콩이는 다슴³²⁷⁾ 딸이니까 콩만 주니까 매끈하게 곱고, 이제 콩만 행 주고, 꽃이 맛있잖아. 자기 딸은 꽃만 행 숲아 준거라. 꽃만 숲앙주난 뫼팅이는 곱진 안허여, 얼굴이. 얼굴이 곱지 안허고 콩이는 주니까 콩만 먹영 문작 문들문들 예쁜. 한번은 막 그냥 구박을 했어. 그 딸은 구박을 헤영 어떻게 헌줄 알아? 이제 뒷담턴 창신그릇³²⁸⁾ 내와두고, 앞담턴 창신그릇 내와원 앞담턴 창신그릇. 요렇게 요렇게 헌 내완 창신 그릇 내와두고 작은 방 조그마한 방 있는데 이제 쥐를 잡아서 뱃견. 이제 그걸 애기렌. 그냥 이불 속에 묻은거라. 묻언 놔두난에 이제 묻언 놔둬서 허는 말이 뭐랜 헤신고 허든, 하르방신디. 영감이 어디 갔다오단 보난 아이고 고망서방 헤영 저 딸 우리 집 안은 망했어. 이제. 고망 서방행 아기 낳 묻어두고 앞담턴 창신그릇 내와두고 뒷담턴 창신그릇 내와두고 헤연 지금. 애기 낳 싸 뿔덴. 간보난 쥐잡은 것이 똑 사람의 새끼 닮거든. 경 허난 이제 하르방은 앓앙 죽여볼켄 집안 허주³²⁹⁾를 내왔젠. 칼이 세 개신 가 굴암신디³³⁰⁾ 이제 어떤 할망이 늙은 할망이 "아이고 이 집인 칼 굴안 무시겨³³¹⁾ 허젠 험시닌?" 허난, "저 우리 딸 행실머리³³²⁾ 곳언에³³³⁾ 죽여볼켄 칼 그노랜." 허난,

326) 데려와서

327) 전처 소생

328) 발자국

329) 허물

330) 가는데

331) 무엇을

332) 버릇

333) 나빠서

물 길레 간. 어디가신고 허난 물 질레 갔댄 허난. 이젠 그 물에 돌아가는³³⁴⁾ 거라. 돌아간 빨리 오랜. 느네 아방은 칼굴암젠 허난. 왕와네 “아버지냥으로³³⁵⁾ 죽이젠 허먼 허고.” 칼굴앙 줘서. 주난 먼 산에 올라가난 앉안 만날 해봐도 죽어지지 안허고 아방은 이젠 쉼 몰안³³⁶⁾ 산에 간 나무를 헤영 쉼에 신건 어렇더렁 내려와가난 조름에 왔어. 와시난 작은 어멍이 하는 소리가 “저년 죽으레 가켄 해된, 우리 집안 망허는 거 보젠 죽지도 않고 또다시 왔젠.” 누원 무똥³³⁷⁾으로 완 안트레³³⁸⁾ 달달달달 등그러³³⁹⁾ 가멍 이년 살앙 왔데 허고 바까트레³⁴⁰⁾ 달달달 등그러 가멍 경허곡 이젠 막 그냥 허난 하르방이 “내 아멩이나³⁴¹⁾ 헐건디 누게 경 못살게 군게 경 사람엇인디 나대로 아멩이나 허켄. 내불렌.” 허난 그대로 살았어. 살단보난 어느 날은 이제 그 멩주 꼬리를 주면서 허는 말이 막 범적진 멩주꼬리³⁴²⁾를 몽크런 줏어. 콩이를 주면서, 강 “쉐 먹이고 이거 허영으네 감고 꼬리 감고 출 헤영 오랜.” 이젠 허난 경허켄 행 나간디 그 걸 범벅전 크를수가³⁴³⁾ 없어. 막 노래가 나온거야. 경 험시난 노래부르멍 그걸 클리지 못헿 험시난, 이젠 쉼가 그 즈깁디 강, “콩이야, 날주라 나 먹영 감아주마.” 허난, 아이 주난 옴막³⁴⁴⁾ 들러먹영 안 바까³⁴⁵⁾ 주지게. “요 쉼 저 쉼 나 멩주꼬리 저 못 감은 거 감아 주켄 헉거 바까도라³⁴⁶⁾. 우리 어멍 다슴어멍 날 죽일 판에 빨리 바까도라. 바까도라.” 허난 “나 똥고망드레 치메받으렌.” 치메받으난 그냥 고운 멩주 꼬리가 비단 꼬리가 나왔어. 곱게. 이젠. 싸주난 이젠 찌거전³⁴⁷⁾ 아 출 헤여지고 말안 오라시난 꽃이란 년이, “아이고 너 멩주 꼬리 감았냐? 어떻게 행 감았어? 그 감기 곳은 거 어떻게 감았냐고?” 막 초랭이³⁴⁸⁾ 짓을 하는 거라. 쉼가 감아줘렌 허난 이젠, “내일은

334) 달려가는

335) 아버지가

336) 소를 몰아서

337)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보통 마당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음.

338) 안을로

339) 똥굴면서

340) 밖으로

341) 아무렇게나

342) 멩주 몽치

343) 풀 수가

344) 한 입에

345) 빨아

346) ‘해라’할 자리에 직접 대하여 무엇을 달라고 하는 말.

347) 기빠서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나가 가져 너가 가지 말아. 나가 가져.” 경허렌. 아이 감기 좋은 실을 쥐도 가져강 범
벽정 못 감는 책. 췌는 알미웠던 모양이라. 주렌헨주민 감이주켄 허난 움막 들러먹으
안 바까 주지. “아이고 우리 어멍 욱한다. 바까도라. 바까도라.” 허난, “나 똥고망드레
치메받으라.” 치메 받으난, 췌똥을 작 하게 굴겨불지, 굴겨부난 이젠 뎡주치메에 이제
똥굴졌젠 이런 췌 잡아나 먹어불주기 나똥자. 아니되켄 야단 허멍 몰안 두드리멍 왔
어. 오난 이젠 어멍이 이런 췌 잡아 먹어 불주, 나 치메에 똥췌젠 허난 강으네 도쟁
이(?) 빌어당 잡으렌 도쟁이 빌어당 잡으레 가시난에 쿵이 출주레 가시난 그 췌가 눈
물내면서 날랑 죽거든에 고기랑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이제 살레알드레³⁴⁹⁾ 놔 불
고³⁵⁰⁾, 팡이랑³⁵¹⁾ 툇는 듯 툇는 듯 허멍 창대, 고대왓드레³⁵²⁾ 놔 불고 국물랑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불짓 웃터래 던져불렌.

<조사자 : 살은 어디놓고 뼈는 어디 놔 마씨?>

살은 살레알래 놓고 또 국물은 불짓 위에 놓고, 솥 위에³⁵³⁾, 또 뼈는 고대 왓다.

<조사자 : 대? 고대 대발에 마씨?>

대, 경 놔불렌 했거든. 먹는 듯 먹는 듯 이제 술은 살레 아래 놓고, 국물은 불짓우
에 댕기고 대왓드레 그 뼈는 댕겨부렀어. 경헌디 한번 이젠 어멍이 친정에 잔치 먹으
레 외가에 잔치먹으레 가멍 허는 말이, “지장³⁵⁴⁾ 닛되 정으네(?) 조터맨디(?) ㄱ득
여³⁵⁵⁾ 된, 저 뒤창고망에 강 네 애비 입어난 똥 붙은 저고리 잇이난 허고, 앞 창고망
에 강보라. 느네 어멍 입어난 옷 잇이메 앓앙 입었오렌.” 허거든 예, 예 대답해 된 굽
터진 항에 물 질어당 ㄱ득여 똥 게난 강으네 물 질어 오란 비와 똥 보민, 새들은 지
장 닛 되 한 것에 조조조조 허멍 까두고, 요새저새 먹지말라 요거 다심어멍 체값굴르
문(?)날 죽인다. 요새저새야 먹지말라 행 후~ 행 도리민 파릇하게 놀아나민³⁵⁶⁾ 이젠
체³⁵⁷⁾는 불려나고 쫄³⁵⁸⁾은 쫄대로 잇고, 이제 물을 암만 질어똥 봐도 굽터진 항에

348) 축새

349) 찬장 아래

350) 놓고

351) 뼈는

352) 대발에

353) 솥 위에

354) 기장

355) 채워서

356) 남아가면

357) 거

358) 쌀

물비우듯 한다게 안 그득지. 가막귀가 날아오란 허는 말이, “저 굽영 항굽 굽영 봐라 공골락” 항굽, 굽영 보난 고망이³⁵⁹⁾ 비롱허게 나시난 이제란 “생김이(?) 공장드레 뵈레 봐 공골락. 생김 공장에 뵈려봐.” 생김이 공장드레 뵈려보난 옛날 술각³⁶⁰⁾, 술각, 송진잇이난 앓다가³⁶¹⁾ 부역에 이젠 불살양³⁶²⁾ 구으런(?) 막으니까 시 번³⁶³⁾을 저 다노난³⁶⁴⁾ 항이 그득아 이젠 또 지장 닛 되는 생이³⁶⁵⁾ 들이 다 까주난에 문딱³⁶⁶⁾ 강체갑을(?) 그득였거든. 그득여두고 이젠 가막귀가 허는 말이, “살레 알레에 뵈려보라, 공골락.” 살레 알레에 뵈레 보난 좋은 필 누비바지 저고리에 잇이난 앓안 놔두고³⁶⁷⁾), “불치우에 뵈려보라 공골락” 불치우에 뵈레 보난 가막 창신이 있어. 앓안 놔두고.

<조사자 : 불치가 뭐마씨?>

숫 위에, 불경(창중: 불경이렌 허난 알암서. 요새 사람들?) 모르지 불쏘안 불치 없나? 그거. 이제 놔두고, “창대 고대 왓데 뵈려보라 공골락. 창대 고대 왓드레 뵈려보라 공골락” 창대 고대 왓드레 뵈려보난에 이제 좋은 물³⁶⁸⁾ 안장이 있어. 말 허고 안정허고 잇으니까 그건 앓안 이젠 지왔어. 지완 가왓창신에 빌루비(?) 보선에 그 옷행에 만딱 찰려 입언. 번들번들 말탄 오람시난 반을 가니까 허룩이 털빈거 쓴 할아버지가 앓았어. 아니 할망이 막 늙은 할망이 앓았단에, “아이고 저레가는 아가씨 곱긴 곱다만은 신은 원착이나 노덴착이나 벗어지건 바렌책³⁶⁹⁾ 말안 가렌.” 경허난 가단 보난 물탄 살랑살랑 가단보난 신이 덜커 벗어져. 털어져부러. 경허난 “아이, 바레지 말양³⁷⁰⁾ 가렌 현걸 나 신 아니주.” 가가난 다슴어멍이 저년 몽글년 유기전답을 풀았나, 뿔을 풀양 저 영 곱게 찰려 온다고 욱 허여. 경해도 들어 강 밥상을 받아 앓안 밥을 먹노렌 허난 어떤 () 털버거 쓴 하르방이 들어간 밥 쥐도 말다. 술취도 말다. 고기 쥐도 말다. 아무 것도 안 먹켄 허는 거라. 아무 것도 안 먹켄 헨 앓았다 보계또로³⁷¹⁾

359) 구멍이

360) 관술

361) 가져다가

362) 불을 피워서

363) 세 번

364) 길어다노니

365) 새

366) 모두

367) 꺼내 놔두고

368) 말(馬)

369) 본 책

370) 보지 말고

신 한착을³⁷²⁾ 내노명³⁷³⁾ 허는 말이 요 신 맞는 사람은 내가 드라가켄. 아 경 허난 그 꺾이 어명이 졸락 나간 거꼴로 신영 요레토닥 저레토닥 “내 맞수다.” “아이 맞수다.” “또로 꺾이야, 꺾이야, 이거 오랑 신어보라.” 이거 오랑 신어보라. 이제 나오란 거꾸로 신영 이레 토닥 저레 토닥 “내 맞수다.” “아이 맞수다.” 경허난 콩인 자기 신 이니까 솔짝 나강 신으난 보득이(?) 맞거든. 맞으니까 몰 우터레³⁷⁴⁾ 혹 실어 왕 앉정 가부는거라. 이제 가난에 뒤돌아 상³⁷⁵⁾ 바레지도 앓고 그냥 가불업젠 허난. 경허난 이제 실영 강에 비단 클에³⁷⁶⁾ 비단 짜렌 허멍 과거보레 가멍 허는 말이, 문 다 중가 두고³⁷⁷⁾ 안에 솔독이라, 이제 나무라 다 행 뇌똥가멍 “누가 오라도 문 열아 주지 말고, 배꺾터레도 바레지 말고 그냥 이시렌. 앓앙으네 여기서 비단만 짜렌.” 경허켄 행 잇인디 하르방은, 그냥 그 영감은 과거보레 가불고 이젠 헌디 그 다슴어명이 좇아간 거라. “아이고 영영 헌디가 이디가 맞으넹?” 경허난, “맞긴 맞은디, 어디서 좇아완 디?” 허난에 “아이고 콩이 보레 오라시예. 나 딸 이레 바레라. 이레 바레라. 흙곰 얼굴이나 아이고 흙곰만이라도 얼굴만 문안 열와줘도 좋다게 얼굴만 바레켜, 얼굴만 바레켜 ” 허난에, “아이고 바레질 것고 엇고 들을 것도 엇수다.” 허연, 하도 허난 이제 얼굴 요영 바레난 진개시똥(?) 죄언³⁷⁸⁾ 오랴단 양지레 아이 바레니까 착 땃겨분거라. 경허난, “아이고 저 얼굴 아이고 세상에 집안에만 살앙 해 노난 아이고, 저 얼굴이 뱃경 진개똥, 진개똥, 오라 강 씻어볼게. 연못에 강 씻어볼게.” 하도 허난 이젠 마지 못행 나가나네 이것도 뱃이라, 이것도 뱃이라 저것도 뱃이라 문짝 옷 뱃경 등에 몰 뇌주켄 해연, 옷 뱃건 뇌두난, 이젠 뱃겨지난 굽으난 물레에 연못드레 자락 것 밀언 죽여 분거라, 콩이를. 경허난 이젠 자기 딸 그 옷 문짝 입져두고 앓전 비단을 짜렌 비단을 짤 줄 모르고 이레 얼걱 저래 얼걱허연 허단 이젠. 연삼년 경 해가난, 연 삼년 났던 모양이라. 하르방이 과거방 들어오란. 들어오란 암만 모로봐 옆으로봐 해도 자기 마누라가 아니거든. 이젠 물었어. “어떻행 자넨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어 불어 시니?” 경 곤³⁷⁹⁾ 얼굴이, “아이고 과거 보레 가분 후제³⁸⁰⁾ 마누라 허영 얼근 명석에

371) 주머니에서

372) 한쪽을

373) 꺼내면서

374) 말 위에

375) 뒤돌아서서

376) 틀에

377) 잠그고

378) 갓고

냥 탈탈 둥그러나부난 경했주기.” 경해신가보다. 혼변은 연못에 물 물먹이레 가신난
고운 꽃이 나왕 하~악 웃어둥³⁸¹⁾ 움막 기여들어부러, 또 뒷녘날도 가민 화~악 웃어
뒹 움막 기여들어부러, 삼일 채는³⁸²⁾ 노시³⁸³⁾ 물을 못 먹게 허난 영감 하는 말이 “나
이제 태운 꽃이진 돌머리에 올라 앉으른 나가 이제 돌아가켤.” 허난 아이 그제 이제
웃으멍 돌머리, 머리에 앉으난 후에 영 앉아올란 둘이라던고라. 앞에 하나 꽃고 뒤에
하나 꽃안 놔두난. 하르방 나갈 때민 뒷살짝 술기³⁸⁴⁾ 쓸어주고 들어올 때 앞살작 영
돌어 쓸어주고 할망은 장 거리래³⁸⁵⁾ 갈 때민 머리 박 허게 메불곡³⁸⁶⁾, 뒷머리 박 허
게 메불곡, 앞머리 박 허게 메불곡 허난괘셈허덴 이젠 불러래³⁸⁷⁾ 앓단³⁸⁸⁾ 꼭 질어부
렀거든³⁸⁹⁾. 불살란³⁹⁰⁾ 경 허난 그제 구실³⁹¹⁾이 되었어. 고운 구실이 되난 이젠 동네
할망은 불담으레 오랏단 “아이고 이 솟강아래³⁹²⁾ 어떤 영 고운 구슬 잇으냐?” “아이
고 거 고만 나두슈. 우리 일곱아들 낭으네³⁹³⁾ 고메(?) 채우젠. 저 구실 봉강³⁹⁴⁾ 놔뒀
수다.” “경허주기” 이제 가부난 이젠 비단 허영네 싹 께에 툇허게 들어놔서, 들어놔
놔두난, 그자 그거 들어논 후제는 동네 할망이 보면은 집이 사람 엇이면은 안 허고
사람 어디 나가불면은 문 열아지고 낮인³⁹⁵⁾ 내가³⁹⁶⁾ 풍풍풍 나고 사람 올만 허른 문
더꺼지고³⁹⁷⁾ 내도 안 나고. 하도 경 여러 날 해가 난 저 영감고라 허는 말이, “어디
강으네 도치(?) 빌어오랜. 허영그네 신 삼으켤 핑계해동 저 집이 들어보랜. 낮이 사람

379) 예쁜

380) 뒤에

381) 웃어두고

382) 삼일째는

383) 전혀

384) ?살짝

385) 갖으러

386) 잡아버리고

387) 불 속에

388) 가져다가

389) 장작으로 때어버렸다

390) 불을 피워

391) 구슬

392) 술 아래

393) 낳아서

394) 주워서

395) 낮에는

396) 연기가

397) 닫아지고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이 없으면 문 열아지고 내가 나고 이제 저물앙³⁹⁸⁾ 올 때 되어가믄 문 더겨지는 송시가 이상허메 경헤 보레허난 아, 경허켄, 헤서 행 이젠 하르방은 신 삼오멍, “저 오늘 랑 검질메레³⁹⁹⁾ 못 감시메⁴⁰⁰⁾ 강으네 자네만 강 검질 멩, 올 때랑 닐⁴⁰¹⁾은 낭 헤오 크메⁴⁰²⁾ 도치 빌어 오주.” “아이고 듣젠, 아이고 듣고 보젠.” 현디 경허난 현, 낮이 되어가난 방에 캐문이 달각 열어지는 거라. 어평 허난 캐문이 열아점신고 헤영 귀신 이건 나오지 말고 생인이건 나오렌 허난 “귀신은 무신 귀신이 잇임니까 생인이노렌.” 나온건 보난 콩이라. 예쁜⁴⁰³⁾ 사람이 이젠 나오난 이젠 되젠. 스실⁴⁰⁴⁾ 여기 허고 이젠 문딱 허난에 큰 가마술을 앓정⁴⁰⁵⁾ 이젠 군불에 물을 끓이렌 허난 경허연 앓전, 끓염시난 할망이 들어오멍 “어평허연 여천이(?) 오란 앓안, 영 누추한 집이, 불을 때여 점신고?” 경 허난 “영 넘어가단 보난 날이 점글언, 불숯암시끼레 ㄱ찌 영 숯아뵈수덴.” 허난 “아이고 고마울세라, 아이고 고마울세라.” 허멍, 하르방이 허는 말이 “이레 가마솥에 바우로⁴⁰⁶⁾ 뱅뱅 동침채왕(?) 내려사민은 나의 계집이고 못 채왕 내려사민 나의 계집아니덴.” 콩이는 하늘님더레 축수 손 시번 해두고 치메 다 가마솥바우고 뱅뱅 돌안 동침채왕 감안 술짝 내려사고 쫓이는 이젠 올라산 반은 돌아가난 물레레⁴⁰⁷⁾ 탐방 빠진거라. 그 피는⁴⁰⁸⁾ 물레레 경 허난 그건 이젠 건져내연 문딱 그냥 울울이 오려내, 이젠 젓을⁴⁰⁹⁾ 담은거라. 사람을. 젓을 담안 이젠 나듬서⁴¹⁰⁾ 어멍 그 쫓이 어멍 오면은 “어머니 오십데 강” 허멍 쏄밥 허여 놓고 스못 지름(청중 : 그 젓 허여 놓고) 응, 그거 허영 고기허고 허영 이넌 반찬허영 허난 아이고 잘 먹고렌, 느랑⁴¹¹⁾ 땡길 때마다 그걸 허영 드러서, 딸레 집인 맨날 딸이 행 주는 걸로, 아, 맨날 오란 먹으거렌. 먹단 손꼽허고 발톱허고 남아시난에 느⁴¹²⁾ 애기 고기 막 먹어시난 다시랑 오지도

398) 저물어서

399) 잡초 뽑으러

400) 가니까

401) 내일

402) 나무해서 오겠으니

403) 예쁜

404) 사실

405) 놓아서

406) 옆으로

407) 물에

408) 끓는

409) 젓갈을

410) 두고서

411) 계속

말고 돈 먹어시킨 오지 말렌. “아이고 나 애기 고기 먹어졌구나. 대죽앞에 가라 피피 피. 어욱앞에도 가라 피피피, 경헨 바끄난⁴¹³⁾ 이제 그 대죽앞에 벌긔벌긔 헨 거 허고 어욱앞에, 억새에 벌긔벌긔헨거 거 꾀이 피렌. 경 허엿 그 사람네 역사로(?) 잘 살아 덴 허여 그제 끝이라.

32. 지붕 위의 남자(도평의 여장사)

제 보 자 : 김치하(남 · 66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도평분교

요약 : 도평에는 '장군재'에 여장군석이라는 큰 바위가 있어서 옛날부터 힘센 여장사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남자들이 수난을 많이 당했는데 한번은 지관의 도움으로 여장군석을 깨뜨려 버림으로써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또 한번은 외도에 서 가져 간 뽕들을 바닷물을 길러간 할머니가 뽕들을 되찾아 오기도 했다.

<조사자 : 힘센 여장사 얘기, 어떻 했더라 하는 얘기 마씨?>

거 힘센 여자, 여자분은,

<조사자 : 예.>

어떤 분이나? 이 우리 마을에 저 서쪽에 가면은 '장군내'라고 있어. '장군내'.

<조사자 : 물이우파? 시내 마씨?>

'장군내'라는 것이 그 즉 말하자면 내가 흐르는 디를(곳을) '장군내'라고 허는데, 그 '장군내'라고 허는 것이 그 연날에, 여장군석이 잇었어요. 여장군석.

<조사자 : 그 냇가에 마씨?>

여장군석이 잇었는데 그 여장군석이 잇기 때문에 우리 도평이, 즉 말하자면 거, 여자분이 센, 힘이 센 분덜이 예, 계속적으로 나왔단, 이 말이여.

<조사자 : 예> 해서 하도 거 힘이 센, 예, 여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이 수난을 당했어.

<조사자 : 어떤 식으로 마씨?>

해서 좀 말다툼을 해지거나 뭐 헤어도 여자가 남자 딱 잡아서 지붕 윗트레 던져부

412) 너

413) 뻔으니까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렀어. 지붕 옷트레 던져부니까 아, 이제 자주 거 혼 번 두 번 해서 거, 남의 눈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딱 혼번은 딱 던져 있는데 아, 신안(神眼)이 딱 넘어가다 보니 아, 딱 지붕우에 아, 거 남자분이 잇다 말이어.

“당신 어째서 거기 올라갔소?” 허니까 마누라 던져부니까 갓다고 허기는 쟁피허고, “궁(414) 타레 왔습시다” 허니까, “궁은 뭐 줄도 없는 궁이 뭐, 뭐. 지붕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궁을 타러 왔다는거는, 뭘 궁을 타레 갔냐고 말이야? 나는 알고 잇다. 너 마누라 던져 부러서 간 것 아니냐?” 허니까 아, 이 그 사람이 딱 내려와 갓고

“아, 신안님 어째서 제가 거기 간 거를 알고 있습니까?” 허난 자기는 풍지지리, 신안이라, 이거라.

<조사자 : 신안 마씨?>

풍수지리, 즉 말하자면 지리, 요즘 같으면 지리학 박사. 아, 저, “아, 그러든 어째서 이리끔 여자가 힘센 사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야기 허니까,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도 예, 여기에 사는 남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거 할 수 있지. 아, 문제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저 내에 있는 큰 그 여장군석이 즉 말하자면 여장군석이 있기 때문에, 그 즉 말하자면 그 혈을 쫓아갔고 여자분이, 센 분이 나온다” 해서 즉 말하면, 그러면은 예, “잘 알았습니다.” 고 해 갓고 청년들이 모여 가 갓고 그 여장군석을 부수와 부렸어요 부수와 분 후에는 힘센 여자분들이 안 나오고 즉 말하자면은 힘센 여자분이 나올때는 우리가 듣기로는 홍침이 할머니라고 얘기하겠는데, 옛날에는 그 똥돌이라고 허는 것을 알죠?

<조사자 : 예>

사람 힘겨루기, 그 똥돌을 타동에서 와서 가져가불면은 이 동네가 진 거예요. 즉 말하자면 저 동네 가서 똥돌을 가져오면 우리 동네가 이긴거야. 계난 우리 도평 모르게 외도 청년덜이 그 냉 똥돌을 가져가 부렸어요. 똥돌을 가져가 부니까 가버렸는데, 그 할머니가, 옛날에는 장을 담그거나 김치를 헐라면은 바닷물을 질어다가(415) 그 소금을 애끼기 위해갓고 소금을 애끼니까 대용을 하고 또 그 소금물을 아따가(416) 썩혀서 밧(417)에 주면은 즉 말하면은 유기질이 되어서, 저, 어 농사가 잘 됐어. 해서 아침

414) 박

415) 길어다가

416) 가져다가

417) 밧

일찍 촌 물을 길러 딱 오다보니 막 환호 소리가 난다 말이며. 외도에서. ‘야! 이상히다’ 여기 뭇을, 뭇 장사가, 연날에는 장사가 오면 막 모여들어났는데 뭇 장사가 왔다, 또 영 강⁴¹⁸)보니까 아, 도평 뚝돌을 가져왔어. 뚝돌을 막 즐겨워서 환호를 하고 있어. 촌물을 정 오다가 그냥 치매를 펴고, “야! 어떡허면 우리 밴디⁴¹⁹) 뚝돌 와서?” 치매를, 치마를 딱 펴고 그 우에 뚝돌을 딱 놔서, 딱 들런 오는 정도의 힘 가진 분이야. 감히 누가 덤비겠어? 뚝돌 가져가는 것도 몇 십명이 모다 들어서⁴²⁰) 굴러가실건데, 들르지도 안 허영. 헌데 촌 물 허벅에 지곡 뚝돌을 치마쪽에 놔서 들를 정도면은 얼마만큼 센 사람 같아요? 남편 심어서 뭐, 지붕 우에 던질 것 같아, 안 던질 것 같아? 그니까 가정 와서 이제 거 우리 상동 둥카름⁴²¹) 큰 못 어염에 딱 뚝돌 잇어난 자국에 닥 놓면서 청년보고 “야! 이거 밴디 뚝돌, 도근내⁴²²) 가정 강 막 환호했시난에, 나 촌 물 정 오단이 가져왔져.” 그러끔 해서 그 할머니가 가져왔다고 이러끔 하고,

힘이 어떻게나 센지, 남편님을 그러끔 던져 놀 적에야, 남편 때리면은 가 불거고, 웅? 화나면은 어떠냐면은 콩을, 두섬 석섬 드는 맥(?)을 들러서 말이며. 옛날에는 말이 이만큼 현 것을 이만큼 아주 탄탄한 망으로 했는데, 들러서 말이야 화나면은 그 맥을 들렀다가 아래에⁴²³) (아래로) 말이 딱 꺾어져 부러디는거라. 그러면은 남편이 무서워서 이야기 안 허고, 이러끔 뭐해, 자제를 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우리 그 아버지네 이런 그 분들이 아자서⁴²⁴) 이런 이야기를 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가 이런 이야기를 허는 거야.

33. 도평의 지형

제 보 자 : 김치하(남 · 66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도평분교

418) 가서

419) 평디, 도형: 평평한 땅

420) 힘을 합해서

421) 둥, 동네

422) 외도

423) 아래로

424) 앉아서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요약 : 양쪽으로 내가 흘러서 물에 뜬 고기 비늘 모양이라고 한다.

그러고 예, 우리 도평은, 이 지역이, 고, 물에 뜬 고기비늘 낚이다. 이러끔 허는데, 물에 뜬 고기비늘 낚⁴²⁵⁾이라는게 왜 그런 인간이 나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양쪽으로 다 내고 내가 흘러서 이러끔 딱 마주치지. 경 허영 동그랑 헐디 딱 있어. 이러끔 허기 때문에 고기비늘 낚이라고 해서 합수(合水)가 잘 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도평 농민들이 단합이 잘 된다. 이러끔 그 옛날부터 전설이 그러끔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34. 지관이 된 산지기

제 보 자 : 김치해(남 · 66세)

조사일시 : 2000년 7월 30일

조사장소 : 도평분교

요약 : 산지기가 노루를 뒀에서 풀어줘서 지관의 능력을 얻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아 조천으로 갔는데 거기 사람이 대접을 잘해서 그 집의 땅을 전부 봐주어서 그 집이 번창했다. 그 집의 묘들도 명당인 도평의 '콧등마루'에 지금도 있다.

예, 또 이제 이 남쪽으로 가면은 사람이 명상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콧등마루라고 있어요. 콧등마루. 콧등마루라는 것은 코 이것이지(코끝을 가리키며) 콧등마루 아니예요? 여기에 그 삼을 쓰니까 외도에 지리, 자손들이 많이 번창한다. 이러끔 이야기 허는데 그 우에⁴²⁶⁾ 올라가면은 천산이마, 이마라는게, 이마. 천산이마라고 해서 천사이마라고도 하고 이리동산이라고도하는데, 거기에는 조천관 집의 묘가 여러 개 있어.

<조사자 : 조천관 집이?> 조천관 집이.

<조사자 : 뭐 하는 집 마씨?>

옛날에 조천관 집이 현 것이 어떻게 해서 그 나왔느냐 허면은 연날에 산마다 산지기가 있었어요. 연날에는 즉 말하면은 산지기가 있었는데 산지기가 간을 한번 돌아보다 보니까 노루새끼가 허여 들었어. 하도 불쌍해갔고 그 노루새끼를 떼어와 뒀더니 밤에, 꿈에다가 “아, 나는 산신인데 아 당신 덕분에 살았으니 당신은 지관이나 해내

425) 모양, 닮다, 비슷하다

426) 위에

시오” 지관이라고 한게 즉 말하면은 풍수지리를 말하시는데, 이 근방에 사람 전부 다니면서 풍수지리를 해주겠다고 해여도 산지기가 뭇을 알겠느냐고 해서 아무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집을 넘어서 조천을 갔어. 조천을 가니까 신 삼을 때 나룩⁴²⁷⁾ 칩⁴²⁸⁾에 붙은, 저 뭐, 이런 멍석덜이, 나룩 칩에 붙은, 나룩 가루를 띠어놔둔 것을 모여, 모와 놔둔 걸로 밥을 지어 그 분에게 대접을 하면서 “신안님, 오셨습니까?” 침말로, 침 잘 대접을 잘 하니까 그때부터 그 산을 전부 다 봐주기로 해서 전부, 여기만이 아니고 이 남쪽 해안 신디는 전부 조천관 집이거, 저 너른 밧 알녁편⁴²⁹⁾이나 즉 말하면은 ○○○뒫산이나 ○○○○이나 즉 말하면은 ○○○○이나 즉 말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밧덜이 조천관 집의 거주. 그 그 산을 이장해다가 잘 모시니까 자손들이 다 출세를 해서 관내에 입제⁴³⁰⁾를 많이 해니까 조천관 집이라고, 조침관 김칩이다. 이러끔 해서 조천관 집이라고 이야기 허는, 이야기 험다고 해서 여기서도 보통 조천관 집, 집의 산이다. 이런 얘기를 허시는 겁니다.

<조사자 : 조천관 집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 마씨?>

조천관 집의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묘덜이 즉 말하면은 아까 이야기 했지만 이마 곶은 디. 그니까 명산이라서.

<조사자 : 일부러 찾아와서…….> 자손들이 홀룡해서, 홀룡하게 나갔고, 관에 입자를, 입자를 많이 허기 때문에 조천이지만은 조천관 김칩의 산이다. 거난 조천관 집이라 하면은 모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주도 안에서는 아마 유명허다. 그런 묘덜이 지금 혀에다가 다 묻혀있다. 이 말씀으로 그 우리 도평동 내에.

<조사자 : 그 집의 묘들이 도평에 있으니까 그 집이 잘된 거 마씨?>

그러끔 해서 소문을 듣는 거지.

<조사자 : 풍수지리를 잘 봐 가지고 여기 일부러 묘를 쓴 거 아니예? 여기가 좋다 해가지고.>

그렇지.

427) 버

428) 짚

429) 넓은 밧 아래쪽

430) 갓, 입자(笠子), 벼슬을 함

신 앙

— 목 차 —

- I. 개관
- II. 공인종교
- III. 신흥종교
- IV. 민간신앙

I. 개 관

외도동 일대는 크게 외도1동과 도평, 내도, 월대, 연대로 나눌 수가 있다.

외도동의 공인종교로는 불교와 기독교가 있다. 수정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않으며 광제사와 흥룡사의 신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제주도에서도 규모가 큰 성지교회와 건물신축중에 있는 서부침례교회가 있다. 신흥종교인 도덕협회가 있으나 외도동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

외도동의 민간신앙은 남성중심의 마을 포제와 여성중심의 당신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도동 일대에는 관청의 보조 아래 지금까지도 포제가 행해지고 있다. 외도1동, 도평, 내도, 월대, 연대 다섯 곳에서 포제를 지내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당신앙은 매우 약한 편이다. 외도동의 우렁이본향당은 터만 겨우 남았으며 월대의 당은 이미 사라졌다. 도평당과 내도의 당은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메인심방이 없는데다가 내도 하르방당인 경우는 도로공사로 당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 그 민간신앙 역시 사라져간다고 볼 수 있다.

II. 공인종교

1. 불교

1) 광제사

① 명칭 : 廣濟寺(경전에 나온 광도중생에서 비롯된 말로 중생을 고태에서 구제한다는 뜻이다)

② 종파 : 조계종

③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814

④ 건물 : 사찰부지 2200평, 법당(목조) 50평, 요사채(후원) 50평, 가건물이 있다. 대웅전 내부에는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지장보살을 모셨다.

⑤ 연혁 : 10여 년 전 천왕사 주지로 있던 법우스님이 절을 나오려고 하자, 당시 신도회를 이끌던 사람들이 위원회를 결성하여 외도 지구에 도량 건립을 추진하였다. 1993년 봄에 땅을 매입, 그 해 12월 27일에 개사법회를 열었다.

⑥ 주지 : 법우 스님(法雨, 47)이다. 충청도 출생으로 1969년 여름 입도하여 한림 동명에서 사람들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여 천왕사 주지를 거쳐 광제사를 창건하였다.

⑦ 신자 : 처음 출발은 60세대였으며 외도와는 관계없는 타지 사람들이 모였다. 1999년부터 점차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용담, 일도, 이도, 삼도 등에서 다니고 외도에서도 30세대 정도 더 다니게 되었다. 현재는 100세대 정도가 다닌다.

⑧ 법회일 : 음력 매월 초하루(신중기도), 보름(고혼기도), 24일(관음제일) 이렇게 한 달에 세 번 정기 법회를 연다. 매주 일요일은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법회가 열린다. 공통적인 행사들을 하고, 때에 따라 계획을 세워 법회를 하기도 한다.

⑨ 운영 : 신도들의 불전으로 운영한다.

⑩ 당과의 관계 : 불교는 무속 신앙을 흡수하는 경향이 전세계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며 믿음은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 매우 개방적이다.

⑪ 금기 : 강제적으로 금기시키는 것은 없다.

2) 흥룡사

① 명칭 : 興龍寺

② 종파 : 태고종

③ 위치 : 제주시 도평동 1038

④ 건물 : 대웅보전, 요사채, 식당이 있다. 입구에 사천왕문이 있으며 대웅보전 옆에는 따로 미륵불와 산신을 모신 단이 마련되어 있다. 식당 앞쪽으로는 종각이 있다. 법당에는 대세지보살과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3존불을 모시고 있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⑤ 연혁 : 도평에는 과거에 용장굴(龍藏窟)이라는 절이 있었는데 용장굴에는 옛날부터 석불삼존(石佛三尊)이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들을 낳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다. 약수샘이 있었는데 부정한 사람이 물을 만지면 물이 나오지 않다가도 불공하고 기도하면 물이 원래대로 솟아난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일제 시대에 김영선이라는 스님이 사찰을 유지하다가 4.3 항쟁 때 전부 소각되고 마을을 재건한 이후에 본 마을 출신인 홍순녀가 사찰을 재건하여 홍룡사로 이름지었다. 홍순녀(洪順汝, 72)는 절에 기거하고 있으며 신도들은 보살 혹은 이서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⑥ 주지 : 덕홍사의 조성민(법명 : 조상어)스님이 주지이나 절에 상주하고 있지 않으며 고성관 스님(법명: 지전)이 절의 수양상제로 거주하고 있다. 절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홍순녀(법명: 洪福德行)라고 볼 수 있다.

⑦ 신자 : 도평뿐만이 아니라 각처에서 약 3천여명의 신도들이 많이 모여드나 특히 제주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300~400호 정도가 다니고 있다고 한다. 신자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이 절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제주도 전역에 신자가 분포해 있다.

⑧ 법회일 : 음력 매월 18일 지장제일, 24일 관음제일과 정월 보름, 칠월칠석, 백중, 10월 보름 등 1년에 몇 차례의 일반적인 행사가 있다.

⑨ 운영 : 신도들의 불전으로 운영한다.

3) 수정사(水靜寺)

주지스님이 병환중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대 사찰 수정사의 명맥을 이으려는 취지에서 건립된 것 같으나 확실한 사실은 알 수 없으며 종파 역시 불분명하다.

고대 사찰 수정사는 법화사, 원당불탑사와 더불어 제주 3대 고찰 중의 하나로 「조선왕조실록」, 「탐라지」 등 각종 문헌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 26년(서기 1300년)에 원인(元人) 황후의 원(願)에 의하여 지어진 것으로 숙종 28년(1702년) 목사 이형상에 의해 폐찰되었다. 당시의 사찰은 법화사와 더불어 제주의 2대 비보 사찰로 노비 수만 해도 13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한다. 지금은 대형 주춧돌만 남아 도량을 지켜오고 있다.

2. 기독교

1) 제주성지교회

① 명칭 : 제주성지교회

② 위치 : 외도1동 378-1

③ 건물 : 총 대지 680평, 교회당 440평(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문화시설(교육관) 70평, 주차장 20평, 교회부속건물(사택겸 모임장소로 이용) 20평

④ 연혁 : 1917년 5월에 창립하였다. 산북 선교사 김창국 목사와 전도인 홍순현 씨의 전도로 신도 박연월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처음이다. 박연월이 자신 소유의 초가삼간을 헌납하여 교회로 사용하다가 1922년에 예배당을 증축하였다. 1921년 4월 조선총독부에 교회설립계를 제출하고 1931년 5월 처음으로 예배당을 신축하였다. 1981년 기존 교회당을 매각하고 현재의 외도1동에 대지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수리하여 교회당으로 사용하다가 1988년 교회당을 증축하고 2층 교육관을 증축하여 성지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았다. 1996년 대지 143평을 다시 매입하였으며, 1998년 9월 신축기공 예배를 드리고 1999년 7월 입당 예배를 드렸다. 현재는 봉사관을 지을 예정에 있다.

⑤ 신도 : 400여 명 정도로 세례교인이 200여명, 학습교인이 10여명, 원입교인이 160여명 정도 된다. 지금은 외도동 주민이 전체 신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⑥ 대표자 : 성도홍 목사

⑦ 운영 : 신도들의 헌금으로 운영

⑧ 예배일 :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금요 심야기도회가 있으며 정기행사로는 어린이 성경학교 등이 있다.

⑩ 당과의 관계 : 과거 당신앙이 강했을 때에는 교회와 목사를 귀신이 도망간다고 하여 배척하였으나, 최근에는 당신앙이 미약해져서 신도 중 토박이가 대다수일 만큼 전도가 자유로워졌다. 신도들은 십계명에 따라 당에는 다니지 않는다.

2) 서부침례교회

① 명칭 : 서부침례교회 (침례(浸禮) 라는 말은 헬라어로 '잠기다'라는 뜻이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장로교에서는 이를 세례(洗禮)라고 한다. '외도중앙침례교회'에서 '서부침례교회'로 교회명이 변경되었다.)

② 위치 : 외도2동 272-32

③ 건물 : 16평 교회당, 사택 25평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④ 연혁 : 현 대표자 장장수 목사가 부산에서 포교활동을 하다 1988년 3월 28일 제주도에 정착하며 외도중앙침례교회를 창립하였다. 115평대지에 사택25평을 짓고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1년 6개월 후 16평 교회를 신축하였다. 2000년 1월부터 서부침례교회로 교회명을 변경하였으며, 2000년 2월 7일부터 교회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현재 외도1동의 140평 대지에 교회건물 45평, 예배당 28평의 3층 건물을 공사중이다.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2층은 어린이집으로, 3층은 사택으로 이용할 예정이다.

⑤ 신도 : 일정하지 않으나 10~20명 안팎이다.

⑥ 대표자 : 장장수 목사님

⑦ 운영 : 원칙적으로는 교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되나 지금은 거의 사비로 교회 신축과 운영을 하고 있다.

⑧ 예배 : 매일 새벽기도(5시부터), 수요일 저녁기도(오후 7시~10시), 금요일 철야기도(오후 10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린다. 행사로는 여름 성경학교, 체육 수련회, 어린이 주일학교 등이 있다.

⑨ 주민들과의 관계 : 외도 지역은 포제가 남아 있고, 친족이 많아 포교가 힘든 지역이라서, 교회신도들 중에서도 외도 토박이들은 별로 없다고 한다.

III. 신흥종교

1. 도덕협회

① 명칭 : 국제도덕협회 일관도(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및 회교의 사상을 혼합하여 일관된 종단을 형성한다는 뜻)

② 종파 : 일관종

③ 위치 : 제주시 외도1동 555

④ 건물 : 법당과 이어진 숙소가 있다. 불당에는 김복당 전인의 사진이 걸려 있고 좌측 벽에는 지장보살이, 중앙에는 (보는 위치에서) 왼쪽부터 순양여주, 팔불사존, 미륵불, 관세음보살, 관성제군의 상이 있어 모두 여섯 분을 모시고 있다. 법당의 중앙 천정에는(미륵불 위) ‘繼往聖拜來學’이라고 쓰여있다. 석가가 3000년이면 가기 때문에 가시는 부처님을 숭배하면서 다음에 오는 미륵부처를 맞이한다는 뜻이다. 그 아래에는 ‘慈航普渡’라고 쓰인 액자가 걸려있는데, ‘이 배에 오르라’는 뜻으로 중생들을 구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⑤ 연혁 : 도교적인 색채와 불교적 요소, 그리고 중국의 민간 신앙이 혼합된 일관도는 1947년에 중공의 종교 탄압을 피해 나온 3명의 중국인이 홍콩을 거쳐 천진으로부터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시작된다. 이 세 사람을 삼전인(三前人)이라고 한다. 이들은 1952년 도덕초기회를 구성하였으나 중국으로 돌아가고, 중국인 김복당이 도맥을 계승하여 국제도덕협회를 만들었다. 신앙대상은 명명상제(明明上帝)를 위시하여 미륵불을 본존불로 모시고 있다. 주신(主神)이외에 유교·도교·불교·기독교·회교의 제불과 제성까지 섬기기 때문에 무상(無上)의 대도(大道)이며 이 속에서 세계의 모든 종교가 생성한다고 믿고 있다. 교단의 법단에 안치한 미륵불상의 모습이 교주 김복당의 모습과 유사한 점으로 보아서 교주 자신이 미륵불의 화신이라고 보고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서울특별시 흑석동에 재단법인 국제도덕협회(일관도) 본부가 있으며, 제주도에는 연동에 처음 지부가 생겨 제주도 전역(대정, 서귀포, 고산, 성읍 등)에 퍼지게 되었다.

⑥ 대표자 : 문영희(80)

⑦ 신자 : 20~30명 정도로, 큰 행사에는 30~40명 정도까지 불당을 찾는다. 노년층이 많으며 30대도 다닌다.

⑧ 법회일 : 하루 3시 예불을 드린다. 매년 정월초하루, 정월 보름, 석가모니 성탄절에 행사를 연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 낮 12시에 불공을 드리는 데 나이 구분 없이 20명 가량이 모인다.

⑨ 금기 : 육류는 절대 먹지 않는다.

IV. 민간신앙

1. 포제

도평

1) 제명 : 포제

2) 제신 : 포령지신

3) 제일 : 입추가 지난 음력 7월 첫 정일(丁日)에 지낸다. 정해일(丁亥日)이 가장 좋으나 마을 상황을 고려하여 제일을 정한다.(상이 나거나 하면 다음 정일로 옮긴다)

4) 제장 : 서랫댕기에서 지금은 여룡으로 옮겼다. 여룡(웃동네)남동쪽 273번지 임야에 도평동 포제터가 있으며, 제장에는 한쪽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5) 제의 관리 : 제일 2주일 전쯤 마을회관에서 마을총회(향회)를 열어 제관을 선정하고 합숙일, 제일 등을 결정한다. 남성은 물론 여성들까지 세대별로 참석하여 전반적인 마을 일을 논의하며, 총회 마지막에 포제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마을회장이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연락한다.

6) 제비 : 일정액(1999년 호당 5000원, 2000년 호당 3000원씩)을 마을에서 걷는다. 주민들이 낸 회비와 들어온 찬조금을 합하여 마련한다.

7) 제관

① 제관자격 : 제례법을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미혼자나 상을 당한 사람, 불구자는 제관이 될 수 없다. 전사관은 나이가 50세 이상이어야 하고 전사관의 집에는 처녀가 없어야 한다. 과거에는 자격을 엄격하게 따졌으나 지금은 사람이 부족하여 잘 따지지 않는다.

② 선출방법 : 제일 전에 열리는 향회를 통해서 선출된다.

③ 제관의 종류 : 과거에는 13명이었으나 지금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알자, 대축, 찬자, 봉향, 사준, 봉작 이렇게 10명으로 줄어들었다.

④ 합숙 : 옛날에는 7일 동안 합숙을 했었으나 지금은 3일간 마을회관에서 합숙을 한다. 이 기간동안 제관들은 외출을 금하고 마을회관에서 합숙을 한다. 부녀회에서 마련한 식사를 함께 하며 행제 연습을 하기도 하고 한담을 즐기기도 한다. 이때 개고기와 같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

8) 제물

① 메 : 조, 피, 쌀을 찌서 올린다.

② 희생 : 돼지 한 마리를 날 것으로 올리는데, 내장을 빼고 통째로 올린다. 이때 염통과 간은 따로 올리고 다른 내장은 버린다. 옛날에는 합숙 3일째 되는 날 정오쯤에 검은 수탉지를 잡았으나, 지금은 양돈업자에게 주문한다.

③ 채소류 : 미나리를 올린다.

④ 포 : 생선을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 한 근을 포회라 하여 올린다.

⑤ 실과 : 밤, 대추, 비자는 반드시 올리고 복숭아를 제외한 다른 실과 몇 가지를 더 추가하여 올린다.

⑥ 제주 : 감주를 썼으나 지금은 청주를 올린다.

⑦ 폐백 : 시렁목과 종이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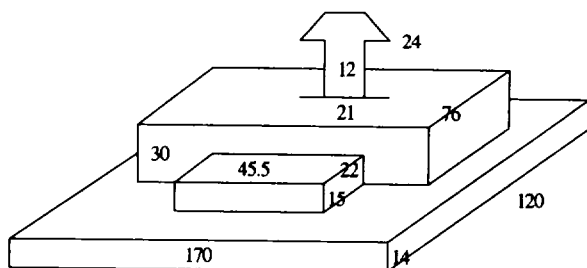
9) 제복과 제기 : 제복은 마을회관에 따로 보관하여 포제 할 때만 꺼내어 쓴다.

제기는 작년부터 스텐레스 그릇으로 따로 마련하여 제복과 함께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다.

10) 제차

- 12시에 제를 지내고 제가 끝나면 음복 후, 돼지는 제관과 참석자에게 나눠준다.

11) 포제단



12) 금기 : 옛날에는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쳤는데 1998에는 금줄과 현수막을 같이 쳤다. 포제를 할 때에는 몸이 비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한다. 원래는 몸이 비리지 않은 50세 넘는 사람들이 포제를 진행하였으나 4·3항쟁 때 사람이 많이 줄어 그 후에는 직장에서 휴가를 받은 이들이 포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남자들만 음식을 장만했으나, 지금은 50세가 넘는 부녀자들도 참가가 가능하여 음식을 직접 준비한다. 그러나 포제를 지낼 때 여자는 참석할 수 없다.

연대

1) 제명 : 동제(冬祭)

2) 제신 : 이사지신(里社之神)

3) 제일 : 음력 정월 초 정일(丁巳)날에 치른다. 마을에 상이 나거나 하여 몸이 비리게 되면 다음 정일날을 택하게 된다. 언제부터 포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4·3항쟁 때 잠시 중단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어진 편이다.

4) 제장 : 외도 2동 1956-34번지(마을회관). 마을회관이 있기 전에는 김선달 씨 소유의 밭에서 지냈다. 밭 가운데 자연석이 있고 주위가 깨끗하며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아 제장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마을회관이 지어진 3년 전부터 마을회관 2층에서 포제를 지낸다. 포제를 겨울에 지내므로 추위와 바람이 심해 제를 지내기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가 힘들어 포제터에서 지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연대 마을회관을 신축중이며 그곳에서 제를 지낼 예정이다.

5) 제의 관리 : 음력 정월달(양력 2월 중순)이 되면 정기총회를 연다.

6) 제비 : 과거에는 집집마다 쌀을 걷었으나 지금은 업체에서 회사하는 기금으로 마련하며, 마을 주민들이 제주나 음료수, 제비 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7) 제관

① 선출방법 : 제관은 해마다 다시 뽑는 것이 관례이다. 정기총회에서 제관과 음식을 마련할 사람을 뽑는다. 그러나 만약 총회에서 뽑지 못하면 책임자(마을회장/새마을 지도자/총무 등)가 찾아다니며 부탁한다.

② 종류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사 이렇게 제관은 4명으로 초헌관이 가장 나이가 많고 집사가 가장 나이가 적다.

③ 자격 : 보통 50대 이상으로 집사는 30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는 제관을 할 수 없다. 친척 중에서 초상난 사람이 없어야 하고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합숙 : 마을회관에서 삼일 정성을 드린다. 생선, 돼지고기, 쇠고기를 먹지 않고 김이나 나물 등의 야채를 주로 먹는다. 마을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며 전화통화는 가능하다. 제관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할 여성 2명도 같이 합숙한다. 합숙 전에 미리 장을 봐서 3일분의 식사와 제물 등을 준비한다. 합숙 첫날은 차와 사람을 막기 위해 마을 동·서쪽 입구와 제관이 있는 곳에 제관들이 직접 새끼를 원손으로 꼬아 만든 금줄을 치며, 특별한 제행연습은 없다.

8) 제물

① 메 : 도량서직으로 올린다.

② 회생 : 제하기 전날 아침에 돼지를 잡는다. 뜨거운 물에 털을 부드럽게 하여 내장을 빼내고 털을 면도기로 잘 깎는다. 그러나 익히지는 않는다. 상을 놓는 방향은 튼 방쪽으로 놓는데, 그래서 해마다 다르다. 돼지머리는 상을 놓은 다음 상의 앞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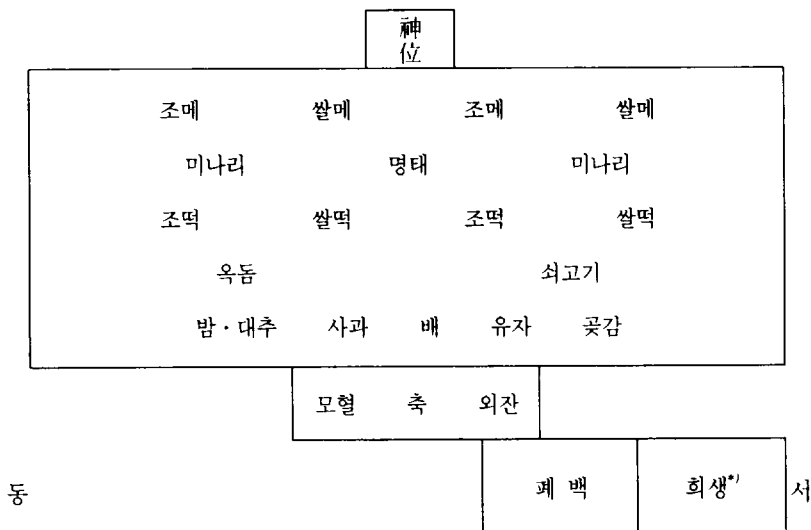
③ 생선 : 옥돔을 날것으로 올린다.

④ 채소류 : 미나리를 날것으로 올린다.

⑤ 육류 : 쇠고기 한근을 올린다.

⑥ 제주 : 골감주를 올린다.

- ⑦ 폐백 : 종이를 올리며 돼지를 싸서 놓는다. 초가지붕의 '새(띠)'도 올린다.
 ⑧ 모혈(돼지 목부분의 털과 염통의 피)
 ⑨ 툇 : 바다에서 캐서 3일간 삶아서 제관에게 준다.
 ⑩ 제물진설도



* 희생은 제일 트인 방향으로 머리를 한다

9) 제복, 제기 : 마을에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

10) 제차 : 먼저 당일에 제관들이 상가지물로 몸을 닦고 제는 일반 기제사와 같은데 12시에 올리고 1시~1시 30분쯤에는 가마솥에 돼지를 삶아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 제를 끝내고 돼지고기를 삶는데 과거에는 도난을 염려하여 돼지고기의 부위를 모두 확인했었다. 지금은 돼지 갈비 부분은 제관에게 나누어준다. 나이 드신 분이냐 초상집에 돼지 간을 보냈으나 이제는 제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 그 자리에서 먹거나 나누어준다.

11) 축문 : “오곡백과의 풍성 가축번성 수산 풍요 모든 생업 순조 소득 증대 질 역재난 없이 만복이 함께… 협동단결 리세 확장 안정 질서 이웃 화목 이세 건강”. 마을의 안정과 농사의 풍요 바다, 육상에서의 안전을 빈다. 특기할 만한 사향은 축문을 한글로 올린다는 것이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12) 홀기 : 없다.

13) 금기 : 여자와 외부인은 제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없다. 포제가 끝나고 3일 동안은 싸움을 하지말고 행동을 조심하는 등 정성을 드린다.

내도

1) 제명 : 포제, 포신제

2) 제일 : 음력 칠월 입추 후 정일(丁日) 또는 해일(亥日)을 택하되 마을 상황에 따라 정한다.

3) 제신 : 포신(포지지신)

4) 제장 : 내도 마을 공동체육시설 안에 제장이 마련되어 있다. 10년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제장이 체육시설로 포함되면서 많이 축소되었다.

5) 제의 관리 : 늦어도 포제 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총회를 연다. 마을총회는 '마을향회'라고도 하며 과거에는 '포제상회'라고 하였다. 연초에 마을총회를 열지 않고 이 총회를 마을 정기총회로 정하였다.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참석하며 여기서 제관을 선출한다. 4·3항쟁 전에는 소사(마을의 하인)가 있어 연락은 물론 회생 등의 제물들을 전담하였으나 지금은 방송시설이나 반장을 통해서 연락한다.

6) 제비 : 3년전까지는 별도의 포제비, 당비를 냈었지만 지금은 마을총회가 끝난 뒷날부터 호당 2000원씩 징수한다.

7) 제관

① 제관 자격 : 삼헌관은 60대 이상의 덕망이 있는 자, 봉로·봉향은 30~40대의 젊은 층을 선출하여 전통을 전수하려 한다. 상이 난 집안의 사람은 제관이 될 수 없다.

② 제관의 종류 : 원래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대축, 집례, 알자, 전사관, 봉로, 봉향 9명이다. 그러나 대축겸 집례를 마을회장이 맡고 제관할 사람이 모자랄 때에는 봉로와 봉향을 합친다.

③ 합숙 : 3일 동안 합숙한다.

첫째날- 오전 10시경부터 합숙하여 그 날 점심부터 그곳에서 식사를 한다. 제터를 청소하여 천막을 치고 금줄을 친다. 금줄은 과거에는 마을 입구에까지 쳤으나 현재는 포제터 중심으로 금줄을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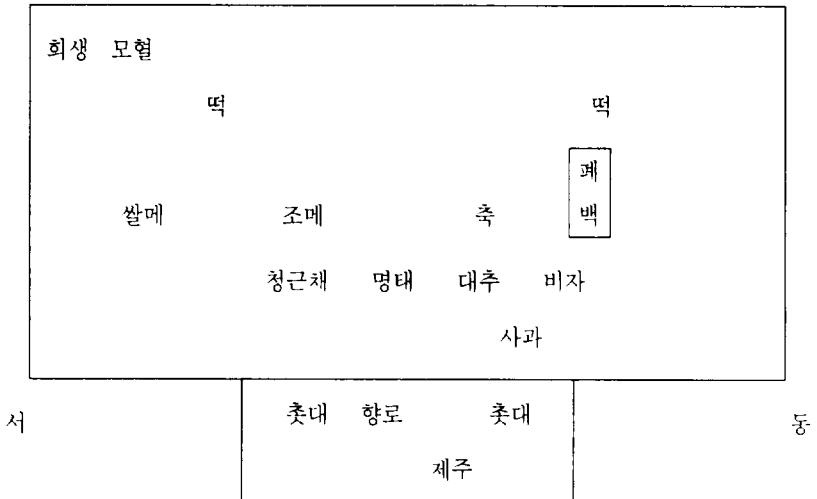
둘째날- 소일로 보낸다. 술은 마시지 않으며 장기나 바둑을 두고 웃놀이는 도박

성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다.

셋째날(제일)- 당일에 축을 쓰고 예행을 해 본다. 양돈업자에게 부탁하여 회생을 잡고 운반해 온다. 저녁 8시에 포켓터 아래로 내려가 씻고 제물을 진설한다. 11시에서 1시 사이에 제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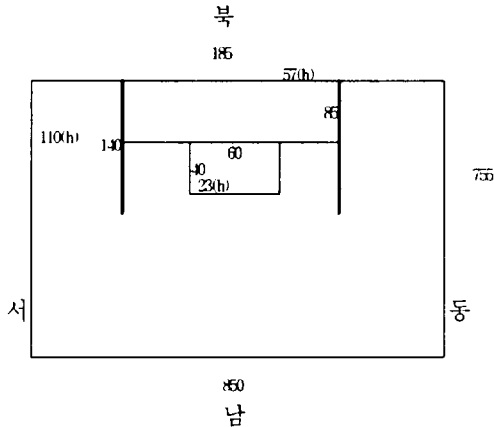
8) 제물

- ① 메 : 과거에는 피메도 올렸으나 지금은 조메와 쌀메를 하나씩 올린다.
- ② 회생 : 돼지 한 마리를 날것으로 내장을 빼내고 올린다. 컨테이너에 앉은 모습으로 구부려 올리되 머리는 동쪽으로 놓는다.
- ③ 채소류 : 미나리를 날것을 소금에 약간 버무려 올린다.
- ④ 어류 : 돼지를 올리므로 육포를 따로 올리지 않으며 대신 마른 명태를 올린다.
- ⑤ 실과류 : 3~5가지를 올린다. 사과, 배, 밀감, 유자(향이 멀리까지 퍼진다 하여 풀유자를 올린다.), 대추, 밤, 비자를 올린다.
- ⑥ 제주 : 골감주를 만들어서 생으로 올리거나 소주나 정종을 올린다.
- ⑦ 폐백 : 백지 한권과 명주 석 자를 올린다.
- ⑧ 모혈 : 머리에 가까운 등 쪽의 털과 심장에서 낸 피를 올린다.
- ⑨ 떡 : 시루떡, 다대
- ⑩ 제물진설도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9) 포제단



11) 제차

- 음복 : 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므로 제관들 위주로 음복을 한다. 청년 회원들의 협조로 제가 끝나면 곧바로 삶아 내어 우선 제관들이 나누어 먹는다.

12) 제복, 제기 : 제복은 음식을 장만하는 집에서 보관하였으나 3년전부터 마을 공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제기는 따로 갖추어지지 않고 음식을 마련하는 집의 그릇을 사용한다.

13) 금기 : 초상집에 가지 말고 시체를 보지 말아야 하며 합숙기간 동안 술을 금한다.

월대

1) 제명 : 이사제(포제, 마을제)

2) 제신 : 이사지신

3) 제일 : 입춘 지나고 첫 정일(丁日)이나 정묘일(丁卯日)에 지낸다. 그러나 마을의 상황에 따라 중정이나 하정으로 옮겨 지내기도 한다.

4) 제장 : 월대 서쪽 바닷가에서 지내다가 40년쯤 전에 지금의 석카름 동네로 옮겼다. 6년 전쯤 정제하여 포제단을 만들었다.

5) 제의 관리 : 마을총회(향회)는 포제를 치르기 20일 내지 한 달전에 열며, 세대주 모두가 참석하여 포제에 대해 의논한다. 제관과 제물 만드는 아녀자 3명을 뽑는다.

6) 제비 : 마을 공동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지만, 각 가정마다 초행례라 하여 결

혼, 신축, 득남하는 경우 제주나 쌀, 돈을 내기도 한다.

7) 제관

① 제관 자격 : 삼헌관은 60세 전후의 사람, 집사는 결혼한 청년들이 맡는다. 집례는 50~60세의 남자들이 맡고, 대축은 40~50대가 맡는다.

② 제관 종류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전사관, 좌집사, 우집사 이렇게 8명이며 전사관은 마을회장이 맡는다. 40년쯤 전까지 소사가 있었다.

③ 합숙 : 과거에는 일주일 동안 합숙하였으나 3일 동안 합숙하다가 10년 전부터 당일날만 마을회관에 모인다.

8) 제물

① 메 : 좁쌀메와 쌀메를 하나씩 올린다.

② 회생 : 당일날 새벽에 목욕재계 후 수태지 한 마리를 잡아서 끓은 물로 털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어 실로 잘 꼬매서 올린다.

③ 채소류 : 미나리

④ 어류 : 옥돔 말린 것을 올린다.

⑤ 육포 : 쇠고기를 날것으로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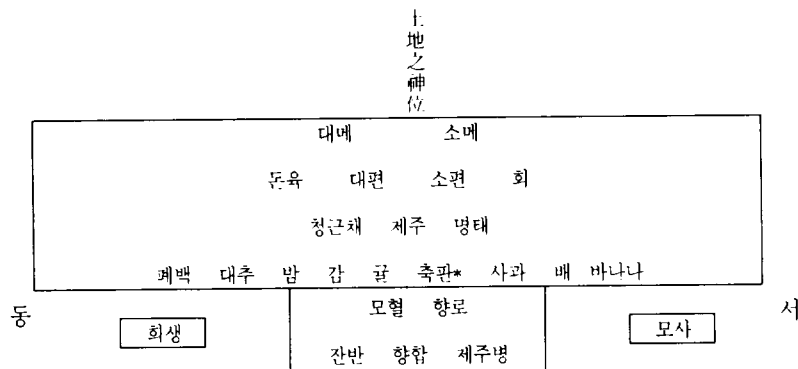
⑥ 실과류 : 사과, 귤, 밤, 대추, 꽃감, 유자, 배 등을 올린다.

⑦ 제주 : 골감주를 날것으로 올린다.

⑧ 폐백 : 배 한필과 백지 4권 정도를 올린다.

⑨ 모혈 : 목부분의 털과 엄통의 피를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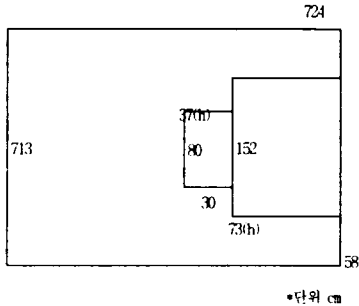
⑩ 제물진설도



* 축문을 올려놓은 관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9) 포제단



11) 제차 : 아침 6시~7시에 포제터 제청에서 돼지를 잡고 포제터를 청소하고 천막을 친다. 제물을 진설하고 12시에 제를 지낸다. 제차는 다른 포제와 동일하다. 회생말고도 돼지 한 마리를 더 잡아 다음 주 일요일에 있는 체육대회 때 마을주민이 다같이 나누어 먹는다.

12) 제복, 제기 : 제복과 제기는 마을회장이 관리하며 마을회관에 보관한다. 제기는 메 그릇은 놋그릇이며 나머지는 목기이다.

13) 금기 : 일체의 비린 행동을 삼가야 한다. 싸워서 상처 난 것이 없어야 되고, 상 난 곳에 가셔도 안되며 동물 시체 등을 보아서도 안 된다.

외도1동

1) 제명 : 포제

2) 제신 : 포신지위

3) 제일 : 음력 7월 정일(丁日)날에 지내며 정해일(丁亥日)이 가장 좋으며 정유일(丁酉日)은 닭싸움을 한다하여 택일하지 않는다.

4) 제장 : 처음에는 너븐뽕(사장터)에서 납세밋물을 이용하여 지냈다. 한 노인이 포제터를 제공하여 단거리 동산으로 옮겨 지냈으나 돌아가신 후 웃웃으로 옮겨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5) 제의 관리 : 포제가 열리기 보름이나 열흘전에 마을회관에서 포제향회를 연다. 신년초의 마을총회와는 별도로 모이는데 남자들만 참석할 수 있으며 제관을 선출한다.

6) 제비 : 20년~30년 전에는 보리쌀 한 되씩을 호마다 받았었다. 지금은 마을제

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회사하거나 음료수와 제주를 가지고 온다.

7) 제관

① 제관 자격 :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삼헌관을 맡으며 청년층에서는 집사 등을 맡는데 상이 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관의 종류 :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알자, 대축, 전사관, 양집사(2명) 등 9명이다. 양집사 중에서 동쪽에 서는 집사는 헌관에게 잔을 드리고 서쪽에 있는 집사는 잔을 상에 올린다. 경우에 따라 겸직을 하기도 하는데 대축을 초헌관이 겸하기도 한다. 마을회장은 전사관을 맡는다.

③ **합숙** : 일주일 동안 정성을 지냈으나 지금은 3일 동안 제터에서 합숙한다. 제관은 합숙기간 매일 목욕하며 첫날 저녁부터 세째날 저녁까지 7끼를 먹는다. 저녁 5시쯤 제터에 가서 입제를 하면 합숙이 시작된다. 제일 오후에 돼지를 잡는다. 차가 많이 다니므로 금줄을 치지 않는다.

8) 제물 : 몸이 비리지 않아야 하므로 60~70세의 여자들이 집에서 준비한다.

① 메 : 찹쌀 메, 현미 메, 좁쌀 메, 검은 좁쌀 메를 하나씩 올린다.

② 희생 : 돼지를 그을려 털을 벗기고 내장을 빼 것을 삶아 올린다.

③ 어류 : 내장을 뺀 명태 하나와 옥돔 말린 것을 날로 올린다.

④ 채소류 : 미나리, 고사리, 콩나물을 데쳐서 소금을 놓지않고 그냥 올린다.

⑤ 과실류 : 배 5, 사과 5, 귤 5, 수박 1, 바나나 1, 비자 한 흡, 밤 한 흡, 대추 한 흡 등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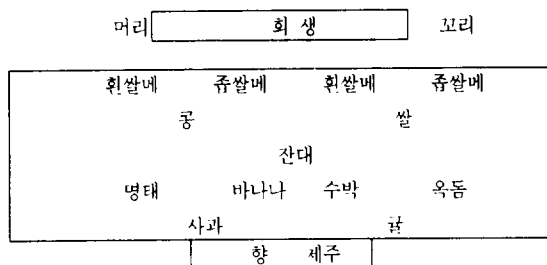
⑥ 육포 : 쇠고기 한근을 날것으로 올린다.

⑦ 제주 : 소주와 음료수를 올린다.

⑧ 폐백 : 시령목 한 필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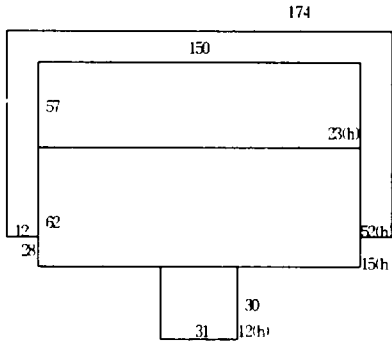
⑨ 모혈 : 돼지를 잡자마자 바로 돼지의 피와 털을 올린다.

10 제물진설도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9) 포제단



(단위 : cm)

10) 제차 : 셋째날 오후 2시쯤 동네 청년들이 보리감주를 마시고 돼지를 잡는다. 보통 오후 9시경 제를 시작하여 10시나 10시 30분 경에 끝난다. 제를 시작하며 돼지고기를 삶아 음복을 하면 12시가 된다.

11) 제복, 제기 : 제복은 마을회관에 보관하나 제기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12) 금기 : 싸움을 보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보아서도 안 된다. 과거에는 여자가 아침에 함부로 마을을 다니지 말아야 했다.

13) 축문

維歲次○○○月○○朔○○日○○初獻官 敢昭告于

酬神之靈 伏以 洞民一同共誠致齊豈口報寶 用伸未處伏維 尊靈洞民行事 如意成 就諸災瘟疫未然防德潤德化種播 西境雨水風調 五穀豐登病虫災害 不侵不死 六蓋蕃盛不崩不塞 審柑菓樹 病虫象防 家屋建築 如意成事 就學兒童 進學成就 犯罪豫防 諸般車輛農業機械 事故豫防 企業繁榮 轉禍爲福 謹以牲幣 醴齊 誠酒菓庶羞 式陳明薦于神 尚 饗

2. 당신앙

도령

- 1) 명칭 : 도령 본향당(함망당)
- 2) 당신 : 송씨 할마님
- 3) 제일 : 집에 굿은 일이 있을 때에 가는데, 음력 정월 5일~10일에 가는 경우

가 많다.

4) 형태 : 켈가 3개이다. 왼쪽 켈는 가로 53cm, 세로 41cm, 높이 16cm이고 가운데 켈는 가로 60cm, 세로 70cm, 높이 20cm, 오른쪽 켈는 가로 50cm, 세로 44cm, 높이 17cm이다.

5) 제물

① 메 : 보시메 1, 사발메 2 (왼쪽에 놓는 메는 아기를 잘 키우게 해달라는 의미이며, 가운데 놓는 메는 집안을 좋게 해 달라는 의미이고, 오른쪽 메는 곡식을 잘 되게 해 달라는 의미이다)

② 떡 : 돌레떡(예전에는 좁쌀로 떡을 만들었으나 요즘은 곤쌀로 떡을 만듦)

③ 어류 : 옥돔 3접시

④ 채소류 : 데친 콩나물 3접시, 미나리

⑤ 과일류 : 사과, 배, 귤 등을 있는 대로 올림

⑥ 채주 : 소주

⑦ 생쌀 1

⑧ 삶은 계란 3~6개 : 껍질을 벗김. 아기들 허물(피부병)을 낫게 하는 것을 빌기 위함.

⑨ 지물 : 종이 1권

6) 제차 :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는 먼저 올린 제물, 향 등을 치우고)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운다. '세배와수다'라고 하며 절을 세 번 하면서 속으로 소원을 빈다. 음식을 조금씩 뜯어 세 켈에 각각 담고 뚜껑을 덮는다. 잡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추물을 양푼에 담아 숟가락과 같이 그릇째 당 밖으로 던져 버린다(던져진 숟가락이 뒤집히지 않으면 신이 음식을 잘 드신 것으로 보아 좋게 생각하며, 뒤집히면 안 좋은 것으로 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을 때는 남은 음식을 먹고 오기도 하고, 혼자 갔을 때는 남은 음식은 들고 온다.

7) 비념 : 집안 일이나 자식 일을 기원한다. 애기비념을 할 때는 메 3, 찬물 1, 종지에 곤쌀 1을 준비하여 심방과 함께 간다.

8) 굿기 : 몸이 비리거나 마을이 비리면 가지 않고, 남의 집에서 음식을 먹어도 안 된다. 당에는 새벽에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되도록 피하여 조심히 간다.

9) 50여년 전까지 당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다. 박정희 대통령 때 미신타파를 하며 심방을 회유하고 당을 부수었다. (이후 청년들이 많이 죽고,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마을의 소가 모두 죽었다고 한다.)

내도

내도에는 당이 3개 있다. 하르방당에서는 주로 당제를 지내고, 바닷가에 있는 할망당(두리빌렛당)과 밭에 있는 할망당에서는 개인적인 비념을 갖고 간다. 할망당은 내도 출신인 사람들이 자주 다니며 하르방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생기에 맞춰서 다닌다.

1) 하르방당

① 명칭 : 옷당이라고도 한다.

② 당신 : 천지천왕 새금상또 짐씨하르바님

③ 제일 : 생기에 맞춰서 간다.

④ 위치 : 당이 세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지 못하고,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게 되자 마을 한가운데의 당 동산에서 60여년 전에 바닷가 전경초소로 옮겼다고 한다. 옮길 때는 마을 곳을 하면서 시령목으로 가마로 모셔가듯 옮겼다고 한다.

⑤ 제물 : 메 1, 생선(옥돔만 구워서), 다대떡, 미나리(날 것을 잘라서 소금만 조금 쳐서), 실과류 3(보통 사과, 귤, 배), 술(소주와 감주, 요즘에는 감주 대신 음료수를 가져감), 콩나물, 종이 1권, 생쌀 1그릇, 실(명을 길게 해달라고 빌기 위함)을 가져간다. 실은 당에 걸어 놓고 오고, 종이(소지)는 3장을 태우며, 오곡을 뿌리기도 한다. 보통은 돼지고기는 가져가지 않고 생선(옥돔)만 가져간다. 제사 때는 생선을 올리지 않고 돼지고기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돌아가신 분이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면 생선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르방당에 갈 때는 돼지고기와 삶은 달걀을 되도록 가져가지 않는다.

⑥ 유래 : 하르방당과 할망당은 같은 곳에 있었다. 할망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하르방이 돼지고기를 먹어서 냄새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고 하여 할망이 쫓아냈다고 한다.

2) 할망당

① 명칭 : 두리빌렛당, 알당이라고도 한다.

② 당신 : 두리빌레 용네부인 기민창조상

③ 제일 : 정월, 5월, 8월에 간다. 8월 추석에는 바닷가당에 가는데 동짓달 초하

루에는 파도가 심하여 당신(堂神)이 밭에 있는 당으로 올라가고 2월 초하루에는 해녀소리를 듣기 위해 바닷가당으로 내려온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에 가지 않고 좋은 날을 택하여 간다.

④ 형태 : 바닷가에 있는 당과 밭에 있는 당 두 개가 있다. 바닷가에 있는 당에는 켜가 2개이고, 밭에 있는 당은 켜가 1개이다. 그러나 밭에 있는 당에서도 두 군데에 당신을 모신다.

⑤ 제물 : 하르방당과 제물이 비슷한데 하르방당과 달리 삶은 계란과 물색을 가져가기도 한다.

⑥ 비념 : 자식을 잘 해 달라고 비는데, 아들이 일 경우만 해당한다(딸은 다른 곳으로 가버려서 가운을 끌어당긴다고 여겨 빌지 않는다).

심방이 나이, 이름 등을 말하면서 비념하고 쌀로 점을 쳐준다. 지금은 심방이 없어도 혼자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8월 추석, 정월 초하루는 심방이 와서 굿을 하며 심방은 어디서나 올 수 있다. 절을 세 번하고 종이를 태운다. 기도를 하며 다시 절을 하고 술 한 잔을 비운다. 결명할 때 나중에 한 잔씩 비워 놓는다. 켜에 제물을 떠 놓는다. 다른 그릇에 남은 음식을 또 떠 넣고, 손가락으로 당 주위에 조금씩 뿌리는데 잡신들을 위한 것이다. 바닷가에 있는 당에서는 실을 놓았다가 가지고 오며 밭에 있는 당에서는 실을 나무에 매어둔다.

그리고 특별히 연초에 바닷가에 있는 당 옆에 자갈이 많이 모이면 그 해에 좋은 일(풍년 등)이 생기는 것으로 예상한다.

⑦ 두리빌랫당의 유래 : 당신의 조상이 육지에 장사 나갔다가 쌀을 사고 돌아오면 배에 물집(구멍)이 터진다. 이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려 달라고 기원을 하자 큰 뱀이 나타나 구멍을 막아 준 데서 유래하였다. 사람들이 내도에 도착하자 은혜를 갚기 위해 뱀을 조상으로 모시겠다고 하며 좌정을 하길 권하자 바닷가의 큰 돌 아래로 들어갔다. 그 후 심방을 빌어 비념을 했다. 뱀이 정월 초하루 보름마다 제를 지내주길 바랬고, 동네 사람들도 신이라고 여겨 매년 가지는 않아도 몇 달에 한 번씩 다녔다.

3) 내도 당제

1 당신 : 당신(조상신)

2 제일 : 예전에는 하르방당에 3년에 한 번씩 동네의 안녕을 위해 크게 굿을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했으나, 지금은 일년에 한번씩 음력 정월, 입추 지나서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중에서 택하여 당고사만 한다.

③ 제물 : 메 2개, 잔 2개, 술, 미나리, 떡을 준비하며 희생으로 돼지고기 대신 닭을 사용한다. 모혈은 올리지 않고 닭 머리는 동쪽으로 가게 한다. 갯은 올리지 않는다.

④ 제의 관리 : 당굿으로 시작했으나 5·16 이후 당제 형태로 바뀌었다. 어촌계에서 주관을 하다가 4년만에(약 20년전) 부락으로 옮겨졌다.

⑤ 제비 : 별도의 회의 없이 마을 예산으로 사용한다.

⑥ 재차 : 밤 11시경에 제를 시작하고 음식을 차린 집에서 12시경에 음복한다.

⑦ 비념 : 해상안정

외도 1동

월대

마을에서 당을 철폐시키고 당신을 하늘로 올려보내 버려 마을 당굿이 끊어 졌다.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당도 잘 유지되지 않아 지금은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연대

연대에는 당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월대에 있던 당에 다녔었으나 그 당이 사라진 후에는 당에 거의 가지 않는다.

3. 가신신앙

외도 1동

1) 토신제 : 토신은 집터의 신으로 울타리 안의 모든 일을 수호해 주는 신이다. 음력 정월에 택일하여 제를 올린다. 쌀, 피, 조로 각각 메를 준비하고 희생으로 새끼 돼지(검은 수퇘지)를 마련하고 떡을 다대에 담아 올린다. 꽃감, 대추 등의 실과와 명태 등을 올린다. 이 상으로 칠성·조왕·문전제도 올린다. 그리고 글을 잘 하는 사람이 죽을 씨 와서 고한다. 집 지을 때나 재앙이 있을 때도 토신제를 올린다.

토신제에는 돼지를 올리는 경우와 올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돼지를 올리는 경우는 큰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미나리, 명태와 옥돔, 과일은 3~5개를 올리고 폐백으로 무명이나 베 한 필을 올린다. 제주는 골감주로 올리는데 메를 제외하고 모두 날 것으로 올린다.

2) 문전제 : 제사 지낼 때 같이 지낸다. 떡, 메, 실과 등을 올리는 데 특별한 형식은 없다.

3) 푸다시 :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도깨비를 내쫓는 의미로 지낸다. 제사상에 올리는 것과 같은 음식들을 조금씩 준비하고 따로 수수떡 9개를 차려 집에서 앞은 상에 올린다. 제를 지낸 후 상에 올렸던 음식 조금과 수수떡 전부를 아무도 모르게 밭에다 버리고 온다. 묘에 버리면 묻힌 이에게 해가 간다고 하여 묘에는 버리지 않는다.

4) 용왕제 : 고기를 많이 낚기를 기원하거나, 바다에 나가거나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안녕을 빌려고 지낸다. 매년 음력 정월 영등날에 범당에서 지내거나 바다를 건너간 사람이 있어 따로 지내는 경우에는 바다에 나가서 지낸다고 한다. 메 세 그릇과 과일, 채소, 떡, 술과 삶은 계란 5~7개를 가지고 가서 차려 놓는다. 심방이 비뚤을 하면 백지에 음식을 싸서 실로 묶고 던진다. 바다에 가라앉아야 좋은 것이다.

5) 애기 비뚤 : 애기가 아플 때 심방을 빌어다 지낸다. 초석이나 어머니 치마를 깔고, 메 세 개와 미역채를 생으로 3접시, 물, 보시쌀, 명실, 돈을 올려 장수를 기원한다.

6) 산신제 :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집 밖에 나와서 어떤 곳이든 상을 차려 제를 올린다. 한라산 신을 위해서 지내는데 메 세 개와 과일, 미나리, 술과 떡으로 개떡과 시루떡을 올린다. 이때 시루떡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올린다.

연대

1) 토신제 : 이번에 마을 회관을 신축하며 지냈다고 한다. 신위는 토지지신(土地之神)이며 축을 6번 읽는다. 쇠고기 날 것과 명태를 놓는다.

2) 문전제 : 제사나 명절 때 같이 상을 마련하며 쟁상의 오른 쪽에 놓고, 메 1, 갱 1, 젓갈, 콩나물, 생선 등을 준비하며 특별히 따로 지내지는 않는다. 동물 죽은 것을 보거나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제를 지낼 수 없다. 제 지낸 후에는 음식을 조금씩 뜯어 지붕 위로 던지거나 깨끗한 곳에 놓는다.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3) 고팡제 : 문전제가 끝나면 그 상을 고팡에 들고 가서 제를 지낸다. 도둑이나 쥐가 들지 않고 곡식을 잘 보호해 달라는 의미로 제를 지낸다. 옛날에는 고팡제가 따로 있었으나 이제는 고팡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따로 지내지 않는다. 그러나 고팡제를 지내지 않아 흉을 당한 사람들은 문전제를 올렸던 상으로 아직도 제를 올린다.

4) 요왕제 : 지금은 많이 지내고 있지는 않지만 배를 타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내고 있다.

① 제일 : 해마다 좋은 날을 정해서 지내는데 운이 좋지않다 싶을 때 지내기도 한다.

② 위치 : 바닷가 해안 중에 깨끗한 곳을 골라서 지낸다.

③ 제물 : 메는 2~4개 정도 올리는데 정해진 개수가 없고, 조상이 많으면 많이 올린다. 채소류로 고사리, 콩나물, 미나리를 올리고 과일은 사과, 배, 바나나 등 구할 수 있는 것을 정성대로 올린다.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올리기도 하며 명태는 하지 않고 굽거나 찐 옥돔을 올리며, 떡, 삶은 계란, 생쌀을 올린다. 소주 2홉과 메의 숫자만큼 잔을 준비하여 각각 술을 3잔씩 올린다. 예전에는 골감주를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음료수를 올리기도 한다. 심방을 데리고 갈 때에는 대나무도 준비한다.

④ 비념 : 바다에서의 신변안전과 풍요를 빈다.

⑤ 음복 : 제가 끝나면 모든 제물을 조금씩 창호지에 모아 싼 후 바다에 던진다. 남은 음식은 제장에서 먹기도 하고, 집에서 가족끼리 나눠 먹기도 한다.

5) 조왕제 : 음력 정월말, 2월 초에 주로 하는데, 집에서 또는 바다에서 지낸다. 제물은 밥, 배, 사과, 밀감, 창호지, 미나리, 생선(옥돔) 등을 주로 올린다.

6) 불도맞이 : 집에서 지낸다.

7) 귀양풀이 :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낸 날 밤에 심방을 불러서 한다.

도평

용왕제 등 바다와 관련된 제는 지내지 않는다. 해안가는 2월 전에 용왕제를 지내지만 중산간 지역이므로 농업이 중심이며 여름에 포제를 지내는 것으로 기우제를 대신한다.

1) 토신제 : 집을 새로 지어서 가는 사람들은 토신제를 올린다.

2) 문전제 : 제사지내기 전에 한다. 요왕제도 제사와 명절 때 같이 지낼 뿐 따로 지내지 않는다.

3) 애기비념, 닛들임 : 심방을 불러다 지내는데 애기비념에는 메 3개와 찬물 한

그릇, 흰쌀을 종지에 담아 올린다. 뉘들임에는 메는 올리지 않고, 찬물 한 그릇과 종지에 흰쌀을 담은 것만 올린다. 심방을 부르거나 스스로 뉘들임을 하는데, 스스로 할 때는 '뉘들라, 뉘들라, ○가 뉘들라'('○가'는 뉘 나간 이를 칭한다. 고가, 이가...) 라고 말하는데 특별한 형식은 없다.

4) 요왕제 : 문전제 지낸 것을 조금씩 건어 조왕제를 지낸다. 메, 실과, 구운 고기를 준비하여 상을 차리고 절을 세 번 한다. 메에 숟가락을 꼽고 기도를 한 후 숟가락을 빼서 돌아온다.

월대

1) 푸다시 : 죽은 사람이 붙어서 아프면 심방이 떼어 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바닷가 동네라서 바다에 제 드리는 것을 중시하여 푸다시는 잘 안하는 편이라고 한다.

2) 요왕제 : 지금도 몇몇이 하고 있다. 물들어 올 때 아무 시간이나 가며 문전제로 지냈던 음식과 삶은 계란을 가지고 가서 심방을 데리고 지낸다. 가족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잘 되게 해 달라고 빈다. 그리고 쌀을 집어서 점을 치는데 2, 6, 8, 11이 나오면 좋은 것이고 3, 5, 7이면 나쁜 것이라고 한다. 가지고간 종이에 밥 세 술과 돌, 사과 반쪽과 쌀, 계란을 놓고 실 7발로 싸서 3개를 만들어 동해용왕, 서해용왕, 풍용왕에게 올린다고 한다. 잘 가라 앉아야 좋은 것인데 용왕이 잘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전이나 무쇠도 넣었다고 하나 이제는 귀신이 못 먹는다고 하여 넣지 않는다.

3) 불찍앗이 : (불찍앗음)불이 난 뒤 주위의 일곱 집에서 각기 쌀을 조금씩 얻어와 메를 찌거나 또는 생메를 마련한다. 그것으로 물을 부우며 태우면서 심방이 불찍앗음을 한다.

4) 애기비뉘 : 메 3, 쌀 1, 돈, 삶은 계란을 준비하여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빈다.

내도

1) 문전제 : 오후 11시 제사를 지내기 전에(10시 반쯤) 문전제를 올린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을 올리며 갯은 집안에 따라 올리기도 하고 올리지 않기도 한다. 메는 2~4개 정도 올리며 쌀 한되로 떡을 만들어 올리고 과일 세 가지와 미나리, 실과 종이, 술, 감주(음료수), 명주실, 생쌀을 올린다. 비뉘를 하고 심방이 술을 올린다. 상은 제를 지내는 방의 오른쪽에 다 놓는다. 문전제를 지내고 나면 상을 부엌으

濟州市 外都洞 學術調查報告

로 가지고 와서 제반을 조금씩 거두어 술 뒤에 비우는 것으로 조왕제를 지내는데 문전제는 남자가 조왕제는 여자가 지낸다. 제사 때 올리는 것과는 달리 따로 3년에 한 번씩 올리는 집도 있다. 택일, 택시하여 정월이나 2월, 늦게는 3월에 올린다.

2) 푸다시 : 죽사니 들 때는 술도 뿌린다.

3) 뉘들임 : 아파서 아이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뉘이 나갔을 때 심방을 불러서 했다. 뉘들임을 할 때는 뉘 나간 장소에 직접 가서 한다. 그러나 아이가 그 곳까지 가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 상을 차려 메와 떡 등을 올리는데, 소금이나 물은 올리지 않고 소주를 올린다. 아이가 뉘이 나간 장소에 상을 차리는데 쌀 한 보시와 술 한 병만 가져가서 술을 입에 물고 아이 머리 위로 뿌리면서, "우리애기 뉘두려 줘서 혼 들여줍서 뉘들여줍서 혼 들여줍서 나해 몇 살이우다. 성님 어시우다 곱게 곱게 키워줍서"라고 한다.

4) 요왕맛이 : 바다에 나간 사람이 죽었을 때 지내며, 떡(시루떡, 돌레떡), 메 10, 실과(배, 사과, 귤, 복숭아는 올리지 않음), 생선, 채소 세 가지를 준비한다.

5) 불도맛이 : 무명(불도떨이), 동백꽃(쌀 위에 꽃음), 메 여러 개, 떡, 감주, 과일, 명태, 물새, 백지를 제물로 하고 불도다리를 준비하여 어머니가 이겨내야 한다. 곳이 끝나면 따로 잡신들의 뚝으로 콩을 뿌린다. 당일 돼지고기를 금하며, 금줄을 약 사흘간 친다. 아침에 문전제도 같이 지낸다. 15살이 되면 어른굿을 하는데, 불도다리는 그 때까지 놔둔다.

6) 요왕제 : 1년에 한 번 한다. 메 4개, 쌀로 돌레떡을 만들어서 가져 가고, 미나리, 계란 4개, 보시쌀 1개, 감주(환타나 식혜 등의 음료수), 술 4홉 짜리 등 잡신이 먹을 것까지 차리지만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

彙 報

(2000. 3. 1 ~ 2001. 2. 28)

1. 학회활동 일지

· 2000년도

3. 17. 이사회개최(1년 사업 계획과 일정 논의)
7. 7. 이사회개최(학술조사지 선정과 학술대회 일정 논의)
9. 22. 이사회 개최(학술대회 일정과 백록어문 17집 발간 논의)
11. 4. 백록어문학회 제7회 학술대회 개최(장소 : 교육대학원 특별 세미나실)
<발표>
· 김지홍 : 제주 방언 통사의 매개 변형 설정 - 대우 형태소의 경우
· 오창명 : 제주 방언 사전의 국어학적 접근
· 고창근 : 제주도 방언의 보조용언에 대하여
· 양영길 : 제주 지역 문학사 서술의 전제와 과제
· 김동윤 : 20세기 제주소설의 흐름
· 한창훈 : 제주도 무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종합토론>
· 좌 장 : 손오규
· 토론자 : 김태곤, 강영선, 장 훈, 강영기, 김지연, 강정식
11. 4. 정기총회(임원개선 및 결산보고)

2001년도

1. 10. 이사회 개최(백록어문 17집 발간, 임원 확대 등에 관한 논의)
2. 28. 『白鹿語文』 17輯 발간